

오! 인류의 바다에
주검을 수장하여 청량한 목욕을 하며
영령의 편안한 잠에 영겁의 노래를 부르련다.

〈출전 : 趙宇植, 東方の神々, 『朝光』 제8권 제8호, 1942년 8월〉

4) 바다의 찬가 - 반도의 소년이여! 바다로 부르심을 받으라

소년들이여
가슴을 펴라
가슴을 펴라

홀륭하게 양손을 활처럼 펴고
너희들 활의 눈이 쏘는 방향은
멀리 정패(征覇)의 저쪽.
아흡 군신(軍神)이 잠드는 진주만.
무쌍장절(無雙壯絶)한 뜨거운 바다.

모든 우주의 바다에
화살촉은 승고한 꽃무늬를 장식하고
꽃대에 숨은
성스러운 혜여(惠與)의 마음은

새로운 문화의 끈이 되어
너희들을 향한다
바다의 표적은 크게 동양의 향연으로 이어진다
그날
소년들이여.
이미 부모들의 결의는 굳게
능위(稜威) 아래 너희는 바쳐졌다.

동양의 아들은 효도의 삶을 살고
천황폐하의 나¹⁴⁴로 죽는 길은 충효의 길
이것을 지키고

144) 여기서 '나'의 원어는 '酉鬼(シゴ)'로써 '나'의 낮춤말이다. '미천한 나'의 뜻.

몸을 바쳐 죽는
너희는 가서 쏘아 버린다.

〈출전 : 趙宇植 海の讃歌 『朝光』 제9권 제7호, 1943년 7월〉

5) 봄과 함께 - 너는 가고

꽃들은 즐거워하고
봄은 무성하다
마음 풍요로운 아침

너는 부름을 받아 살아 있는 모든 것을 넘어
길게 자란 머리를 깎고
여명의 구름 그림자에
자세를 바로하고 (생명을-역자) 바치려는 너의 눈동자.

가슴은 원정(遠征)의 들판으로 포연을 안고
정화의식(禊はらひ), 축제를 지나
백성의 기도 속에 조용히 떠나
고향에서 멀어진다.

젊은 사념(思念)은 경건하게 맺어져
신들에게 바쳐진 네가 출정하는 아침.

나비들은 훨훨 날고
경성(京城)의 하늘은 아주 맑아
청정한 신 앞에 기도 드린다
부름 받아 가는 날

봄은 무성하고
탐스럽게 승리의 함성 타고르는 아름다운 아침이다.

〈출전 : 趙宇植 春と共に, 『朝光』, 1943년 4월〉

6) 비약에 대하여 - 반도의 소년들은 단련한다

느림하게 과시하는 소년들의 입술은
조야한 황무지에 우아하게 떨리고
어린 환희와 경이의 눈빛은
날카로운 총끝의 섬광으로 가득 차
꿀벌처럼 목마르게 바라는 것은
영겁으로 비약하는 꽃받침을 닮는 것—

부끄럼 없는 성스러운 그늘에
사랑의 비상은
수수께끼 내기를 향해 모닥불처럼……
타오르는 영상은 전통 속으로 녹아들어

비원(悲願)하는 홍안(紅顏)의 행진은
침묵의 밤을 밝게 영위하고
★ 너희들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너희들의 숨겨진 혼의 광망(光芒)은……★
무구한 행진으로 채색될 것이다……

되살아난 육구의 장중한 구호는
암초의 생명에 닿아 싸우고
미소 짓는 입술은
비장을 결의를 굳게 한다……

무수한 기쁨에
싸우는 반도의 여명은
결국에는 가일층 맑아지고
미묘한 향기 나는 이 정원에
소년들의 입술을 품고 축수(祝壽)처럼 조용히
흐르는 것……
그것은 한없는 신성(神性)에의 맹서다

〈출전 : 趙宇植 飛躍(につい), 『文化朝鮮』 제5권 제3호, 1943년 6월〉

7) 신주풍(神州風)¹⁴⁵⁾

—오늘도 바람은 하늘을 흐른다—

무상하게 햇별은 흔들리고
구름의 변모는 동심의 장난을 닮아—

휴식 없는 현세의 공간에
나는 오래 살아 친구를 전장에 보내고
매혹하는 건설의 얼굴로 해표(海標)를 찾아
수많은 도정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의 고독이여.
야윈 몸에 강인한 전통을 띠고
시력이 없는 눈에 희념(希念)을 빛내며
역사의 꽃을 비취 응시하는 정감
사쿠라꽃 산화하는 서정
빛나는 조국의 젊은 용사들이여.

지금 뚝에 계절의 조짐이 어려 있고
노쇠에 깃든 혼의 늪같은 속 깊이
화려한 잔치를 벌여
더할 바 없는 도서(島嶼)에 아침의 은총에 대한 감사를 보내며
가라앉은 선인(先人)이 잠든 가슴에 너의 뜨거운 눈물을 바쳐
꺼림칙한 양심을 사랑하는 유랑의 아들이여
박사(薄紗)의 사념을 늘어뜨려 흐릿해지는 눈
영원한 신화를 품은 신슈의 바람이여.
꾸짖는 우주의 사자(使者), 구름과 비 사이를 누비며
요람의 숲, 현실의 장소에
복숭아를 흠치는 꿈에 표박하는 삶은 태어나
보행의 육신거림에 금단의 열매—
느릿하게 혹은 빠르게
자신의 좌상(座像)을 채색하는 창의(創意)의 바람이여.
존경과 소박으로 가수(假睡)하는 젓먹이여
허망한 표상에 새벽하늘의 생기를 인지할까—

바람이여. 파도를 차고 쟁투를 낳아

145) 神州. 신슈. 신이 만들어 신이 지키고 있다는 나라. 일본에서 자국을 자랑하여 이루던 말.

신선한 공기, 평화와 질서의 춤을 권하고
청정한 해표를 사랑하는 자여.
용솟음쳐라 청춘을 빼앗도록
포효하라 육체를 막도록
취한 족속을 만끽하고
어두운 폭역(暴逆)의 그림자에
심연한 사랑의 정념을 기원하는 정(精)이여.

헛되이 키를 잡아
덧없는 젊음을 휘파람으로 흘려보낸다
조류의 비상에
바람이여
재빨리 꿈을 깨워라
고독한 너의 혼에
풍요로운 목소리를 열매 맺게 하라
살아있게 하라.

아직도
머리 위에 작열하는 태양의 찬가는 이어지고
병참의 정원에 고갈된 청춘의 샘이
엄하게 너를 기다린다
위대한 신수의 바람이여
만물을 위해
동방의 새로운 족속을 위해
사랑을 따르게 하라.

〈출전 : 趙宇植 神州風, 『東洋之光』 제4권 제8호, 1942년 8월〉

8) 싸우는 봄에 좋은 올렸노라

먼 곳에서 신중(神鍾)은 흐른다.
야치호코¹⁴⁶⁾ 여신이 울리는 주옥같은 소리
야마토 혼에 향기 높게 흐르고

146) 八千矛. 天神인 아마테라스에 대해 대지를 상징하는 神인 오오쿠니누시(大國主)의 별칭인데, ‘矛(ほこ. 쌍날 창)’는 武力의 상징으로, 武神으로서의 性格을 드러낸다.

아오야마(青山) 넘어 천황의 목소리를 넘어
여전히 아름답게
이 침묵의 마을을 향해 종은 울렸노라

숭고하고 깊고 깊게
새로운 신화의 마을에 울리는
밝게 웃는 범종의 소리.

서리 내린 아침.
한 해 전의 아침.
사랑스러운 배에서 보내진
빛나는 초원의 천지에서 싸우는 대조(大詔)
드높이 엄숙하게
신화(神火)의 방문을 받아라,
비모관음(悲母觀音)의 상(像)에 경건한 기도를 드렸노라.

울지 않는 족속의 눈동자가 영원히 일본을 빛내는 엄숙한 아침,

깊이깊이 아가(雅歌)의 여운은
대장부의 타는 가슴에 떨리고
서리 내린 아침 백성들의 창(窓)을 뚫고
대범한 족속의 밥상에 노랫소리가 되어 울려 퍼진다.
야치호코 여신의 주옥 같은 목소리.

내일도 또한 도요미키¹⁴⁷⁾에 防人¹⁴⁸⁾의 몸은 맡아져,
천황폐하의 방패(御盾)는
울려퍼지는 흐름에 둘러싸여
맹세는 굳고 대범한 아침.

종은 울렸노라.
향기 높은 여신의 주옥 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야마토 야치호코의 종은 울렸노라.

〈출전 : 趙宇植 戦ふ春に鐘は鳴りぬ、『朝光』 제9권 제1호, 1943년 1월〉

147) 豊御酒. 술의 美稱.

148) 사키모리. 옛날 일본의 東國(도고쿠)등지에서 징발되어 北九州(기타큐슈)의 요지를 경비하였던 군인.

9) 싸워 죽어라 - 징병령 선포일에

유구한 역사의 여운.
새로운 신화는 날개를 펼쳤다.

여기에 민족의 눈은 빛나고
우리 조상의 희열은 하얀 구름이 되어
위대한 아시아의 제단에
숭고한 전통의 신주(神酒)가 넘친다.

하얀 구름은 영원한 상(像)이다.

★

힘준한 시대의 바람, 위장한 사람들의
격앙하는 애정에 대한 역정(歷程)
흐드러진 계절의 사고(思考)―

수많은 계곡¹⁴⁹⁾을 돌며, 구름은 동양의 얼굴이 되고
신화의 화신이 되어 부유하니
빛나는 생명의 호수에 스며들고
혹은
방일(放逸)한 섬 민족의 가슴에
맑게 은혜를 띄워 창공에 걸고
더러운 혼의 뺨을 정화하며 축복을 보낸다.

★

존엄한 동경의 모습, 경건한 인류의 상징이여.
나의 꿈을 빼앗고
모든 비극, 모든 희구와 행복을 품고
질주하는 동방의 防人이여,
늠름한 날개를 뻗으라.

심오한 추량(推量)의 가슴에 멀리 민족의 시원을 품고
청량한 골짜기에 신화를 쌓고
동심처럼 혼을 사랑하고
어머니처럼 윤무도 춘다.

149) '鷄'로 되어 있으나 '谿'의 오식인 듯.

향수(鄉愁)에의 성스러운 눈(眼)이여.
선량한 동방의 기수여.
여행 중인 형제의 운명에 용맹을 바라고
한없는 조국의 영광을 읊조리고
이 습관
이 언어
이 시련에
나는 양손을 휘두르며 집요하게 건설을 약속한다.

★

오랜 반려, 포효하는 혼의 노래여.
드물게 흘러넘쳐,
오직 하나만을 향해 살아가는 생명의 꽃들이여.

남풍의 계절에 소박한 낭만을 응시하면
아시아의 구릉에 아마토(大和)의 기백은 날개를 펼치고
장려한 난류(暖流)의 샘에 영웅의 목소리가 메아리치고
눈사태 난 고원에 온상(溫床)을 펴고
부드럽게 웃는 신이여.

★

금빛 소리개¹⁵⁰⁾의 황혼, 의혹하는 세기(世紀)의 바람 빠르게
우리는 키를 잡고
포효하는 시대의 파도 사이로
과거를 가라앉히고 새로운 신화의 날갯짓을 들으며
조국을 위해 항진한다.

★

유수(幽邃)한 공간을 흐르는 여운
밀어닥치는 민족의 혈액이여.

.....

소리는 선명하게 빛을 방사하는
반딧불이 되어 분화(焚火), 어화(漁火)로 변하고
들불이 된다
다가온다. 좇아온다.
하치마키¹⁵¹⁾가 타고, 가슴이 끓는다

150) 金鷄(きんし). 일본 초대 국왕으로 알려진 진무(神武)가 싸울 때 도왔다는 금빛 소리개.

151) 鉢巻, 머리띠.

희망도, 건설도, 청춘도
□로 빨리 들어갈 것 같다.
오— 눈이 흐려지고 호흡은 가빠온다.
윗옷을 벗고 키를 폼고
흐르는 혈액이 격앙하는 이날과 더불어
새로운 역사의 빛을 향해
이 위대한 은혜를 위해—
높이 감사의 기도를 올려
천황폐하의 방패가 되고
출정병(征夫)이 되어
우리는 죽어야 한다—

〈출전 : 趙宇植, 征きて死なん, 『朝光』 제8권 제6호, 1942년 6월〉

10) 아가(雅歌) - 전선에 보낸다

작열하는 동틀녘
차분히 기른 예지의 안개여.
전통의 금빛 소리개¹⁵²⁾여.

거대한 아침 햇살은 오는구나—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고향에
뜨거운 햇살은 온다.
대대로 움터 온 민족의 호흡이여.
순수한 야마토의 혼이여.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성지(聖地)야말로
깊고 맑은 아시하라¹⁵³⁾의 언덕.

우리가 받은 아름다운 혈통은
영원히 간직하는
영웅의 눈빛.

152) 金鷄(きんし). 일본 초대 국왕으로 알려진 진무(神武)가 싸울 때 도왔다는 금빛 소리개. 金鷄勳章은 일제가 수여하던 무공훈장.

153) 葦原. 옛날 일본을 일컫는 지명. 원 뜻은 '갈대밭.'

이것이야말로 죽은 친구를 인도하려고
아침을 권유하는 광휘가 아닌가
강하구나 우리의 사나이다운 혼의 노래여.
패한 자여. 묻지 마라 왜 강한가는!

우리 걸음의 발자취여.
무궁한 아침은 오는구나—
패해 도망가는 너희의 눈동자, 너희의 나라
지금은 모든 것이 썩어빠져
패해 사라진 너희의 죽음

슬픈 너희의 비극이여.
우리 여기에 자비의 손을 내밀어도
너희의 얼어붙은 사랑은
이미 재가 되고 하얀 묘지가 되었으니
너희의 주저하는 최후의 몸부림이여.

기만하는 지성, 회색의 문화여. 사라지는
너희의 달콤한 죽음의 놀이여.
너무나도 오래 머물러
나쁜 회화(會話)여. 사라지는
태양이 분노하여 지금
비로소
해뜨는 나라의 은혜를 알고
우리의 피, 피, 피,
뜨겁고 붉은 피가 통하는 것을 알지니.

우리는 영원한 파도의 자장가가 키웠고
일찍이 신령함으로 단련된 자
지금은 오직 이끄는 대로 서니
우리의 작은 배는 폭풍이 되고
사나운 독수리(荒鷲)의 노래는 너희를 위로하는 소리.
어떻게 이것을 잊으랴
허다한 정신, 모든 움직임.
이것이야말로 일찍이 받은 거대한 마음의 존귀함.
오! 역사의 산꼭대기에 너희를 인도하는 태양은 비치고

별들의 무리 여러 색의 백성들의 모습은
영광의 총성으로 사라져 가지않는다

지금 우리의
민족의 태양, 금빛 소리개의 광휘는
동쪽을 비추고 남으로 흘러
역사의 바다에 흘러넘치며 빛나고

우리 동아시아를 선도하는 뱃노래는
엄숙하게 여덟 바다에 울려 퍼진다.

〈출전 : 趙宇植 雅歌 『朝光』 제8권 제3호, 1942년 3월〉

11) 학병 출정하다

벽령(碧靈)의 하늘 맑은 그날
큰 죽음의 뜻은
학도출진의 표징(表徵)이 되어
출정한다.

그것은, 전선에 꽃 피우기 위해서이다.
그것은, 조국의 숭고한 전통에 뿌리는 것이다
큰 결의를 위해.
그날, 엄숙하게 너희의 정도(征途)를 보낸
나는
적나라하게, 영원한 것을 보았다.

장하구나, 학도 출진.

학도 출진의 기(旗)를 전송하며
그대들, 가고
여기에서, 맞이하는, 12월 8일

반석의 기초는 구축되고
그대들이, 미소 짓는 전장을 생각하며
나는, 지금 질풍과 같이
도의(道義)의 날개를 퍼덕이며

포연 속을 질주하는
그대들, 학병의 영웅스러운 모습을 본다.

이 높은 진군의 울림이 계속되는 한,
12월 8일의 결의는 더욱 굳고

우리도 나서서
너희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한다.
벗끝으로 붉은 국민의 피가 스며 흐를 때까지!

〈출전 : 趙宇植 學兵征く, 『朝光』 제9권 제12호, 1943년 12월〉

11. 주영섭

1) 태평양교향시

1.
흰 물결이 해안선을 스치고
달아난다 천리 만리……
안계(眼界)에 넘치는 수평선
대공(大空)을 구분하는 수평선
아시아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을
넘쳐흐르는 거친 물결이
태평양 대해원에서 부딪친다·용솟음친다
하늘에 솟는 표랑
바다 밑을 파헤치는 □潮
태평양은 세계의 바다
동양의 바다!

2.
남해에 모여 앉은 섬들이여
뿔뿔이 헤어지는 섬들이여
지도에 채색당한 섬들이여
오랜 세기를 잠자던 크고작은 섬들이여
굴욕의 역사를 떨쳐버릴 때는 왔다

동양민족 해방의 파도가
태평양에 넘친다
남양에 넘친다
대륙에 넘쳐흐른다
청신한 대기와
건조한 두뇌와
탄생하는 태양과
발랄한 육체와……
남해의 주민이여
벌거벗은 형제여
인류의 문화는
지중해에서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동양의 바다로!
두 팔 들고 맞이하여라
동양의 민족이여
두 팔 걷고 건설하여라
동양의 문화여!

3.

거친 물결이 해안선을 박차고
달아난다 천리 만리……
야자수 어깨로 떠오르는
붉은 태양이여
푸른 수평선 위에
펼럭이는 일장기여
적도를 넘는 열정
대양을 덮는 집념이여
푸른 바다 위에 떠도는 하얀 섬들
흰 물결 위에 떠도는 푸른 섬들
잠 깨어 일어나라
소리 치고 일어나라
아시아 대륙이여
남해의 섬들이여
태평양을 뒤덮는 폭격기
대남양(大南洋)을 휩쓰는 전투함

동아의 밤이 새련다
대동아의 아침이 동티오른다
태평양은 동양의 바다
동양의 어머니,
우리들의 사상의 바다
생산의 바다
문화의 바다!

〈출전 : 朱永燮, 太平洋交響詩, 『매일신보』, 1942년 1월 9일〉

2) 남양송가

1.
태풍이 폭우를 싣고 적도를 통과한다
海□가 격랑을 몰고 해원(海原)을 질주한다
400여 년—
외방(外邦)의 정복과 압박과 착취 밑에
굴욕의 역사로 살아 온 남양의 黑□들,
동방의 화원은 황폐하고
남해의 터부는 유린당했다
섬섬에 거미줄같이 퍼진 침략의 자취
때때로 불어오는 스킨(154)의 협위(脅威),
이제 정의의 선언은 광포(廣布)되었다
드디어 세기의 여명은 약속되었다
청년 아시아의 한계에 전개된
새로운 세계도(圖)와 세계사—

2.
태고적 아시아 대륙에서
떨어져나간 남해의 섬들
오랜 세기를 두고 □□□ 그림자 속에
꿈꾸던 남해의 섬들,
그 속에 생동하는
수많은 족속과
수많은 언어와 종교와 풍속과……

154) squall, 열대지방의 소나기.

그러나 그대는 아시아□으로 연결된
 동방의 오래고 또 젊은 민족이로다, 상륙의 밀림을 뚫고 돌진하는 전차
 열풍을 가슴에 안고 전진하는 병사
 남양의 주민이여
 남해의 형제여
 포구(砲口)에서 터져 나오는 꽃다발을 받으라
 전쟁이 날려 보내는 비둘기를 맞으라
 대동아해방의 성전은 터졌도다
 랭군의 하늘에
 마닐라의 참호 속에
 싱가포르의 요새지에
 남양의 하늘과 땅 위에
 아시아의 대륙과 대양에—

3.

오오 거룩한 피 흘린
 말레이의 □□이여
 보르네오의 유전(油田)이여
 크고 작은 섬섬의 야자림이여
 동방의 제신(諸神)이여
 세기의 거룩한 희생을 받으라
 세기의 거룩한 祭□을 받으라
 외국배가 항구에 들어올 때마다
 바다에 들어가 은화를 물고 나오던
 말레이 소년이여
 영국 □軍의 앞잡이가 되어
 영국군대의 위협 속에 표적물로 쓰러진
 말레이 청년이여
 네 손에서
 은화를 던지고 □□를 따라
 네 팔에서
 총자루 던지고 가슴을 열라
 남해의 □□이여
 밀림의 □□□여
 너희도 들으라
 포화의 교향악을 · 세기의 합창을—

거룩한 피 뿌린
고무림(林)에, 정글 속에, 바리케이드 위에
제단을 쌓으라
기도를 올리라
꽃다발을 드리라
남해의 형제여,
두 팔 들고 맞이하라
동방의 새로운 태양을!

〈출전 : 朱永燮 南洋頌歌 『매일신보』, 1942년 2월 4~5일〉

3) 고무의 노래¹⁵⁵⁾

한낮의 책상 위
남양(南洋)에서 왔다는
고무나무가 한 그루 서 있다
작은 칼로 깎으면 고무액이 흐른다는
아직 푸른 줄기와
큰 타원형 잎이 은방울꽃처럼 펼쳐져
먼 꿈을 부르고 있다

한낮의 좁은 길모퉁이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다
남양에서 보내 온
고무공을 힘껏 던지며—
붉은 땅에 도약하는 고무공이여
푸른 하늘을 비상하는 고무공이여
남양의 새하얀 전설이여
하늘을 날아라
높이 높이
동양의 젊고 깊은 창공을—

하얀 벽 가득 펼쳐진

155) 1942년 2월 15일에 일본군이 말레이 반도의 싱가포르를 점령한 기념으로 일제는 식민지 조선을 비롯한 전 일본 어린이에게 고무공을 나누어 주었다.

태평양 파도
말레이시아산 고무나무의 푸른 잎이
열풍을 흔든다
스콜¹⁵⁶을 불러온다
남양항로 사무실의 오후
창밖을 흐르는 흰 구름은
오늘도 청천(晴天)이다

〈출전 : 朱永燮, 그ムの歌 『國民文學』 제2권 제8호, 1942년 10월〉

4) 비행시

하늘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하늘은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소년은 언덕에 누워 휘파람을 불었다
클로버 하얀 꽃에 꿀벌이 붕붕 울고 있었다

새벽하늘은 자줏빛으로 잠들어 있었다
적란운(積亂雲)을 뚫고
소년항공병의 가슴은 뛰었다
해원(海原)의 한 구석에서 태양이 빛나는 순간
짙은 구름 사이로 진주만이 열렸다
소년은 잠자리처럼 날아갔다

마을은 봄안개가 끼고
원무(圓舞)하는 비행기의 폭음 속에서
은행나무 꽃이 구름처럼 피어 있었다
언덕 위에서는
반도 소년이 혼자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출전 : 朱永燮, 飛行詩, 『國民文學』 제3권 제6호, 1943년 6월〉

156) squall, 열대지방의 소나기.

12. 주요한

1) 싱가포르 함락가

1.

깨어졌다 싱가포르 물러서라 영국아
정의가 승리하는 날이 왔구나
이날부터 동양 백성 활개를 벗고
옛 터전에 새 살림을 세워 보리라

2.

깨어졌다 싱가포르 물러서라 영국아
어젯날 가증(可憎)하던 원수의 소굴
오늘부터 아세아의 미쁜 문지기
이름조차 장하도다 사자항구(獅子港口)여

3.

깨어졌다 싱가포르 물러서라 영국아
거만한 동양함대 단숨에 깨고
자랑삼던 향항성(香港城)도 겨우 18일
말레이(馬來)전선 천킬로가 두 달도 못가

4.

깨어졌다 싱가포르 물러서라 영국아
사자성(獅子城) 성문 위에 저어 일장기(日章旗)
태평양의 아침해요 인도양 저녁
두 바다를 지키어라 영원무궁히

5.

깨어졌다 싱가포르 물러서라 영국아
난인(蘭印)¹⁵⁷⁾의 남은 섬들 참새 몇 마리
비르마¹⁵⁸⁾가 꿈틀기고 인도가 벌떡
런던 사는 신사숙녀 간이 서늘해

157) 인도네시아.

158) 버마.

6.
 깨어졌다 싱가포르 물러가라 영국아
 열대의 □□보다 더욱 □하고
 백십도 끓는 벌도 서늘하다 할
 침략자의 모진 학대 물러가거라

7.
 깨어졌다 싱가포르 물러서라 영국아
 너희들 백년영화 시드는 곳에
 원 세계의 새론 몸이 싹터오나니
 만세소리 동서양을 진동하도다

〈출전 : 村松紘一, 싱가포르 陷落歌 『매일신보』, 1942년 3월〉

2) 『손에 손을』¹⁵⁹⁾(1943)

저자 일본명 : 村松紘一

목차

<p>우리 백성(御民われ) 가장 피가 끓을 때(一番血潮) 팔굉일우(八紘一宇) 동양해방(東洋解放) 손에 손을(手に手を) タンギ</p> <p>소집 명령을 받은 우리 아들들(召さるる吾子等) 오늘에 이르러서야(今日にして) 대군에게(大君に)</p> <p>승전보(勝利の譜) 12월 8일(12月8日) 돌아오지 않는 38기(かえらぬ38機)</p>	<p>왕군을 추억한다(王君を憶ふ) -상해 조계진주의 날에(上海租界進駐の日に) 마음속의 싱가포르(心中のシンガポール) 임시대제의 날에(臨時大祭の日に) 승리의 태평양(勝利の太平洋)</p> <p>송가(頌歌) 송가(頌歌) 서설(序説) 부여의 꿈(夫餘の夢) 하얀 꽃(白き花) 산호의 숲(珊瑚の森) 산책(散策)</p>
---	---

159) 『손에 손을』 시 가운데 일부는 한글로 잡지에 발표되었기에 번역에서 제외하였으며, 일부는 김병길·김규동 편, 『친일문학작품선집』 1, 실천문화사, 1986에 번역본이 실려 있기에 번역에서 제외하였다.

오늘에 이르러서야(今日にして)

(조선에 징병령(徵兵令) 시행이 결정되었다)

오늘에 이르러서야 우리들을
부르시는 크신 뜻
이야기로 전해 듣고
눈물 흘렸노라

□

무인이 되리라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노라
마음을 단련하라고
젊은 때부터

□

총을 잡는 모습만
어찌 경모(敬慕)할까
목숨 바치는
마음을 배워라

□

천황 만세
외치며 나 죽으리라
불러 주신 명예
그저 고마울 뿐이고

□

동쪽의 흐려진
하늘 맑게 개지 않는 것은
내 공(功)을 시험하는
마음이 아닐까

□

대범하게 동아시아 건설에
나아가리라
나라에 부름을 받는
날(日) 기다려지노라

□

대지(大地)를 강하게
힘껏 밟으며 길을 갔노라
신민(臣民)인 나를 살게 할
뜻이 있었기에

대군¹⁶⁰에게(大君に)

대군에게 한결같이 바친
참으로 총 잡은 어깨
넓기도 하여라

□

전쟁이 이내 잠잠해져도
기도하면서 나갈 뿐이다
멈추지 말았으면 하고 바라노라

□

나는 바다 나는 물이라고 서로 얘기하는
아이들의 목소리에도
기쁨이 넘쳤노라

□

유례없이 강한 황군(皇軍)
그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않게
부름을 받은 우리 아이들

돌아오지 않는 38기(かえらぬ38機)

푸르른 물결도 조용히 사계의 봄을 자랑한다고 하는
태평양의 낙원, 하와이 군도(群島)의 아름다운 섬들이여
12월 8일 너의 머리 위에 피와 불의 빗줄기가 내렸을 때
동양 해방의 깃발은 가로 길게 뻗치고 정의의 칼날이 번쩍번쩍 빛나는 것을 보았는가
이날 적국의 군함, 침몰하는 것의 기함(旗艦) 애리조나를 비롯해서
오클라호마와 웨스트 버지니아,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
부서진 것이 네 척, 이름도 아름다운 진주만(眞珠灣)은 시체가 되었고

160) 천황.

폭루(暴淚) 아메리카의 아시아 함대는 즉석에서
반신불수(半身不隨)의 불구가 되고 말았다

“이날 우리 비행기의 손해는 38기”라고
해군성(海軍省)의 발표는 간단했다고 해도
광휘(光輝)가 있는 대동아 전쟁, 첫날의 큰 승리 뒤에
조국의 부름에 응하여 생명으로 대답한 용사들
고귀한 희생, 이름도 모르는 그 이름이야말로 천재(千載)¹⁶¹에 빛나리라

이것, 삼천 년의 역사에 흐르는 황국정신(皇國精神)의 개화
이것, 삼천 년 닦고 연마한 우리 해군의 무적의 힘의 나타남
이것, 8개월간의 참고 참았던 동아시아의 분격(憤激)의 폭발이다.
한번 정벌 가면 돌아오는 것을 기약하지 않고
살신(殺身)으로 임금에게 바쳐 나라를 구하는
세상에 둘도 없는 위대한 정신을 아는가
“바다에 가면 물이 잠기는 시체
산에 가면 물이 나는 시체”¹⁶²
아, 강철 같은 군함을 전멸시키는 것은
화약인가, 폭탄인가, 어뢰인가, 그렇지 않다
그것은 두려움을 모르는 인간의 피와 살과 뼈다
젊은이의 불타는 정신이다

돌아오지 않는 바다 독수리 38기
거기에 태평양의 창공에 산화해간 군국의 꽃이어
그대야말로 세기의 영웅!
우리들 뜨거운 눈물과 몸을 흔드는 감사로 그대를 칭송하리라.
대동아 전쟁, 서전(緒戰)의 커다란 승리로
만들어지길 그대의 위업을 영원히 노래하리라
태평양 한가운데, 하와이 섬들에
다시 낙원이 돌아올 날도 멀지 않았을 것이다
그때 우리들 그대를 위해서 하늘에 닿을 탑을 세우리라
세계의 온갖 인종은 그 앞에 엎드려서 소리치리라

161) 천년.

162) 군국가요 〈바다에 가면(海行かば)〉의 한 구절.

“보라, 여기에 새로운 시대를 낳은 어머니 잠들다”라고
 그들은 노래하고 또한 즐기리라
 그 노래와 즐거움은 다할 나위 없어야 한다.
 그렇긴 하나 지금 태평양의 물결은 나날이 소용돌이치고 있노라
 어느 파도 아래에서일까 부서진 날개는 잠들 것이다
 잠들어라, 부서진 은빛 날개여, 편안히 잠들어라
 일 억 동포 여기에 있노라
 십 억의 황색(黃色)의 백성 여기 있노라
 그대들 영광의 생명의 제단(祭壇)에
 도깨비불이 되어 우리 몸도 바치리라
 마지막 승리를 얻을 때까지
 동아시아의 자유를 쟁취할 때까지
 그대들의 발자취를 밟으며 배우리라

왕군을 추억한다(王君を憶ふ)

—상해 조계진주의 날에(上海租界¹⁶³)進駐の日に)

왕군!
 사랑스런 벗
 그리운 그대,
 흑요석(黑曜石)의 눈동자와
 한 글자로 굳게 닫은 입술의
 왕군!

대륙과 대양의 혼혈아
 주강(珠江)의 정기를 받아
 남양군도(南洋群島)의 태양에 그을리고
 청춘과 고향과 학문을 동경하며
 양자강을 거슬러 온
 왕군!

내가 그대의 어린 사슴과 같은 모습을
 처음으로 접했던 상하이의 공공조계(公共租界)가
 황군의 손에 무혈점령되었다는 뉴스를

163) 19세기 후반에 영국, 미국, 일본 등 8개국이 중국을 침략하는 근거지로 삼았던, 개항 도시의 외국인 거주지. 외국이 행정권과 경찰권을 행사하였으며, 한 때는 28개소에 이르렀으나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폐지되었다.

라디오로 듣는 이 저녁
그대를 생각하는 마음 간절하다

그대는 물론 기억할 것이다
어느 해 여름, 제스필드의 공원에
둘이서 들어가려고 했을 때,
우거진 나무 숲 속에서
갑자기 한 순포(巡捕)¹⁶⁴가 나타나서
여기에는 서양인만이 들어온다
중국인은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하는 그도 중국인
듣는 그대도 중국인
우리들 웃는 얼굴에는
전신의 피가 울컥 솟구쳐 왔고
우리들의 가슴은
백관(百貫)이나 되는 납을 부어 넣은 것처럼 무거웠고
말도 없고, 눈짓도 없고
발길을 돌려 돌아왔던 그때
“이 세상은 아직 어두워
아직 우리들의 때는 오지 않았는가”하며
나지막하지만 바늘처럼 찌르는 그대의 목소리,
오늘도 내 귀에
살아있다.

왕군!
오늘 저녁,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벗,
지금, 그대는 어느 하늘 아래에서
타악기의 높은 소리와 닮은
맑은, 열기가 짙 찬 목소리로
동아시아 해방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을까
남경 성두(南京 城頭), 중산로(中山路)의 큰 거리에서
청천백일(青天白日)의 깃발을 흔들고 있을까
하와이의 종려(棕櫚)나무 잎 그늘에서

164) 헌병.

일본 공군의 급강하 폭격에
손뼉을 치고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반곡(盤谷)¹⁶⁵⁾의 거리에서
타이의 젊은이들과 손을 잡고 있을까
마닐라 성 아래에서
늙은 지사(志士)의 눈물에 쌓인 귀국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까.
그대의 발자취는 찾을 길도 없는,
대륙의 아이이면서
대양의 아이이기도 한 남방 지나(支那)의
뻘어 가는 생명을 대표하는,
사슴 같은 젊은이
비어(飛魚) 같은 열혈아
우리들의 왕군!

황포강(黃浦江)의 노란 흐름에
열강(列強)의 깃발을 세운 군함이 분주히 돌아다니고
소주하(蘇州河)의 만국공원(萬國公園)에
개(犬)와 중국옷을 입은 사람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붙어 있던 그때,
반도의 부두에 평화탑이 우뚝 솟았다고 하며
대마로(大馬路)의 빨간 불빛 아래에서는
재즈가 밤을 지냈던 그때,
그리고 포마청(跑馬廳)의 잔디에서 서양 여자가 골프를 치며
마제스틱 호텔의 벤치에
유대인 부자가 큼지막한 배를 둘 곳 없어 난처해하고 있었을 때,
그대의 주먹은 불덩어리처럼 뜨거웠다.
그대의 뺨은 풀무처럼 싸웠다.

오오, 공공조계!
그것이야말로 침략자들이
그 반식민지(半植民地)를 착취하고, 눌러 찌부러뜨리고
빨아냈던 거대한 계약

165) Bangkok 방콕.

기묘하고 불가사의한 기계가 아니었을까.

1925년 5월 30일

술에 취한 영국의 경부(警部)가
실탄을 한 중국인의 순포대(巡捕隊)에 명령하여
중국의 자유를 외치는 청년학생의
행렬에 발포하여
남경로(南京路) 아스팔트를 그들의
피와 살로 물들였던 그날
그날 밤, 왕군!
5백 명의 동창생을 앞에 두고
그 상황을 보고하는 그대의 비통한 목소리가
그대의 비통한 몸짓이
그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지금도 눈에 보이는 것 같다.

왕군!

그 공공조계가
오늘, 황군의 손에 들어갔다.
중국의 경제를 단단히 묶어두고 있었던
황포탄(黃浦灘)의 7층 양관(洋館)은 빈집이 되었다.
국제은행단의 무서운 음모는
영국의 포탄과 함께
황군의 포탄에 가루로 사라졌다.

왕군!

태평양의 성전(聖戰)은 이미 시작되었다.
앵글로 색슨의 마지막 날은 왔다.
동아시아인의 동아시아는
지금부터다.
지금은, 왕군
그렇다 “지금은 우리들의 날이다”라고
파란 하늘을 향한 목소리가 있는 한
소리칠 수 있는 날이 드디어 온 것이다.

황하와 양자강을 지켜 온
그대의 동족들은 물론이거니와

안남(安南)이나, 타이나, 미얀마 등
3억의 인도 국민이나
1억의 말레이시아인이나
필리핀, 호주, 하와이나
태평양의 크고 작은 몇 만의 섬들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같이 오랫동안의 방해물을 벗어던지고
새벽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그날이
드디어 온 것이다

기뻐하라 왕군!
그대를 낳은 대륙의 땅도
그대를 길러 준 대양(大洋)의 섬들도
그대가 사랑하는 태평양의 거친 물결도
진짜 주인의 팔로 돌아갈 수 있다.
일장기는 선두에서 휘날리고
동아시아 사람들 발을 맞추어 나아가는 곳
착취나 압제(壓制)의 옛 질서는 사라지고
환희와 광영의 새 질서가 구축되는
우리들이 나아갈 곳, 무엇을 두려워하리오
우리들이 나아갈 곳, 무엇이 막을소냐
동양은 눈이 떴다
동양은 힘이 붙었다
동양은 나아가는 것이다.
지금, 경성의 겨울은 아직 얇고
북악의 바람은 그다지 아프지 않은 때이지만,
거리의 전황(戰況) 속보는
오늘의 공기를 시시각각으로 충전한다.
거리를 가는 젊은 사람들이 감격은
무언중에 하늘을 찌를 듯하다.
눈보라와 살갓을 찌르는 바람이
혹독한 몇 달이 아직 앞에 있지만
겨울은 오래 가지 않고
태평양의 봄은 멀리 있지 않다
아아, 봄이 왔다면
용화(龍華)의 복숭아꽃은 올해도 흐드러지게 필 것이다.

17년 전, 우리들의 눈물을 유혹했던
그 복숭아나무 아래에서
아시아의 신춘(新春)을 그대와 함께
잔을 들고 노래해보고 싶다.

왕군!
사랑스런 벗,
오늘 밤, 가장 생각이 많이 나는 그대,
그대의 흑요석 눈동자
그대의 거무스름한 얼굴 빛
모든 것이 그립다(戀)
모든 것이 그립다(懷)

오늘 동양의 괴물
우리들의 쓰라린 추억
상해의 공공조계가
어머니 품으로 돌아온 이날에
나는
그대를 생각한다.
비어(飛魚) 같은 청춘
사슴 같은 미남자(美男子)
우리들의 왕군!

마음속의 싱가포르(心中のシンガポール)

그대! 싱가포르가 떨어졌어
그러나 그대 마음에는 아직 떨어지지 않는 것이 없는가
동아시아에 새로운 날이 왔을 때
그대의 가슴에는 아직 옛 것이 막혀있지 않은가
미국이나 영국의 유물(遺物)이
그대 마음속에서 방황하고는 있지 않은가
자유라든가 권리라든가 이익이라든가 행복이라든가
자기라든가 개인이라든가 향락이라든가 성공이라든가
그러한 가짜가 진짜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대포로 쏘는 것도

폭탄으로 부수는 것도
 칼로 잘라버리는 것도 할 수 없다
 가장 완고한 요새(要塞)가 아직 함락되지 않은 것은 아닐까
 핑계나 불평이나 항의나 독선이나
 입만으로 외치는 소리가
 맑게 갠 이 아침의 넓고 넓은 하늘을 흐리게 하고는 있지 않은가
 미움이나 비뚤어지게 생각하는 근성, 의붓자식 근성
 시기(猜忌), 호의(狐疑)¹⁶⁶ 위선이
 광대무변(廣大無邊)¹⁶⁷의 황도(皇道)의 빛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이야말로 남김없이 부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대와 나와 마음속의 싱가포르를
 총으로도 칼로도 부술 수 없는
 형태가 없는 요새를
 불타오르고 끓어오르는 진심으로 적들을 때려잡을 것 같지는 않은가

임시대제¹⁶⁸의 날에(臨時大祭の日に)

가슴도 맑아지는 상쾌한 가을 날씨, 이 아침이여
 시드니 특별 공격대 네 용사의 귀환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마음이 부들부들 떨리는 밀물처럼 생각이 자꾸 더해지는
 국화의 계절, 사색의 계절,
 이 계절을 맞으며
 더불어 나라를 생각하고
 더불어 나라에 닥쳐오는 고난을 생각하고
 멀리 남북 만 킬로미터의 전선을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 피를 흘린 일, 목숨을 바친 일을 생각하고
 천 년을 거듭 민족의 발전을 위해
 거름이 되고 기둥이 될 수 있는
 이름 있는 용사와 이름 없는 충렬(忠烈)을 생각하고
 가슴이 아플 정도로, 눈꺼풀이 뜨거워질 정도로 생각하고
 잡념도 잊고

166) 의심하여 망설임.

167) 넓고 커서 끝이 없음.

168) 대제는 천황이 친히 지내는 황실의 제사.

편안한 삶을 잇고
물론, 나라는 존재도 잇고
내 물건, 내 집도 잇고
단 하나의 생각, 하나의 발걸음, 하나의 빛
한 명의 임금을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러한 생각이야말로
이 계절에 아주 적절한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용사여
우리들에게 커다란 길을 개척한—
영예로운 죽음으로
그대가 청춘을 나라에 바친 그날에
그대 혹은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남편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천진난만한 어린 아이 등의 아버지일수밖에
의지할 데 없는 노부(老婦)의 아들일수밖에
산욕(産褥)에 아파하는 처의 남편일수밖에
그대의 애정, 그대의 책무
그대의 젊음, 그대의 아름다움
그대의 양양(洋洋)한 생산(生産)
그대의 향기 높은 우정
그대의 찬연(燦然)한 재간(才幹)
그대의 그리운 추억, 즐거운 전도(前途)
모두 하나가 되어 목숨과 함께
영원히 반쳐 드릴 수 있기를
이 맑은 계절, 맑은 순간에
지금 한번 우리들의 혼에 올려 퍼지소서

동쪽 하늘 바야흐로 환해져 오려고 하지만
아직 해는 솟지 않고
구름과 안개는 강안(江岸)을 가리고
황금빛 세상이 열릴 때까지
그대가 개척할 험한 길을
우리들도 이어 나갈 것이다
그대의 발자취를 경모(敬慕)하여

그대의 도정(道程)을 배우며 밟아서
성스러운 날에
성스러운 희생을 나 만들 것이다
그대의 피의 바탕에
새로운 세상을 반드시 새울 것이다
내 피도 그 위에
흘러 흠을 만들 것이다

밤(夜)을 담아 가을비 줄곧 내린 밤
홀로 등(燈)을 향하는 마음은 아득히
구단(九段)¹⁶⁹⁾의 숲에 신이 진좌(鎮坐)하는 영기(英氣)를 생각한다.
무수한 영령(英靈)이여,
거기에 진좌하여 나라를 보호하고
광영과 위엄과 진심으로 이 국토를 영원히 지키는
모이고 모인 정기(正氣)의 집단
영기어 꽃이 피는 호국의 참마음
하나가 되고 일체가 되어
그 앞에 엎드리는 백만 동포를 사랑할 것이다
격려하고, 명령하고, 환기 시킨다
죽음을 통해서 광영과 영원한 삶을
움켜쥐라고 손짓하며 부른다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그 울림의 땅에 그득하고
꽃이 피면 꽃과 함께 그 향기 가슴마다 풍기는
일억은 하나의 마음, 그 앞에 엎드린다

이 아침, 맑게 갠 계절
국화는 황금빛으로 향기를 내고
눈은 아직 내리지 않지만
봄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나 겨울을 지나 갈 것이다
한 세대는 모든 희생이 되어
한 세대에 광명은 흐를 것이다
아아, 우리 모두
이 아침, 마음을 다잡고

169) 도쿄의 야스쿠니(靖國)신사가 있는 곳.

이 저녁, 참됨을 한데모아서
함께 나라를 생각하고
함께 민족의 앞날을 생각하고
함께 나라의 다가올 고난을 생각하고
전선(前線)의 추위와 더위와 피를 흐를 것을 생각하고
옛날도 지금도 천년을 통해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모든 목숨을 꼭 생각하자
이날, 지금 한번
죽음의 아름다움을 생각할 것이다
죽음의 즐거움을 생각할 것이다
이제 와서
힘 있게, 통절하게, 뼈에 사무칠 때까지
생각하고
생각하고
반드시 생각하자

승리의 태평양(勝利の太平洋)

어제는 바다에 격멸(擊滅)의
적의 함대 흔적도 없이
오늘은 떨어졌다 물의 성
백년의 준비 힘없이 사라진다

태평양, 태평양
승리의 태평양
우리들의 태평양

동아시아의 십 억
자 나아가라
일장기(日章旗)이고서
열철일환(熱鐵一丸) 되찾아라
우리들의 낙원 대동아
일어서라 태평양섬과 섬
적도의 백성들이여 사막의 아들
정의의 폭탄터지고 흩어져
팔괘(八紘)¹⁷⁰⁾에 아침은 밝아온다

송가(頌歌)

벗이여! 그대 참으로 어두운 골짜기의 밑바닥에 있을 때에
참으로 아득한 산꼭대기를 우러러보는 것을 알라
참으로 호된 대낮에 몽환(夢幻)의 그림을 돈을 새겨라
깜깜한 밤의 진실을 양팔에 파악하라

□

때로는 적합하지 못한 우리들의 꿈인 까닭에
죽음을 원하는 것조차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았다
여름 숲과 같이 정열은 엄숙하다면
강철의 숨결로 새로운 윤리를 만들어낼 것이다

□

어찌하여 행복에 싸여 눈물이 날까
한 해의 슬픔과 한 순간의 감격 어느 것이나 고귀하고
아니, 한 찰나에 진실을 맛보았기에
평생을 불 고문조차도 괴롭다고 하지 않을 나이기에

□

아마도 우리들은 만나면 기뻐서 울고 또 슬퍼서 운다
눈물과 꿈, 그것은 내 강안(江岸)을 장식하는 고독의 꽃잎
무지개는 볼 수 있는 것일 뿐 현실에서는
잡으려고 하는 강도에게는 백지(白紙)일뿐이다

□

스승은 말씀하시길, 배에는 타는 사람이 많지만
탈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은 여러 가지일 거라고
그러나 항구는 똑같이, 벗어날 방법이 없고
그저 지침(指針)을 가진 자를 신뢰하라고

□

어떤 이는 실질적인 것을 구하여 재화(財貨)를 바싹 뒤 따라 가고
어떤 이는 피에 굶주려 약탈을 꿈꾼다
그러나 그들은 언지 못하고, 별의 길을 바라보는 것을
그저 걱정이 있는 자만이 당연히 항로도(航路圖)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70) 천하.

□

길은 무수히 있지만 로마로 통하는 것은 한 가지다
바위에 부딪혀 물은 동(東)과 서(西)로 나누어지면서
끝없는 여행의 마지막 항구는 하나의 바다다
희망을 껴안으면 지표(指標)는 세기(世紀)를 넘어서 빛난다

□

오늘은 가능한 세기(世紀)의 법칙을 전하지만
내일은 파괴하고 덮고 뛰어넘을 것이다
길이와 넓이와 숫자가 되풀이되는 세계는
일렉트로닉의 폭발로 흠으로 무너질 것이다

□

스승이여,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역사의 마음과 법칙을
모든 법칙을 깨트리고 새롭게 지배하는 법칙을
우리들 어슴푸레하게 알고 믿는다면
새로운 어법, 새로운 질서, 새로운 계율을

□

사람은 선구자를 비웃고 욕되게 하고 미워할지라도
이어지는 세대는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해야 한다
밤이여, 어찌 잘 떠오를 아침 해를 억누를 수 있겠는가
쌓이는 산의 눈 어찌 봄의 명령을 거스를까

□

스승은 말씀하시길 동쪽 하늘을 우러러 보라 하시네
새벽의 수평선, 어슴푸레한 지평선을
산인지 나무인지, 과일인지 거리인지 사람의 무리인지
분별할 수 없는 기대에 마음만 찢어질 뿐인데

□

해 걸음은 재빨리 피의 창끝을 새벽으로 내던지고
그대들 보라 미친 듯이 춤추는 숲의 모양을
개선(凱旋)의 뜰에 나부끼는 깃발의 물결을
새로운 도시의 높은 궁전들의 뾰족한 탑의 지붕을

□

내 마음에 고향이 있어 오랫동안 찾아 얻을 수 없었다
찾아내면 다시 떠나지 않으리라, 슬픔에 기쁨에
쓸쓸할 때, 마음 울적할 때 내 생각은 거기에서 쉬어야 한다
내 신앙의 도시, 내 윤리의 도표(導標), 내 욕망의 명성(明星)

□

저기에 내가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조차도 가슴 가득 채워질 생각을 한다
하물며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행복을 비유할 만한 것이 없다
낙원의 문을 열면 죽음도 두렵지 않을 것이다
생의 진리를 파악하면 부러움을 잇는다

□

누가 금강석(金剛石)을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지 않으랴
빼앗을 수 없는 보물을 나는 갖고 있다
몸도 잃고 정령도 잃고 존경도 잃고 사랑마저 잃는 날에
만인의 얼굴 앞에 분명한 나의 환희, 나의 현실 그것은 명확하다

□

비록 지옥의 불길에 있어도 노래하자
비웃음, 욕되게 함, 고난과 기꺼이 부딪히자
고독의 벽에 홀로 가지만 즐거이 춤추리라
천년의 저주에 묶여도 새처럼 날며 살아가리라

□

영겁(永劫)의 허공에 수 없이 많은 별은 운명을 그리고(描)
그 궤도(軌道)는 길이 어긋나서 서로 만나는 일이 없다
선택된 두 개의 혼(魂)만이 정해질 때, 정해진 곳에서 만난다고 한다
짧다고 슬퍼하라, 슬프다고 원망하라 그 행복을

서설(序說)

자유의사(自由意思)와 숙명은 너무 오랫동안 싸웠군요
그러나 그것은 그저
세트와 로케이션의 차이일 뿐 이었습니다
관객석에서는
둘 다 거짓말이고

둘 다 진실이었습니다

권리와 의무는 파랑색과 빨강색이 서로 나란히 놓여지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스펙트럼의 오른쪽과 왼쪽의 차이일 뿐입니다

프리즘을 제거하면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입니다

백열(白熱)의 힘인 것입니다

자유와 복종은 주인과 노예만큼 신분이 다를까요

아니 그것은 그저

나팔의 처음과 끝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돌격이 시작되면

그저 하나의 외침인 것입니다

그저 하나의 목숨인 것입니다

죽음과 삶은 각각 상대를 부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부처님에게 물을 것 까지도 없습니다)

물이 얼면 얼음이 되고

얼음이 풀리면 물이 됩니다

부여의 꿈(夫餘의夢)

백제(百濟)의 도읍지 부여는

꿈이 사라졌다가 또 태어났노라

달을 맞이하던 그 교만함 지금 어디에

후소의 숲 망치 소리 드높다

서블 들 가의 풀을 밟는 사람이여

깊이 명심하라 천 삼백 년

십 오만 호(戶)의 기왓장 밀어 헤치고

신전(新殿)의 참도(參道)¹⁷¹⁾에 마음을 쓴다

시히의 물 반달에 휘고

낙화암 안고 흐른다

171) 신사나 절에 참배하기 위해 닦아 놓은 길.

당인(唐人)¹⁷²의 돌조차 갈았노라
황성(荒城)에 별은 새롭고

백제의 도읍지 부여는
꿈이 사라졌다가 또 태어났노라
달구경하던 망대(望臺) 썩어 버린 땅에
자 세우자 태양의 제단(祭壇)을.

하얀 꽃(白き花)

만조(滿潮) 그 별거숭이 대지의 가슴을 씻는 큰 강 근처
달이 강물과 강 둔덕에 열은 꿈을 흐르게 할 때
그 강 둔덕 가에 수없이 많은 하얀 꽃은 피어나고
달빛에 피어나니 입술은 눈처럼 하얗고
사람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향기마저 없는 꽃이기에
무한한 물결이 흔들리며 노니는 그 강가에
아침에 와서 자취도 없이 떨어져 버릴 꽃이여
갓난아이처럼 머리를 모은 채 앉아서 즐고 있는 꽃이여
달만이 입맞춤하는 쓸쓸한 꽃이여라

달 밝고 물소리 그치지 않는 무한한 강가에
수없이 많은 하얀 꽃은 밤을 간직하고서 피어나기 시작했노라

산호의 숲(珊瑚の森)

용궁(龍宮)의 도시는 산호의 숲
자가용 항공정(航空艇)으로
다홍색의 겨울을 산책한다

하얀 산호 파란 산호
가지가 잘 뻗은 무지개 산호
용녀(龍女)¹⁷³의 출어(出御)¹⁷⁴와 왕후의 좌석

산호의 숲에 은색의 웃음이 흩어진다
기익(機翼)¹⁷⁵은 무념무상(無念無想)

172) 중국인.

173) 용궁에 산다는 미녀.

174) 천황과 왕후 등이 행차하심.

가지에 닿아도 틈새가 생깁니다

속, 속, 하고 가자미가 지나갑니다
하늘을 가리키며 부르는 선녀의 잃어버린 비단옷
낙지의 로켓, 과학하는 마음

예, 금빛 해초에 은빛 조가비
얽은 다홍빛의 모랫길, 등자나무의 산책길
짙은 다홍빛의 한숨, 신선한 녹색의 세레나데

팽이상어는 금붕어에게 수염을 잡아당기게 한다
부채 계의 곡예로 섬계알젓이 춤을 춘다
오늘은 용왕님의 대사령(大赦令)¹⁷⁶이 나왔습니다

전복은 미역의 싹을 먹지 말라
복어는 송사리 새끼 삼켜서는 안 된다
살생금지, 천하태평, 우리 세상의 봄

산호의 도시는 갑자기 극락으로 바뀌었습니다
깊은 바다 어군(魚群)의 편대비행(編隊飛行)
용왕의 낮잠입니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산책(散策)

벗이여 오라
가을이 깊은 남산(南山)의 낙엽 밟고서
오랫동안 위축된 가슴일랑 창공에 펼치고
차분하게 오늘 하루를 다 얘기하자
길이 없는 길을 밟고 헤쳐 나아가 올라가면
쓸어 낼 수 없는 썩은 낙엽은 발에 휘감기고
그 향기 코에 스미어 참으로 그림다
나타나는 소나무의 근본(根本)에 발을 삼가고
무너진 돌계단에서 손을 끌어올리려 하자,

175) 비행기의 날개.

176) 사령은 사전(敎典)을 널리 세상에 공포하던 영(令)을 말한다. 사전은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 죄인을 용서하던 특전.

“이런 길을, 이보다 더 험한 길을
한없이 걷기를 나는 좋아하네”라고 하며
자네는 가시나무 가지를 손에 쥐고 앞에 섰다

국기 계양탑(揭揚塔) 뒤쪽으로 길은 열린다
이지러진 옛 성벽을 넘어서니
한강의 강물도 화폭에 들어오고
소나무 가지를 단락 지어서 만든 한 폭의 액자처럼
일어났다가 다시 앞드리는 동작(銅雀)¹⁷⁷⁾의 언덕과 모래땅 아름답다

붙어서 걸어가는 두 사람의 어깨가 서로 닿일 뿐이지만
멀리 관악산의 봉우리에 꿈의 틀을 만드는 자네는
살짝이나마 그 감촉을 느낄 수도 없다

배를 파는 노인은 지계에 다가가서
큼지막한 주머니칼을 꺼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큰 나무 아래에서
우리들 뜨거운 숨결은 잠시 긴장이 풀어졌다

여기에서 장충단(獎忠壇)으로는 길이 넓다
구불구불 이어지는 소나무 사이를 누비거나
바위모서리에 나란히 소리를 내고 앉으면
멀리 북악(北岳)과 인왕(仁旺)과 낙산(駱山)이 산기슭에
커다란 집, 작은 집, 자네 이름을 부르며 가리킨다
돌 마루에 길게 모로 기면서
하늘을 부르는 자네의 모습은
중세기(中世紀)의 초상화인지 가슴 떠들썩하게 눈으로 옮겨오고
돌이 되어서 잃어버려 돌아오지 않는가 하고 의심하게 한다

이름도 없는 풀에 눈물방울인가 하고 생각하게 하는 열매를
보랏빛 진주(眞珠)라고 그대는 이름 붙이기도 하고
꽃노래는 골짜기 바닥으로 흘러가면
우리들 마음은 쓸쓸하고 또한 즐거웠다

177) 지금의 서울 동작구 쪽.

벗이여 오라
하늘은 흐리고 해는 비치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아 마음 차분해지니 기쁘다
이 날, 이 길, 이 마음
우리들 조용히 걸으며 또 서로 얘기하자구나
전쟁을, 평화를,
생활을, 예술을,

가을날의 남산 가슴 깊이
낙엽 밟으며, 그 향기를 빨아들이며
우리들 말하자
슬픔을!
또 기쁨을!

〈출전 : 松村紘一, 手に手を, 博文書館, 1943년 7월 30일〉

3) 성전찬가(聖戰讚歌)¹⁷⁸⁾

입대도록 글 있는 뒤로
이같이 어마한 생각이 씩었던가보뇨
팔굉(八紘)을 집으로 하고
천하의 물과 바다와 섬들을
만민이 즐거이 사는 한집으로 하고
만방으로 하여금 자리를 얻게 하고
모든 겨레를 한빛으로 광피(光被)하기 위해서
검(劍)을 잡고 피 뿌리고 목숨 바치려는
이러한 생각의 배태(胚胎)가
입대도록 씩음이 있었느뇨

입대도록 말 있는 뒤로
이같이 엄청난 말씀이 전함이 있었더뇨
역사의 첫 장보다도 더 오랜
멀고 멀은 할아버지들이 옛말로 외어 전하던

178) 『매일신보』 같은 날, 같은 면에는 주요한의 시 「성전찬가」와 김은호의 그림 「설봉(雪峰)에 영긴 일억일심(一億一心)」이 서로 어울려 실리었다. 그림 속의 산은 일본의 후지산(富士山)이다.

말도 나기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늘의 거룩한 싸움을 미리 말함이 있더뇨
한 민족에게 임한 엄청난 고난과 희생이
모든 나라의 매인 자를 풀어주며
모든 나라의 눌린 자를 일으키며
모든 나라의 앓긴 것을 찾아주는
새로운 군호 새로운 질서를 가져온다 하는
이러한 구상의 장대함을
입대도록 말함이 있었더뇨

한때에 '징기스칸'과 그 후예들은
'다늬'강을 핏물 들인 일 있었느니라
그러나 정복의 만족 이상으로
드높은 이상 있었음을 들은 일 있는가
한때에 '모하멧'과 그 제자들은
'코란'과 검을 두 손에 잡았었느니라
그러나 그들의 천국조차 사후(死後)이었을 뿐
혹은 학문으로써 혹은 교의(教義)로써
인류는 한집안이니라고
부르짖고 노래하고 기도 올린 일 있었느니라
그러나 국권과 권력을 한뿔에 기울여서
영원히 젊은 대지 위에 현실 위에
블로 단련된 진금(眞金)의 평화를 세우시려는
거룩한 조서(詔書)를 받들어 싸움에 나간다 함은
오직 이날의 영요(榮耀)일 뿐이 아니냐

아아 위대하다 이 날이여
어마어마하다 이 부름이여
복되어라 이 생각이여
태양의 깃발 앞서는 곳에
따르나니 10억의 대동아 겨레와 겨레
태평양의 새벽은 주홍빛으로
'아랍'의 저녁놀은 황금색으로
북육(北陸), 남양(南洋)!
바다도 푸르디 푸르러라

물도 푸르디 푸르러라
 화약 냄새에 미래를 맡으며
 포연 위에 희망을 반영하여라
 천년의 고토(故土)를 부삽질하여
 영원히 새로운 오곡을 익게 하리
 은익(銀翼)은 섬들을 누비어서 북새 나들 듯하리
 아세아의 손자들이 아세아의 뜰 위에
 원무로 춤추고 노래하고 즐기리
 그 날에 위대한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니
 그 날에 오묘한 글이 마침내 나타나리니

입대도록 더 큰 생각이 없었으며
 입대도록 더 센 명령이 없었나니
 별을 향해서 환호를 보내어라
 태양을 마주 자랑을 보(報)하여라
 고난과 승리의 교향(交響) 한가운데서
 광고(曠古)의 대건축 기둥 밑 자갈 되어서
 우리들 웃으면서 생명을 바치리라

〈출전 : 松村紘一, 聖戰讚歌 『매일신보』, 1942년 12월 8일〉

4) 아침햇발 - 해군지원병제 실시 발표된 날에

어머니의 등에 업혀 해군모 쓰고 나는 해군이라고 만세 부르던
 희미한 어린 시절 바다의 꿈이 이처럼 실현될 줄 생각했으랴

작년 봄 이맘적에 일장기(日章旗) 들고 거룩한 부르심에 눈물지우던
 감격의 그날보다 더욱 기쁜 날 바다의 아들들의 오늘이러라

산에 가면 무덤에 꽃도 피건만 바다에 흠는 용사 표적도 없어
 6대양 험한 물결 나의 집이요 표적 없는 무덤이 내 고향이라

황국의 귀한 군함 맡기운 몸은 오로지 진충보국(盡忠報國) 끊는 텅어리
 기우는 □□ 위에 태연히 가는 제독(提督)의 맑은 마음 광명한 달빛

살아옴을 바라리 특별공격대 시방 떠납니다 다만 한마디

비록 몸은 고기밥 남음 없어도 魂이 길이 살아서 나라 지키리

바다를 거느리면 세계 거느려 나오너라 동무야 아침햇발의
군함기 펄럭이는 갑판 위로 씩씩한 그리움을 높이 날리자

〈출전 : 松村紘一, 아침햇발, 『매일신보』, 1943년 5월 13일〉

5) 12월 8일의 다짐

보라! 성전 벌써 3년, 또다시 겨울은
복수의 날, 해방의 아침, 잊지 못할 8일을 마지하며
너는 아느냐, 아세아의 지킴은 강철에 있지 않고
아세아의 지킴은 1억의 피, 젊은이의 열혈(熱血)
피는 철보다 강할 것이며, 아세아의 하나 된 피
무엇인가 잘 뚫을 수 있는 불괴(不壞)의 매듭을
그렇다면 이날에 우리는 붓을 버리고 칼을 잡는다
내일은 또 너와 내가 높은 하늘에서 서로 만나며
생각은 치닫는다, 마유강의 선혈(鮮血)로
혈관은 뛰노는 산호섬의 총알의 비 속
용서할 친구여 눈물을, 우리의 양 볼에
명청하게 한 동안 흐름에 맡겨라
보지 않았느냐 당신, 아세아야 말로, 실지로
강철이 아니며, 탄약의 산더미가 아니다
정말, 그것은 오로지 10억의 성난 눈물
젊은이의 열혈에 닮은 뜨거운 눈물이 되는 것을

〈출전 : 松村紘一, 十二月八日の誓ひ, 『京城日報』, 1943년 12월 8일〉

6) 파갑폭뢰(破甲爆雷)¹⁷⁹⁾ - 박촌(朴村) 상등병에게 드림

파갑폭뢰
그대의 무기다운 무기였구나
그대 쇠팔뚝에 아낌직한 무기
그대 풀무가슴에 품김직한 무기

179) '파갑폭뢰'란 강철판 등으로 견고하게 만든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만든 수중폭탄을 말한다.

이름도 기운찬

파갑폭뢰

◇

그대가 지니고 적진을 흘길 제
'이라와디' 강¹⁸⁰⁾은 떨어으리
곤륜산¹⁸¹⁾은 그 떨림을 깜짝하고
'벵골만'¹⁸²⁾이 그 숨참을 삼켰으리

◇

파갑폭뢰

거기 그대 피가 통했음같이
그대 큰 호흡엔 1억의 피가 통하였나니
'비르마'¹⁸³⁾의 바위가 몸부림칠 때
조선의 산맥들도 가슴 두근거렸나니
아아, 산 넘고 물 건너 몇 만리
거룩한 싸움의 가장 앞 줄에서
그대는 죽어 동아를 지켰구나
그대는 길이 살아 조상의 땅을 빛내었구나

◇

오늘 저녁 인왕산 마루에
한층 더 밝은 저 저녁별은
그대의 고향 찾을일시 분명하다
서천(西天)의 별, 비르마의 별
우리들의 광명의 별
비추어라, 빛나거라, 불붙거라
이 땅의 사나운 젊은이들 가슴에
하나하나
그들의 파갑폭뢰가
터지도록, 불을 배알도록

〈출전 : 松村紘一, 破甲爆雷, 『매일신보』, 1945년 1월 30일〉

180) Irrawaddy. 버마에 있는 강.

181) 崑崙山. 쿤룬산. 티베트 북부에서 중앙아시아 내륙까지 이르는 산맥.

182) Bengal. 인도양 북동부의 큰 만.

183) 버마(Burma). 지금의 미얀마(Myanmar).

II. 소설

1. 김문집

1) 검게 물든 혈서(1939)

저는 성일원(成一元)이라고 하는 미혼의 조선청년입니다. 현재 어머니와 함께 이곳 선교사집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주로 부엌일을 맡고 저는 지금은 병상에 있습니다만, 최근까지만 해도 목사님의 한쪽 팔로서 교회 일과 전도사업을 돕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모두 뒤떨어지지 않는 기독교신자입니다만, 미국에 국적을 두고 있는 여기 노(老) 목사가 우리 모자를 사랑하며 아껴주시는 이상으로 어머니와 제가 목사님을 신뢰하고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려 두겠습니다.

그런데 죄송스럽게도 저는 아직 당신의 존함을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관급(官級)이나 얼굴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제××연대에 한 사람의 연대장이 있다는 것, 그 연대장이신 당신께서 폐하의 신민이라는 것, 이것뿐입니다.

연대장님! 놀라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사형수의 외아들입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장쩌린(張作霖) 시절, 간도 일대를 피와 권총으로 노략질한 악명 높은 공산당원이었습니다.

벌써 12년이 됩니다만, 투기에 열중하고 있는 듯이 보이던 아버지가 갑자기 집을 팔아치우고는 뭐라고 그럴 듯한 말을 남기고 훌쩍 어딘가로 모습을 감추어 버렸을 때, 저는 아직 보통학교에 다니는 철없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무척 사랑해주던 외가 쪽 숙부님—4, 5년 전 돌아가실 때까지 재판소 서기를 하고 계셨습니다만—아이가 없는 이 숙부님께 어머니까지 신세를 지게 되었고, 그 다음해에는 고등보통학교까지 보내주실 정도였으니, 당시 일을 생각해보면, 어쩔 줄 몰라 그렇게 소란을 피운 어머니가 느꼈던 절망과 원한의 십분의 일, 아니 백분의 일도 느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19××년 ×월 ×일, 「기사(記事) 해금(解禁)」이라는 네 글자 아래에, 말하기조차 두렵고 꺼려지는 죄과(罪科)를 나타낸 5단짜리 제목이 신문의 3면 톱에 게재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처진 짐승 같은 모습으로 변한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다거나 기겁을 하고 놀란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가위에 눌러 눈을 크게 뜬 채 갈기갈기 찢기고 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체념하고 있던 어머니는 오랫동안 믿어온 종교의 힘 탓인지, 의외로 이번에는 허둥거리지 않고, 오히려 자식이 더 걱정이라는 듯, 식은땀에 흠뻑 젖어 밤낮없이 앓고 있는 제 곁에서, 끈기 있게 제가 낫기를 빌며 의사와 약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가 일종의 열병에 걸렸던 것이겠지요.

사랑의 열병은 마침내 고통의 열병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저는 감사와 정기(精氣)가 흘러넘치는 눈동자로 승리에 미소 짓는 것 같은 따뜻한 어머니의 잠든 얼굴을 쳐다볼 수 있는 원래의 자신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제 머리는 이전보다도 맑아진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떨리지만 침착해진 어떤 날의 일입니다. 두 사람뿐인 방에서 저는 어머니에게 과감하게 말 씀드렸습니다.

“어머니! 국가의 법은 결국 아버지에게 죽음을 내릴 것입니다. 그 정도로 국가는 진실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썩은 한 개의 손가락을 자르는 것은 썩기 전의 그 손가락을 온몸으로 사랑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나의 소망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만이라도 좋으니 아버지가 국가의 이런 무한한 사랑을 깨닫는 것뿐입니다. 오로지 이러한 희망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형 집행이 하루라도 연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이상의 바람은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깊은 효행인 것입니다.

언제 어떠한 경우라도 충효가 일치하는 것은 우리 일본국민만이 할 수 있는 절대미(絕對美)인 것입니다. 일본국민에게는 죽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불멸의 생명 실재(實在)인 국체로의 용해작용이 있을 뿐입니다. 고맙게도 국체로부터 신성한 생명을 받은 아버지는 만분의 일이라도 보은은 고사하고 그 생명을 완전히 썩혀서 국체에 돌려준 꼴이 아니었습니까. 아버지의 생명의 주체인 국가는 몸으로써 그 자식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프고 쓰라린 생각을 하면서까지 자신의 몸에서 그 자식, 즉 아버지를 잘라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이중의 죄입니다. 다른 어떠한 국민에게도 허락되어 있지 않은 지상(至上) 생명을 스스로 썩힌 것이 그 하나이며, 그 생명의 주관자인 국체에 이러한 아프고 쓰라린 생각을 하게 하면서까지 그것을 처분시키는 폐를 끼치는 것이 그 둘입니다.

“어머니! 도대체 이러한 아버지의 죄는 누가 속죄할 것입니까?……”

숨이 막힐 듯 달려드는 저에게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옆드려 울었습니다. 저는 호흡이 더욱 뜨거워지면서도 두 손으로 조용히 어머니를 흔들며 일으키고 진정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요 어머니! 그래도 아버지는 구원받을 길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국체의 산물인 국민이 국체의 중추원인(中樞原因)인 황실을 받들고 축복을 올리는 것은 국민 자신의 권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산물인 자식이 그 아버지의 죽음의 이유인 죄과에 대하여 기꺼이 책임을 짊어지는 것은 성씨를 물려주는 일본의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허용하는 불가해한 권리입니다. 국내의 모든 표현은 그 근원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책임을 지는 방법은 천차만별이고 다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만, 결과는 하나가 있을 뿐 둘은 있을 수 없습니다. 즉 아버지의 생명분체(分體)인 저를 아버지의 생명주체인 국체로 되살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만방무류(萬邦無類)의 일본국체의 정화(精華)이며, 충효귀일(忠孝歸一)의 근본원리입니다.

물론 제가 국체로 산다고 하여 아버지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존재는 국체와 함께 면면히 이어져야 할 하나의 생명계열에 적어도 좀 더 선한 하나의 생명을 국가에 바치는 자기희생이 될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평범한 한 사람의 반도인으로 생을 마쳤다면, 저도 어찌면 하찮은 한 사람의 조선의 자식으로 일생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죄는 무기력한 제가 이러한 결심을 세우도록 하였습니다—일사보국(一死報國)으로 아버지를 되살린다는…….”

저는 어머니에게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다행히 1882년 군인에게 하사하신 칙유(勅諭)를 교재로 되풀이하여 일본정신을 설명해드린 평소의 예비지식이 토대가 되어, 어머니는 뜻밖에도 쉽게 제가 뜻하는 바를 이해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연대장님! 별도로 보내드린 졸업증서 뒷면의 혈서가 왜 그렇게 거무스름해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머니와 울면서 이야기로 날을 새운 그날로부터 약 보름이 지나, 고맙게도 저는 고등보통학교의 졸업장을 받았습시다만, 공교롭게도 같은 날 저는 아버지의 유해(遺骸)를 인수하기 위하여 ××형무소에 가야만 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어처구니없는 이야기가!’라고 하시겠지만……예, 바로 저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 종일 먹지 않고 울지 않고 말하지 않으며, 완전히 화석(化石)이 되어서 지낸 것은 사실이나, 아버지를 매장한 그 손으로—오직 한 마디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돌을 주운 것도 사실입니다. 꿍어오르면서 또한 얼어붙은 제 국민정신.

돌을 움켜쥐면서, 그리고 그 이후의 일은 아직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손가락 끝의 심한 통증 때문에 죽음 같은 혼수상태에서 눈을 뜬 저는, 제가 지금 산속에 홀로 누워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란 것은 제 앞에 “일사(一死)보국”이라는 네 글자와 반쯤 써놓은 “以”자가 불꽃처럼 붉게 쓰인 졸업증서의 뒷면이 시원한 아침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대장님! 저 거무스름해진 혈서는 실로 6년 전, 묘지 가까이의 숲속에서 쓰러진 제 혼(魂)의 산물인 것입니다! 살아남는 죄 없는 자식이 그 애비가 젊어지고 가버린 죄에 대해 선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제 와서 그것을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당신께 보내는 것이겠습니까. 제 슬픔은 이 대답 속에 있습니다.

—혈서에 맹세한 대로 비장하고 웅대한 목적을 세운 저는 고향에 어머니를 남겨두고 멀리 도쿄로 고학(苦學)을 떠났습니다. 오랫동안의 지나친 공부와 노동 그리고 영양불량은 결국 제 폐에 결핵균을 심어 놓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뒤따라 제가 종교에 사로잡힌 것은 실로 이 무서운 절망기간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그렇겠지만, 기독교도 저에게 충효의 선미성(善美性)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교지(教旨)가 저에게 가르쳐 준 최후의 철리는 “우주의 의지는 생(生)이며, 그 성(性)은 사랑, 이름은 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그렇게 해석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신은 조화롭게 살고 따라서 생은 조화라는 인생관도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생의 조화를 구하며 도쿄를 떠나 어머니가 고용된 지금의 이 노 목사 집에 신세지게 된 저는, 신의 사랑에 울면서 재생의 날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아직 초기였던 탓도 있겠지만, 우주의 의지는 차차 제 폐를 북돋았습니다. 저는 편안하게 인생의 조화를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란 대로 이루어져 그로부터 1년 뒤에는 저는 목사님—오늘날까지 아직 모국 땅을 밟은 적이 없다고 하는 백발의 이 새로 온 독신 성자에게, 하루에 1, 2시간씩 국어나 조선어를 가르치는데 그다지 무리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몸조리를 하며 1년 반 정도 계속 가르치자 완전히 기억력을 상실했던 말 그대로 늙은이도 어느 정도 국어나 조선어를 깨우치게 되었고, 제 몸도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저는 우선 어머니와 저를 살려 준 지상(地上)의 이 큰 은인에게 보답하는 것이 일본신민의 명예이며 인생의 조화라고 믿고, 될 수 있는 대로 오랫동안 목사님의 한 팔이 되어 그 사업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결심을 실천에 옮겨서 3주간,—아아 7월 7일의 북지(北支)사변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황국일본

의 세계 재편성은 마침내 시작된 것입니다. 당연히 반도의 애국은 온 세상에 넘쳐흘렀습니다. 끓어오르는 2천 3백만의 피! 바로 그때 황송하옵게도 폐하께서는 우리 동포들에게 지원병령(志願兵令)을 내려 주셨던 것입니다.

조국일본에의 귀환을 통해 조선의 무한한 영광과 끝없는 미래발전을 약속한 1910년 8월 명치천황의 대조(大詔)는 마침내 피어야 할 꽃을 반도에 피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오, 성스럽고 진실하며 자상하신¹⁾ 우리들의 대군이시여!라고 부르짖으며 혼자서 울다 눈이 부은 저. 그리고 이 꽃그늘에서 세상에 돌도 없는 불쌍한 아버지를 세상에 돌도 없이 화려하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제 기쁨은 신이 저에게만 허락하고 신만이 형용할 수 있는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우주의 신은 저에게 조화를 요청합니다. 일본인인 저는 일본인일 때에만 조화로울 수 있습니다. 일본인이란 바로 역사적으로 서양에는 물론이고 5천 년의 지나 대륙에도 성립할 수가 없었던, 충효일본(忠孝一本)의 생명관에 철저히 수 있는 일본국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국체의 절대 신성 앞에 머리를 숙여서 아버지의 죽음을 감사히 받들었던 저는, 일사보국으로써 아버지를 죽음에서 구해낼 기회를 허락해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접수 날짜를 손꼽아 세며, 맨 먼저 저는 경찰 창구에 뛰어 들어갔으나, 오호! 그것이 어떻게 된 일까요?

연대장님!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천황폐하의 위광 아래 군인이 되고, 꽃처럼 산화하여 국체라는 열매를 맺고 영원한 저 세상에서 호국영령으로 모셔져야 할 저의 목숨은, 아아, 아버지만 알고 그 자식은 모르는 천박한 한 사람의 공무원에 의하여 보기 좋게 나가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낙담·실망하여 결국 제 폐는 또다시 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초조히 병상에 누워 정확하게 3개월, 제 몸은 제 자신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끝내 참지 못하고, 38도의 열을 내며 병상에서 단숨에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연대장님! 당신께서는 저를 이대로 개죽음이라도 시킬 작정이십니까?

늘 몸에 지니며 화려하게 산화하는 순간까지 남에게는 보이지 않으려고 한 혈서는 이제 그 본래의 사명을 위해 알지도 못하는 당신께 보내지는 것입니다.

피와 눈물이 있는 것이 일본인이라면, 일본인인 연대장님! 일사보국으로써 아버지를 구하려고 하는 거무스름해진 제 혈서의 나이를 헤아리시기를!

(끝)

〈출전 : 金文輯, 黒ずんだ血書, 『總動員』 제1권 제5호, 1939년 10월 7일, 44~49쪽〉

1) 역주 : せい(聖)なる せい(誠)なる せい(精)なる를 반복하고 있는데, 일본어로 聖, 誠, 精은 모두 세이(せい)로 읽는다.

2. 김성민

1) 『녹기연맹』(1940)

작가의 말

지나사변(支那事變)을 계기로 근 이삼 년 동안 반도인(半島人) 사이에 황국신민(皇國臣民)으로서의 자각이 강화되었습니다. 실로 그것은 노도와 같은 기세로 조선전체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지원병제도, 창씨개명 장려, 그 외 세계 역사상 일찍이 볼 수 없었던 기획이 용이하게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트기 전의 서광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한 1936, 1937년 무렵의 환경을 이 소설에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국책문학이 논의되고 있는 때에, 그러한 의도하에 쓰인 이 소설이 내지(內地)와 반도 사람들의 정신생활에 다소나마 영향을 끼쳐 국가를 위해 공헌(貢獻)할 수 있다면, 기대 이상의 기쁨일 것입니다.

‘녹기연맹(綠旗聯盟)’은 현재 조선에서의 내선일체화 운동의 표어입니다. 지금 경성의 ‘녹기연맹’ 본부에서는 반도인의 황민화운동에 진력을 다하고 있으며, 작가도 거기에 공감한 바가 많기에 동일한 사상하에 쓰인 제 소설에도 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총독정치는 조선의 혁주(赫宙)²⁾에게 초록빛 젊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녹기’가 상징하는 바입니다. 즉 일본문화와 일본정신이 반도의 대지에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이 나무들의 초록빛을 따서 녹기연맹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생각합니다.

1940년 초여름
도쿄·본향(本郷)의 객사(客舍)에서
김 성 민

현해탄을 건너다

1

지난 주 일요일에는 비가 내렸고 두주 만에 외출을 했다. 도쿄나 그 외 근교에 집이 있는 다른 후보생들과 달리 휴일을 그렇게 고대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일요일 아침이 돌아오면 역시 어딘가로 가서 하루를 유유자적하게 지내고 싶은 기분이 솟구쳐 오른다.

오늘은 오랜만에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는 곳을 방문하자고 명철(明哲)은 계획하고 있었다. 며칠 전에 그들이 세다가야(世田ヶ谷)구 다이타(代田) 쪽으로 집을 빌려서 이사했다는 편지를 받았는데, 이번 일요일에는 꼭 새 거처도 구경할 겸해서 놀러오라는 청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꼭 방문하겠다

2) 장혁주(張赫宙) : 1905~1998, 본명은 장은중(張恩重), 창씨명은 노구치 미노루(野口稔). 1932년 ‘아귀도(餓鬼道)’가 『개조(改造)』에 당선된 후 일본문단에서 작품 활동을 함. 해방 후 일본에서 활동하다 귀화하였음.

는 답장을 보내 놓았다.

남동생 명수(明洙)와 여동생 명희(明姬)는 제작년에 음악공부를 위해 상경(上京)³⁾했지만, 명철은 평소 그들을 자주 찾지 않았다. 명수와 성격 차이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공통화제가 없었다. 그들에게서 별 흥미도 일지 않는 음악 얘기를 두 시간이나 참아가며 듣고 있다가 돌아오기 일쑤였다.

새로운 거처는 로쿠쥬(六疊)⁴⁾ 두 칸에 온조한(四疊半) 하나, 니쥬(二疊)의 욕실이 딸린 집으로, 집세는 이십팔 원입니다. 주위의 풍광이 아름답고 게다가 공기도 맑아서 오랫동안 속진(俗塵)에 파묻혀 있던 명수 오빠의 테너(tenor) 음역도 점점 본격적인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듯합니다. 아 파트에 거주하던 때와는 달리 이웃을 신경 쓸 필요 없이 연습할 수 있으니, 앞으로 저의 피아노 실력도 빨리 향상되겠지요. 그럼, 다음주 휴일에는 부디 만사를 제쳐놓고 놀러와 주세요. 어설픈 요리 실력이지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위치의 약도를 첨부합니다.

아키코(明子)

여동생의 편지를 꺼내 탁자 위에 펼쳐 놓고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일본어로 글을 쓸 때 명희를 아키코(明子)로 자처하는 버릇에 또 웃음이 나왔다.

약도를 보고 지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뒤에서 야스시게(保重)가 다가와 들여다보았다.

“세다가야(世田ヶ谷)구 다이타(代田)라면 시모기타자와(下北澤)에서 내려야 하나?”

“응.”

“지금 가려고?”

“그럴까해.”

“그럼 준비를 해.”

명철은 발돋움을 해서 열려진 창으로 바깥을 내다봤다.

“덥겠는데.”

널찍한 벌판 한 쪽에 한여름 태양빛이 쏟아지고 있다. 우거진 신록의 나뭇잎이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다. 기름매미⁵⁾의 울음소리로 아침부터 숨이 막혔다. 야스시게도 밖을 내다보며 신경이 쓰인 듯 칼라 부근을 손으로 매만지면서 명철 쪽으로 등을 보이며,

“어때?”하고 물었다.

상의 위로 허대를 맨 옷의 주름이 보기 좋게 잡혀있는지 어떤지를 묻는 것이다. 매번 외출할 때마다 반복되는 일이어서 명철은 웃으며,

“괜찮아.”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잡담을 하며 시간을 때우고 있던 같은 방 동료 중 하나가 힐난조로,

“고마쓰바라(小松原)!”하고 불렀다.

3) 도쿄(東京)로 온 것을 말함.

4) 다다미 6장. 다다미 두 장은 한 평 정도이다.

5) 유지(油脂)매미 : 매릿과의 곤충. 몸의 길이는 3.1cm 정도이며 검은색이다.

“왜.”

“군인 옷차림이 뭐 그래.”

“무사(武士) 복장이다, 왜.”

“네가 헤이케(平家)의 자손이냐.”

“아니, 보잘 것 없는 고마쓰바라(小松原) 집안이지.”

야스시게가 검손을 떨자 지습실 안은 웃음소리로 떠들썩했다. 올해 12월 학교를 떠나 제 각각 원대(原隊)에 부임하는 사관후보생들이다. 모두들 건강이 넘쳐흐르는 얼굴을 하고 있다. 다만 명철은 그 사이에서 그다지 과장된 표정을 짓지 않았다. 웃는 것도 떠드는 것도 다른 사람들 반으로 삼갔다. 모두 그것을 명철의 민족성 탓으로 돌렸지만 야스시게 한 사람만은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명철은 구대(區隊)에서도 나이가 많은 26세였다.

야스시게는 실업가 집안의 삼남으로 에도(江戸) 토박이⁶⁾이다. 그의 부친은 그를 대학에 보내 장래에 형제들을 돕게 하려고 했지만, 그는 중학을 마치고 느닷없이 군인이 되겠다고 나왔다. 고마쓰바라(小松原) 집안은 무인 계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친은 아들의 의사에 조금 놀라기도 했지만, 생각해 보면 자기 집안에서 한 사람쯤 군인을 배출하는 것은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일이었다. 그래서 부친은 허락했던 것이다.

야스시게는 아무리 어깨를 펴고 힘을 주어도 어딘지 모르게 철부지 같은 데가 있었다. 박박 민 머리로 촌스럽지 않았고, 힘이 잔뜩 들어간 군인 어투도 장난스러웠으며, 힘을 주어 속어를 내뱉을 때도 악센트가 너무 부드러웠다. 그것은 야스시게뿐 아니라 명철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중학교에서 예과(豫科)로 편입한 사람은 모두 유년학교 때부터의 후보생들에 비해 웬지 모르게 군인다운 풍모가 부족했다.

야스시게는 같은 방 사람들에게, 몸치장을 할 줄 모르는 무사는 노부시(野武士)⁷⁾ 아니면 산적 무리 배다, 고급동서를 통해 명장과 영웅호걸은 모두 풍류인이었다, 너희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는 반드시 아내를 얻을 기회를 놓칠 거라고 몰아대고 나서는, 명철 곁으로 되돌아왔다.

모두들 아내를 얻지 못할까 두려워 몸치장을 하는 한심한 놈을 상대하지 않겠다는 등, 자기들끼리 멋대로 지껄여댔다.

야스시게는 명철의 어깨너머로 탁자위에 있던 편지를 집어 들며,

“명희 씨는 글씨체가 참 좋아.”했다.

“그러게, 나한테 보내는 편지에도 깨끗하게 토박토박 써서 보낸다니까.”

“읽어봐도 돼?”

“응.”

야스시게는 짐짓 점잔을 빼며 가슴을 뒤로 젖히고 천천히 읽고 나서는 고개를 가우뚱했다. 명철은 그 얼굴을 잠시 응시하다가,

6) 에도는 도쿄의 옛 명칭이다. 즉 도쿄에서 태어나고 자라 3대 이상 도쿄에서 거주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7) 가마쿠라, 무로마치시대에 산야에 숨어 살면서 패잔병들의 무기를 빼앗아 무장한 무사, 토민의 집단.

“자네, 그때 이후로 여동생 사는 데 안 가봤지?”

“응, 자네하고 내 동생 야스코(保子) 셋이서 교바시(京橋)에 있는 아파트에 갔을 때 이후로는.”

“그랬군. 그게 몇 월이었지?”

“모두 야스쿠니(靖國)신사에 벚꽃구경 갔을 때니까, 사월 초였던 것 같은데.”

“그런가.”

명철은 야스시게에게 “여동생한테 들렀다 갈래.”하고 권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그러면 야스시게도 마찬가지로 “우리 집에도 가자.”고 할 것이 분명하다. 야스시게의 집에 가는 것은 좋지만, 요즈음 웬지 야스코 때문에 야스시게의 권유에 순순히 응할 기분이 아니었다.

야스시게는 편지를 돌려주면서,

“문장도 상당히 훌륭하다.”

“여학교에서 내지인하고 같이 배우고 있어서겠지.”

“그런가.”

야스시게는 웃으며 “우리 야스코는 통달한 척 하지만 그냥 속물일 뿐이야.”

명철은 뭔가 다른 것을 생각하는 모습이었다.

“정말 그 녀석은 속물이라니까.”

명철은 약간 떨떠름한 얼굴로 일어나서 상의를 입기 시작했다.

“야스코 씨는 건강하지?”

“야스코가 자네한테 편지를 보냈다고 하던데.”

“응”

명철은 혁대를 손에 쥔 채 창가로 걸어갔다.

“받지 못했어?”

“받았어.”

“뭘 병에라도 걸렸다고 써있던가?”

“아니, 건강하다던데.”

“그래?”

야스시게는 웃으면서 탁자 위에 있는 명철의 편지를 다시 집어 들었다. 명철은 창가로 다가가 눈을 들어 허공의 한 점을 응시했다. 뭔가 생각하기 시작하면 나오는 그의 버릇이었다. 야스시게와는 예과 때부터의 동기로, 자습실도 침실도 같이 쓰고 있다. 예과를 마치고 부대에서 견습근무를 할 때, 명철은 경성(京城)으로 야스시게는 마포(麻布)로 서로 떨어져 일년 반을 지냈을 뿐, 그 후로는 피를 나눈 형제처럼 지내왔다. 야스코와도 여러 번 얘기할 기회가 있었다. 야스시게를 만나기 위해 돌이켜 찾집 박스(box)⁸⁾에서 시간을 보낸 적도 있었다. 무엇보다 그러한 때에는 두 사람 사이에 답답한 공기가 떠돌아 매우 난처했었다. 명철은 농담을 할 줄 모르는 성격이었다. 게다가 야스코 앞에서는 진지하게 얘기할 만한 용기도 없었다. 군대동료에 관한 화제는 무의미했다. 늘 말이 없는 명철은 야스코

8) 극장, 음식점 등의 칸막이를 한 좌석.

에게 이중의 부담을 안겨주고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두 사람은 서로 교제하기 시작했다. 명철은 야스코 때문에 삶의 목표를 하나 갖게 되었다. 늘 평범한 내용이었지만 어떤 확신과 결의를 안겨 주는 야스코의 편지로 인해 오늘에 이른 것은 사실이었다.

잠시 근무생(勤務生)이 일동의 복장검사를 실시한 후 외출이 허락되었다.

“어때, 먼저 도쿄에 한번 나가보는 게?”

교문을 나서자 푸른 들판 사이에 난 길을 걸어 역을 향하면서 야스시게가 유혹했다.

“도쿄라.”

명철은 야스시게 쪽을 보았지만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오랜만에 우리 집에 가자.”

명철은 묵묵히 있다가,

“하지만 여동생한테 꼭 가겠다고 편지를 보내서 말아야.”

“돌아오는 길에 들르면 되잖아. 괜찮다면 나도 같이 가고.”

“음.”

어느 쪽인지 알 수 없는 애매한 대답을 했지만 역에 도착해서는 결국 시모기타자와(下北澤)까지 표를 끊었다. 오다큐(小田急)노선 전차 안은 자마(座間)에서 도쿄로 가는 후보생들로 시끌벅적했다. 명철과 야스시게는 좌석이 없어서 차창 가까운 곳에 서로 마주보고 섰다. 창 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명철은 한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야스시게는 도쿄에 가자고 권유하는 것을 포기했다. 이윽고 전차가 노부토(登戸)역을 지났을 때, 명철이 얼굴을 들고 느닷없이,

“나가 볼까.”하고 말했다.

야스시게는 웃으며,

“긴자(銀座)에 가자. 같이 밥이라도 먹고 영화를 보자고.”

“영화라—”

“어딘가에서 나폴레옹을 상영하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나폴레옹은 명철이 좋아하는 영웅이었다.

“나폴레옹이라면 좋지.”

명철은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전차가 시모기타자와(下北澤)에 도착했을 때도, 다시 발차할 때까지 그 자세 그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야스코는 자기 방에서 『전원교향악』을 읽고 있었다. 가정부 하지메(初)가 장지문을 열었다.

“야스시게 씨가 오셨습니다.”

“어머, 그래?”

“그리고 친구 분도 함께 와계십니다.”

“친구 분?”

야스코는 하지메의 얼굴을 바라보며,

“남(南) 상이던가요?”

“예.”

“응접실?”

“예.”

“곧 내려간다고 해요.”

하지메 방을 나갔다. 야스코는 언제나 명철의 이름을 입에 올리고 싶어 하지 않는 하지메의 태도에 약간 웃음이 났다. 책을 덮고 일어나 일주일에 한번 정도 기분 내킬 때 쳐보는 거의 장식용이나 진배없는 피아노에 앞으로 다가가 좋아하는 F(파)음을 건반으로 부드럽게 두세 번 올려 보았다. 그리고 화장대 쪽으로 다가가 삼면거울을 펼쳤다. 시리도록 맑은 거울 속에 화장기 없는 맨 얼굴이 여유 있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비춰지고 있다. 야스코는 분첩을 집어 분가루를 묻히다가 생각을 고쳐 오렌지색의 립스틱만 입술에 발랐다.

나이에 비해 수수해보였지만 체격이 큰 야스코에게는 오히려 이 편이 잘 어울렸다. 실크 재질의 평상복 차림으로 그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현관 옆 응접실로 향했다.

“어서오세요.”

야스코는 명철에게 인사를 하고, “왔어요.”하며 야스시게를 바라보고 웃었다.

야스시게는 상의 단추를 풀고 선풍기 바람을 쐬고 있다가 돌아보며, “그래”하고 약간 쯤체하며 의젓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이에요.”

야스코는 명철을 마주보고 의자에 앉으면서 다시 인사를 했다. 명철은 윗몸을 굽히며 풀어 놓은 상의의 단추를 채웠다.

“더우시지요.”

야스코는 웃으며 “겉옷을 벗으시는 게—”

“단련되어서 괜찮습니다.”

“그럼 더우시니까 단추만이라도.”

명철은 어색한 손놀림으로 다시 단추를 풀었다.

“남 상하고 만나는 게 거의 두 달 만이네요. 그리고 보니 오빠하고도 삼주 만이군요.”

“삼주 만에 보니 더 반갑네.”

“어머, 거짓말도.”

야스코는 손에 쥔 부채를 치켜 올리려다가 시치미를 톱 떴고 있는 야스시게를 보고 약간 표정을 실룩했다. 야스시게가 알았다는 얼굴을 하자,

“오빠는 군인답게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어때?”

“뭘?”

“아버지는 요즘 무척 바쁘셔. 매일 용무가 있어서. 엄마는 해지기 전에는 돌아오신다 했고.”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야스시게는 하얀 이를 드러내며 히죽거렸다.

“뭏됐어.”

“어머니는……미즈타니야에코(水谷八重子)⁹⁾ 공연이 오늘 마지막이라고?”
 “하지메에게 벌써 물어 본거야?”
 “그래. 내 집에 왔는데 응접실로 안내받다니. 나는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았다.”
 “미안해.”
 “그건 그렇고, 형은?”
 “있어. 이 층에.”
 “음. 있구나, 이 층에”
 야스시게는 천정 주변을 응시하다가, 그럼 잠시 보고라도 하고 올까, 하며 일어섰다. 그때 하지메가 음료수를 들고 왔다. 야스코는 하지메에게 식사를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찰팔밥¹⁰⁾을 해냈어.”
 “이런 황송할 데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그럼, 전혀. 원래 군인은 단순하잖아.”
 야스시게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빨대를 입에 물었다. 하지메가 나가자 형 야스마사(保雅)가 들어왔다. 큰 키에 명주 홀웃 차림이었는데, 입을 꼭 다문 것이 방금 누군가와 언쟁이라도 한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어떠냐, 건강하냐.”
 말없이 탁자 근처로 다가와 내키지 않는 듯한 얼굴로 야스마사가 물었다.
 “뭘, 그렇지.”
 “남(南) 군은 어떠십니까.”
 “네, 덕분에.—”
 물으면서도 대답에는 관심이 없고 뭔가 다른 생각에 몰두해 있는 듯, 두 사람을 교대로 바라보는 야스마사의 시선에는 초점이 없었다. 의자에 앉으려다가 생각을 바꾸어 비슬비슬 창가 쪽으로 걸어갔다. 정원의 잔디는 푸릇푸릇하고 화단에는 글라디올러스와 칸나가 꽃봉오리를 열고 있었다.
 “좋은 날씨구나.”하고 야스마사는 기지개를 폈다.
 “어머니는 공연 보러 가셨니?”
 “응, 근데 처음 1막만 보고 금방 오신댔어.”
 “야스시게는 어쩐 일이냐.”
 “오랜만에 요리나 좀 얻어먹으려고.”
 “그래?”
 야스마사는 돌아보며 약간 웃으려다가 그대로 정원 쪽을 향한 채 잠시 말없이 있었다.
 “사루비아가 아름답게 피었구나.”

9) 1905~1979. 배우.
 10) お赤飯(せきはん) : 팥을 넣은 찰밥(경사스러운 날에 먹음).

하고 불쑥 말을 던지며 세 사람을 보았지만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자,

“가서 식사나 해.”

하고 야스시게에게 말했다.

“그럼, 실례.”

야스마사는 세 사람을 그냥 지나쳐서 방을 나가버렸다. 야스시게는 문 쪽을 쳐다보다가,

“어때 우리 형, 물건이지.”

하며 명철을 보고 웃었다.

“한번 실연 당했다고 인간이 모두 저렇게 될까?”

야스코를 쳐다보며 묻자, 그녀는 눈살을 찌푸리며 야스마사의 흉내를 냈다.

“사루비아가 아름답게 피었구나라니, 완전히 비극의 주인공이군. 사루비아에 추억이 있는 모양이네.”

“그렇게 자기 오빠를 험담하면 못써.”

하지메가 식사 준비가 다 되었다고 알렸다.

“오빠, 옷 갈아입고 밥 먹지 그래요. 남상도요.”

“아니야, 됐어. 정오 전에 갈 거니까. 실은 남군 집에 놀러가려고 해.”

“명희 씨 집에?”

“응, 오랜만에 너도 같이 가지 않을래?”

“그래.— 갈게. 명희 씨 보고 싶어.”

야스코는 명철에게,

“이사하셨다고 하던데.”

“네.”

명수는 여동생의 편지를 꺼내려고 주머니를 더듬었다.

“명희 씨가 엽서를 보냈어요. 세다가야(世田ヶ谷) 쪽 이라던데요.”

“그렇습니다.”

명철은 야스코의 얼굴에서 자신의 무릎 위로 시선을 떨구었지만,— 등에 땀이 줄줄 흐르고 있는 것을 느꼈다.

2

세다가야의 명수와 명희는 오빠가 온다기에 오랜만에 식탁에다 아침을 조금 늦게 준비하고 있었다. 명희는 어제 저녁 장을 봐온 신선한 재료를 서투른 솜씨로 다루면서 부인잡지의 도움을 받아가며 부엌에 벌써 한 시간째 틀어박혀있다. 명수는 로쿠조(六疊)의 명희 방에 있는 피아노 앞에서 아침 발성 연습을 하고 있었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 우유를 마시려고 부엌으로 내려왔다.

“감기에 걸린 것도 아닌데 오늘 아침은 라(A)음도 파(F)음도 안 되네. 형편없는 테너로군.”

“음역이 부족한 테너가 요즘 유행이라잖아요.”

“그것은 일본 악단(樂壇) 얘기고, 세계 악단을 모르고 하는 소리지.”

“세계 악단은 잠시 제쳐두고 이것 좀 잠깐 들어줘.”

명희는 기름이 끓고 있는 프라이팬을 건넸다. 명수는 떨떠름한 얼굴로 프라이팬을 받아 들고는 칩 소리를 내고 있는 야채를 젓가락으로 뒤적이면서 얼굴만 뒤로 뺐다.

“왜 그래?”

“이 기름기가 목에 가장 안 좋단 말이야.”

“엄살은.”

“무슨 엄살이야. 네가 손가락 보호하느라 빨래 안하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프라이팬을 다시 건네주고, 선반 위에 있는 우유를 집어 커피 컵에 따랐다.

“그건 그렇고, 군인 아저씨는 이제 곧 도착할 때가 되었지.”

“약도를 잘 적어보내긴 했는데, 집을 쉽게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세다가야(世田ヶ谷)가 복잡한 도쿄 중심지도 아닌데 뭘.”

명수는 마시다 만 컵을 든 채로 방으로 들어갔다. 고심해서 네다섯 종류의 요리를 장만하고 씻어 놓은 밥공기를 행주로 닦고 있는데, 방 쪽에서 결국 체념한 듯한 바리톤의 ‘여심(女心)’이 들려온다. 명희도 조그만 소리로 하바네라(habanera)¹¹⁾를 읊조리면서 오빠가 오면 무엇을 할지 궁리해보았다. 명희는 음악가인 주제에 냉소적이고 이치를 따지는 명수보다 어떤 일이든 말없이 실행하는 편인 명철을 좋아했다. 키가 오척팔촌(五尺八寸)¹²⁾인 명철을 볼 때, 뭔가 압도당하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친 오빠인데도 황홀해졌다.

“방 정도는 정리해주면 어디가 덧나나.”

“내가 정리해봐야 네 맘에 안들 거라고 생각되어서 말이야.”

명수는 악보를 응시한 채로 장식음 대목이 같은 곳을 두 번 정도 쳤다.

“여기를 한 옥타브 올리고 그러고 나서 장식음 대목을 넣어야겠다.”

“틀림없이 관중이 탄성을 지를걸.”

“일찍이 통속적이지 않은 위대한 존재는 없다.”

“그건, 지드의 말입니다.”

명희는 방 안을 둘러보고 책장을 열어 어지럽게 꽂혀 있는 책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장식장 위의 화병위치를 바로잡았다. 오늘 아침 꽃집에서 갓 사온 질경이와 미타리 꽃이 싱싱하게 피어서 방 안에 질박한 향기를 풍기고 있다.

“일주일에 한번씩 형이 오면 좋을 텐데.”

“그러게 말이야.”

“그래야 집안이 좀 깨끗해진단 말이야.”

“바보야 암튼.”

명희는 웃으면서 아침 햇빛이 다다미 위에 가득 흘러넘치고 있는 뒷마루 쪽으로 걸어갔다.

11) 쿠바에서 생긴 2박자의 경쾌한 무용음악.

12) 한 척은 30.33cm이다.

“무척 덥겠어요, 오늘도.—”

올타리 너머 옆집 부인과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 현관문이 드르륵하고 열리는 소리가 났다. 명수가 피아노 걸을 떠나 나와 보니 우편배달부가 서있었다. 경성의 아버지가 보낸 학비(생활비)가 도착한 것이다. 명수는 배달부를 기다리게 하고, 도장을 가지러 방 안으로 들어왔다. 명희가 앞치마를 벗으며 웃으면서,

“왔어?”

“응, 왔어.”

명수는 탁자 쪽으로 다가가서 서랍을 열었다. 명희는 “어서오세요.”하고 까불거리며 현관으로 나갔다. 도장을 꺼내 현관으로 나오는 명수를 보며 명희가 약간 한심하다는 얼굴을 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거짓부리.”하고 조선어로 말했다.

“음악학비가 왔잖아.”

“그래, 빨리 왔네. 이번 달은.”

명수는 수신인이 남명철로 되어 있는 봉투를 받아 들고 방으로 들어와서 편지를 들여다보고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상하네 이걸,— 형의 글씨체가 아닌데, 아버지 필적이야.”

명희는 편지를 들여다보면서,

“명엽(明燁)오빠, 또 어디 놀러가서 아직 안 왔나보네. 분명해.”하며 웃었다.

장남이며 도락가(道樂家)인 명엽은, 완고한 부친 곁에 있는 게 싫어서 곧잘 집을 나가 소식불명이 되곤 했다. 그런 때는 어쩔 수 없이 부친이 직접 명철과 명수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다.

부친은 타고난 명필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있는 터라 잠문은 일체 쓰지 않았다.

“또 애인이 생겼나, 오빠는.”

“그렇겠지. 경성에는 일류 기생만 해도 차고 넘치게 있으니까.”

평소대로 명수는 봉투를 열어보려고 했지만,—수신인이 명철이라도 학비는 세 사람 분을 같이 넣어 보내고 있다.— 무슨 일인지 이번에는 엄숙하게 ‘필친전(必親展)’이라는 단서(但書)가 붙어 있었다.

“필친전이라고 적혀 있어. 이걸 형에게만 해당되는 건가?”

“세 사람 모두에게 필친전은 좀 이상하지.”

“듣고 보니 그렇네. 무슨 일이지.”

“이따가 오빠가 올 테니 기다려보는 게 어때?”

“그러자.— 뭔가 기분은 안 좋다. 어쩌면 돈이 아닐지도 몰라.”

“뭐지?”

“글쎄 뭘까.— 뭐 어느 쪽이든 아버지의 친서를 받다니 매우 황송한 걸.”

외국 배우처럼 어깨를 흔들며 감격스러운 몸짓을 하더니 명수는 편지를 탁자 위에 내던졌다.

“이 황송함을 담아 한곡 해볼까.”

“뭘 부를 건데.”하며 명희는 피아노 앞에 앉았다.

“머나 먼 산타 루치아.”

“일본어로 불러줘.”

“원어(原語)로 하는 게 좋아.”

“그래도 오빠는 일본어가 서투르니까 연습해야 한다구”

“내 일본어가 서투르다고? 난 썩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요전에 온 고물상도 그러더라.”

“그런 사람하고 동격으로 취급하다니. 하지만 일본어로 불러야만 통하는 악단(樂壇)은 갑갑해.”

“아직 갑갑해할 실력은 못되는 것 같은데.”

자신 있는 곡목을 몇 곡 연습하는 도중에, 어떤 대목의 어떤 부분에 연성부(延聲符)를 넣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두 사람의 의견이 충돌했다. 명수는 넣는 편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고, 명희는 천박한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안 넣는 게 낫다고 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 계속 논의를 하는 동안 어느덧 시간이 흘러갔다.

“어머, 벌써 열두시 반이네. 왜 안 오지?”

명희가 연주를 멈추고, 책상 위에 놓인 탁상시계를 바라보았다.

“요리가 식어버리겠네.”하면서 뒷마루 쪽으로 나갔다.

울타리 위로 길을 내다보니, 불별더위가 흰 옥자갈 위에 이글거리며 끓어오르고 있을 뿐, 사람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다. 도로 바깥쪽으로 파발과 양배추밭이 푸르게 이어져 있고, 그와 나란히 두 줄기 선로(線路)가 좌우에 뻗어있다.

때마침 시모기타자와에서 오다와라(小田原)로 향하는 전차와 오다와라에서 시모기타자와로 들어오는 전차가 양배추 밭 위에서 서로 엇갈렸다. 명희는 시모기타자와역 구내로 들어오는 전차를 지켜 보다가, 이 차로 만일 오빠가 오지 않으면 단념하고 둘이서라도 식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무심히 도로 쪽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 술집 옆쪽에서 홀연히 모습을 드러낸 군복 차림의 명철을 발견했다.

“왔다.”하고 도로 쪽을 향한 채로, 명희는 명수에게 손짓을 했다.

“세 사람이야. 어머, 고마쓰바라 씨하고 야스코 씨도 같이 왔네.”

방 안으로 달려 들어온 명희는 불품없는 평상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훑어보고 당혹스러운 듯 웃었다.

“이 옷 갈아입어야겠어. 손님이 오니까 말이야.”

명수는 명하니 찬찬히 동생의 평상복을 훑어지게 바라보다가, “아차.”하면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뒷마루 쪽에서 얼굴이 열게 그을린 명철이 방 안을 들여다보며, “어이.”하고 소리를 질렀다. 뒤에 따라오고 있는 야스시게와 야스코도 울타리 위에 상반신을 내놓고 명희에게 인사했다.

“상당히 좋은 집이네. 아무리 교외라도 이십팔 원이면 싸네.”

명철은 현관으로 돌아오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명희는 마중을 나가 야스시게와 야스코에게 손을 흔들었다.

“정말 잘 오셨어요.”

“실례하겠습니다.”하고 야스코가 인사하면서, “지난번, 엽서 감사했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오랫동안 연락을 못 드려서,— 자, 들어오세요.”

명희는 세 사람을 자기 방으로 맞아들이고 방석을 권했다. 명수도 실크 홉웃으로 갈아입고 나왔다.

“함께 오시는 줄 알았으면, 음식을 많이 준비해두었을 텐데.”

“아, 뭔가 음식을 준비한다고 그랬지.”

“명수오빠하고 나는 아침밥을 안 먹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니. 이거 정말 미안한데. 그럼 빨리 먹자. 조금씩 나눠먹으면 되지.”

명희는 장 속에서 부채를 꺼내 세 사람에게 권하고, 오빠와 야스시게에게 상의를 벗으라고 말했다. 그리고 부엌으로 내려가서 준비했다.

야스시게는 “그럼 옷을 벗을까.”하며 혁대를 풀었다. 명철은 그 상의를 받아 자신의 옷과 함께 벽에 걸다가 탁자 위에 있는 서류(書留)를 발견했다. 명수가,

“그거 오늘 아침에 온건 데, 아버지 글씨체고, 필친전이야.”

“음. 송금치고는 좀 빠른 걸.”

손을 뻗어 봉투를 집어 무심히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한지(漢紙)에 붓글씨로 쓴 글뿐이고 환어음은 들어 있지 않았다.

“돈이 아닌데?”하며 가볍게 읽어 내려가던 명철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명수는 그 표정에서 내용을 짐작해보려고 무심한 듯한 시선으로 형의 얼굴을 보았지만 명철의 표정은 점차 애매해져갔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편지를 접어 바지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었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했다. 명희가 상을 꺼내고 음식을 들여왔다.

“완전히 식어버렸어요. 오빠가 늦게 온 탓이에요.”

“더운 날에 딱 좋죠 뭐.”

야스시게가 젓가락을 들고 상 위를 둘러보았다.

“별로 차린 게 없어요.”

명희가 수줍게 웃으며, “제일 가운데 있는 게 신선로라는 조선 요리예요.”

“아—.”

“신선로는 본디 겨울 요리예요. 화로 속에 불을 넣어서 익기 시작한 것을 먹는 것이 제대로지만, 도구가 없어서 접시에 담았어요.”

“신선로라는 말은 어떤 노래에선가 기생이라는 말하고 같이 나오는 걸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하고 야스시게가 말했다. 명수가 옆에서 말을 거들며,

“신선로는 원래 화류계(花柳界)의 요리입니다. 다만 사람의 취미에 따라 일반 가정에서도 만들어 먹지요.”

“너무하세요. 저는 그런 취미가 있어서 준비한 게 아니에요. 명철 오빠에게 고향의 맛이라도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일부러 준비한 걸요.”

“마늘까지 찾아서 말이야.”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게 만든 건데”

명희는 야스코에게 동의를 구하는 듯한 시선을 보내다가, 곧 ‘이런’하며 얼굴을 붉혔다.

“마늘은……딱하게 되었네요.”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야스시게가 다소 허둥대며 말해서 모두가 웃었다.

식사를 하면서 명철과 야스시게는 이번 야영에서 실시되는 방공훈련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다.

“야포(野砲) 담당 다지마(田島) 말에 의하면, 항공 부대도 참가할 거 같아.”

“음. 이전과 마찬가지로, 교장 각하의 맹렬한 강평(講評)을 받겠지.”

야스시게는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고 그다지 굵지 않은 팔을 불쑥 상 위로 내밀더니,

“제병연합(第兵聯合)인가. 음. 솜씨를 보이고 싶어서 좀이 다 쑤신다.”하며 힘을 주었다. “애석한 건 이게 실전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전이 아니라는 것을 애석해하면서 야스시게는 줄곧 팔에 힘을 주었다.

명수는 야스코를 상대로 문학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다. 명희는 전혀 줄어들지 않는 음식을 보면서 요리 솜씨를 신경 쓰고 있었다.

“명희 씨가 요즈음 집에 안 오시니까 어머니가 무슨 일 있느냐고 일전에도 물어보셨어요. 명희 씨 피아노 연주를 다시 듣고 싶다하시면서요.”

야스코는 후식으로 먹을 수박을 칼로 자르고 있는 명희에게 화제를 돌렸다.

“그 이후로 실력이 전혀 향상되지 않아서,……무리예요.”

명희는 수박을 잘라 모두에게 권하면서,

“어머님은 건강하시지요?—그리고 야스마사 님도 잘 지내시고요.”

“네에, 건강하세요. 야스마사 오빠가 요전에 명희 씨 얘기를 했어요.”

“어머, 어떤 얘기를요?”

“명희 씨 피아노 연주를 듣고 있는 동안은 세상이 웬지 밝아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요.”

“이런.”

새까만 눈을 가느다랗게 뜨며 명희는 당혹스러운 듯이 웃었다.

식사 뒷정리를 마치고 나서, 명희는 작은 방으로 물러나 옷을 갈아입었다. 투명하게 속이 비치 보이는 얇은 마(麻)에 은사(銀絲)로 무늬를 곁들인 순백 저고리에 옥색 치마를 날렵하게 차려입고 수줍게 웃으며 장지문을 열자, 야스코가,

“아름다워요.”하며 눈을 크게 떴다.

“이것이 본래의 조선옷이에요.”하며 명희가 양 소매를 조금 펼쳐보였다.

야스시게도 신기한 듯 올려다보고 내려다보며,

“멋지군요. 평상시에는 어째서 입지 않습니까?”

“눈에 띄어 어쩔 수 없어요.”

“눈에 띄니 좋지요. 무엇보다 이렇게 훌륭한 복장을 접하면 사람들이 조선옷에 대한 인식을 바꿀 겁니다.”

“그래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싫어서요.”

“하긴, 그렇기도 하겠군요.”

“그래도 한번 이 차림으로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간적이 있어요. 오빠와 같이 갔었는데, 그때 오빠는 일본 옷을 입었고요. 그런데 저는 일본어로 오빠는 조선어로 대화를 했더니 판매원들이 어찌나 묘한 얼굴들을 하던지.”

“결코 바람직한 취미는 아니군요.”

“맞아요.”

“적어도 명희 씨 피아노 연주에 비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어때요? 쇼팽이든 뭐든 한곡.” 야스시게가 피아노를 치는 손놀림을 흉내를 내보였다. 명희는 그 서툰 손짓을 보고 웃으면서 피아노로 향했다. 야스코가 일어나서 그 뒤에 다가섰다.

“녹턴을 연주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려 처음 두 소절을 가볍게 쳤다. ‘변장조(變長調)’였다. 명희는 악보대에서 쇼팽의 작품집을 선택해 꺼냈다.

호흡을 가다듬고 건반 위에 손가락을 올려 소박하게 야상곡을 연주했다. 완만한 삼박자의 곡이 정확한 기교로 반복되고 있는 동안 을씨년스러운 로쿠조(六疊)의 방이 어느 사이에 현란한 화원으로 변해갔다. 하지만 그 분위기에 동화되고 있는 사람은 명희와 야스코뿐이고, 뒤에 앉아 있는 세 명의 남자들은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야스시게는 애써 음악 속으로 빠져보려고 하면서 도취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사실은 조금도 이해할 수 없었다. 명철은 아까 주머니에 쑤셔 넣은 아버지의 편지를 신경 쓰며 변화가 적은 유장(悠長)한 멜로디에 조바심치고 있다. 명수는 그러한 형의 김새에서 뉘그러한 분위기를 알아내려고 음악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았다.

야상곡이 끝나자, 피아노 곡은 명철과 야스시게를 배려한 리스트의 랩소디로 바뀌었다. 중간에 고난이도의 기교가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곡은 그 부분까지 오면 다시 앞으로 되돌아갔다. 같은 부분을 몇 번이나 반복하고는 있지만, 템포가 빠르고 멜로디에 변화가 있어서 이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여도 듣기에는 좋았다. 야스시게가 열심히 경청하고 있는데 명철이 옆에서 조그마한 소리로 “고마쓰 바라”하고 불렀다.

야스시게는 말없이 돌아보았다.

“실은 아버지한테 좀 성가신 편지가 와서 동생하고 얘기 좀 했으면 해.”

“알았어.”

“미안하지만, 부탁해.”

명철은 턱을 들어 책상 위에 놓인 탁상시계를 가리켜 보았다. 야스시게는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연주가 끝나고, 명수가 야스코에게 부탁받은 이태리 민요를 두 곡 부르고 나서 잠시 레코드를 들었다.

분위기를 이어가려고 십분 남짓 잡담을 나눈 후, 야스시게는 야스코에게 이제 그만 일어나자고 말했다. 곧바로 학교에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야스코가 약간 의아한 얼굴로 쳐다보자 눈짓으로 저지했다.

“아무런 대접도 못 해드려서.”

두 오빠가 별로 말리는 기색을 보이지 않아서 명희는 그대로 두 사람을 현관에서 배웅했다. 방으

로 돌아와 보니, 한 발 먼저 들어와 있던 명철이 방 안에 떨거니 곧추서있다.

“무슨 일 있어요?”하며 명희가 다가오자,

“응.”

명철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가서 앉았다.

“뭘 적어 보내신 거야 아버지는.”하며 명수도 가까이 다가왔다. 그 얼굴을 올려다보고 다소 괴로운 듯한 웃음을 지으며,

“아셨어, 결국.”이라고 명철이 말했다.

“음.”

명수가 양 볼을 부풀려 희미한 웃음을 지으면서,

“그거 좀 성가시게 됐네.”

“작은 오빠가 사관학교에 다니고 있는 거 말이야?”

명철은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 가볍게 혀를 찼다.

“알려드린 건 물론 큰 형이겠지만, 큰 형도 알게 된 사정이 있다.”

제작년 예과를 마치고 경성의 연대로 견습근무 나갔을 때의 일이다. 어느 일요일 오후, 혼마치(本町)¹³⁾에서 명철은 형 명엽과 경성제대 동창이자 그도 알고 있는 견지동(堅志洞)의 장(張)이라는 남자와 우연히 만났다. 장은 명철의 군복에 눈이 휘둥그레지며 잠시 할말을 잃은 듯하더니, 이내 “자네, 계동(桂洞)의 명철이 아닌가?”하며 확인해 왔다. 명철이 단념하고 웃으며 “맞아요.” 하자, “이거 놀랐는데, 자네 군인인가?”하고 장은 특유의 과장벽을 드러내며, “아니지, 이렇게 딱하니 군복을 입고 있는데 군인이 아닐 리가 없지.”하고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는 기쁨에 어쩔 줄 몰라 했다. “그건 그렇다 쳐도 좀 이상하군. 자넨 분명히 도쿄 와세다(早稻田)에 입학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난 장을 근처 찻집으로 데리고 가서 사정을 얘기하고, 언젠가 시기가 되면 스스로 이야기 할 작정이니 지금은 형이나 아버지께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그 수다쟁이가.”

명철은 군복바지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 명수에게 건넸다. 옆에서 명희가 들여다보았다. 글자의 오른쪽을 위로 올려 쓰는 버릇이 있는 아버지의 독특한 필적이 두 장의 한지에 초서체로 흐르고 있다. 한 문구가 강한 문장을 판독해보니 대략 다음과 같은 의미였다.

애비는 지금까지 네가 와세다대학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것은 네가 상경(上京)할 때 애비에게 거짓을 말하고 또 항상 애비에게 보내는 서신에도 대학에 다니는 것처럼 꾸몄기 때문이다. 그런데 얼마 전 우연찮게 네가 육군사관학교에 재학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비는 아연실색해서 너를 질책할 힘도 없다. 네 명의 형제 중 가장 효심이 두텁고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네가 부모를 속이고 애비의 뜻을 저버리고 군인이 되려 하다니, 정말이지 뜻밖이다. 여러 가지로 병이 많아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애비로서는 네가 하루라도 빨리 와세다대학을 마치고 귀향해 전통에 빛나는 남씨 가문의 중견(中堅)으로서 착실히 일해주기를 매일 염원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날벼락 같은 소식에 애비의 낙담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애비의 심정을 헤아린

13) 지금의 충무로 일대.

다면 네가 하루라도 빨리 사관학교를 그만두고 돌아오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애비는 이후 너를 자식으로서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학비도 일체 송부하지 않겠다. 애비의 뜻을 알아들었다면, 네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다. 숙고한 후 답장을 보내라. 다시 말하건대, 애비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면 이 애비는 앞으로 너를 자식으로서 인정하지 않겠다.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으면서 명수는 우울한 얼굴을 했다.

“번거롭게 되었군.”

“할 수 없지. 어차피 언젠가는 아실 일이니까.”

명철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수롭지 않은 듯 차분했지만, 어쩐지 표정은 굳어있었다.

“그래, 형은 어쩔 작정이야?”

“음.”

명철은 의자에서 일어나 방안을 걸으면서,

“어쨌든 아버지 말씀대로 할 수는 없다.”

“그럼, 아버지가 뭐라 하실 텐데.”

“그러시겠지. 하지만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경성에 돌아가면 큰 형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야.”

“명엽 오빠가 작은 오빠 일에 간섭하거나 하지는 않을까?”

“간섭은 물론 하겠지. 큰 형의 입장도 있으니까.”

“그럼, 오빠는 어찌면 좋지요?”

“생각은 하고 있다.”

“만약 오빠에게 돈이 오지 않으면 제가 연습을 그만 둘래요. 오빠 용돈 정도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줄게요.”

“음. 하지만 돈 문제만이 아니다. 내가 입학원서에 아버지 도장을 임의로 사용했으니까. 집 주소도 친구 집으로 되어 있고, 형이 학교에 쓸데없는 통첩이라도 하면 곤란해져.”

명철은 괴로운 얼굴로,

“게다가 올해 졸업하면 경성의 연대로 부임한다. 어쨌든 아버지나 형하고 교섭은 해야 해.”

“작은 형이 경성에 돌아가면 갈등은 있겠지, 상당히.”

명수는 위로조로 말하는 게 아니라, 툭 내뱉었다.

“작은 형이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 당연히 의절당하겠지. 그리고 돌아가면 또 격식 차린 의식이 정식으로 기다리고 있을 테고. 당연히 그 희귀한 친족회의가 있을 거고, 그러면 아버지는 또 체면을 잃겠지.”

“친족회의라.”

명철은 우울한 얼굴로,

“그건 정말 신물이 난다.”

“쇼와(昭和) 성대(聖代)에 벼슬을 얻은 존귀한 전통을 자랑하는 양반들이 형의 장래가 잘못되지 않도록 올바르게 지도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지.”

명철은 실소를 금치 못했다.

“게다가 그 양반인가 뭔가에 내가 어떤 형태로 속박되어 있으니까. 내가 거기서 벗어나려면 이 일이 아니더라도 한번은 소동을 부려야겠지.”

“한번 소동부린 걸로 벗어날 수 있다면 해볼만하겠지만.”

“맞다. 정말이지 어느 것 하나도 이해하려 들지를 않아. 그냥 모든 걸 부정해. 그것도 자기편이 많다는 것을 힘으로 여기고 그러니, 손 쓸 방도가 없다.”

열어 둔 뒷마루로 약간 높은 언덕 위의 상수리나무숲이 보인다. 그 숲 뒤편의 창공을 응시하며 명철은 묵묵히 있었다.

“아군은 형 쪽에도, 있기는 있겠지.”

명수가 말했다. 그리고 형의 진지한 눈과 부딪히자 입을 다물고 애매한 웃음을 흘렸다.

명철은 가만히 명수의 얼굴을 응시하고 있다가, 이윽고 차츰 눈살을 찌푸렸다. 명수는 그러한 형의 기세를 역시 애매한 웃음으로 받아넘겼다.

“음.”

명철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뭔가를 생각하는 듯하다가 동생들 걸을 벗어나 뒷마루 쪽으로 걸어 갔다. 하지만 곧 다시 발걸음을 돌려 방 안을 걸어 다니기 시작했다. 그리고 뭔가 중얼거리더니 벽에 걸어두었던 혁대와 모자를 집어 들었다.

“가려고?”

“다음주 또 오마.”

짧게 대답하고 명철은 조금하게 혁대를 허리에 둘렀다.

“같은 편이 있다니, 누구를 말하는 거야?”

명철을 배웅하고 방으로 돌아오자, 명희가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을 했다. 명수는 거기에 대답을 않고, “그런데,—”하면서 명철이 그랬던 것처럼 방안을 걸어 다니기 시작했다.

“응?”

그 앞을 가로막고 서서 명희가 즐랐다.

“누구나니까?”

명수는 가슴 언저리에 깍지를 낀 손가락을 푹푹 꺾으면서, 동생의 얼굴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다.

“야스코 씨 얘기야.”

“야스코 씨가? 근데 야스코 씨가 왜 명철 오빠를.”

“형은 야스코 씨에게 프리포즈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

명수는 놀라는 명희의 얼굴을 비껴서 의자 쪽으로 걸어갔다.

“야스코 씨를 데리고 조선으로 돌아가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돼. 아버지도 어머니도 친척도 없지. 성가신 싸움을 할 필요도 없고, 아버지도 단념하시겠지. 야스코 씨는 형에게는 정말 강력한 아군임이 분명해.”

“그런데,……뭐가 문제지?”

“상대가 말이야.”

“야스코 씨는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라는 것과 결혼하고는 다른 문제야.”

명수는 의자에 앉으면서 웃었다.

“작은 형은 세상을 몰라. 솔직한 것은 좋지만 혼자서 속단하는 건 곤란해.”

“그건 성격인 걸.”

“확실히 성격이지. 하지만 성격이 세상에 통하는 건 아니니까.”

두 사람은 입을 다물었다. 명희는 오빠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갑자기 불안이 엄습해왔다. 하지만 그것을 부정하고 싶어서 다소 제멋대로 생각을 했다.

“오빠가 말하는 것처럼 명철 오빠가 단순하다면, 더더욱 똑 부러진 사람과 결혼해서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해.”

“요컨대 야스코 씨 같은 사람 말이나.”

“뭘, 그렇지.”

“그것이 누구든 도움을 받는 쪽은 좋겠지. 문제는 도움을 주는 쪽의 사정이지.”

명희는 깜짝 놀라서 입을 다물었다. 내심 은밀한 자기의 바람을 알고 있으면서도, 냉정한 오빠가 밉기까지 했다.

“조만간 재미있는 코믹 오페라를 보게 될 거야. 서곡으로 피날레마치 한번 연주해봐.”

명희는 묵묵히 오빠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획 하고 외면해버렸다.

“하하하하.”

명수는 천정을 올려다보고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3

수요일 아침, 야스코는 오랜만에 영화라도 보러가려고 신문광고란을 훑어보고 있었다. 제국극장¹⁴⁾에서 <땅 끝까지 가다>라는 제목의 프랑스 영화가 상영되고 있어서 마음이 끌렸다. 야스코는 다소 평판이 좋은 프랑스 영화나 독일 영화만 보러 다녔다.

창을 통해 정원 쪽을 내려다보니, 진홍빛 사루비아가 키가 큰 칸나와 글라디올러스 사이에서 붉게 타오르고 있는 화단 근처에 야스마사(保雅)가 팔짱을 끼고 떨거니 서있다. 야스마사는 하루 중 기분이 내키는 시간에 화단 근처를 서성거리는 것을 일과로 삼고 있었다. 야스코는 항상 그런 모습을 내려다보면서 오빠가 따분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야스마사는 야스코를 통해 알게 된 어느 실업가 집안의 딸에게 실연당한 이후 세상사에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천성적으로 맞지 않았던 아버지의 사업을 잇는 것을 피하려고 몸이 안 좋다는 것을 구실로 심심풀이로 근무하고 있던 아버지의 회사를 그만두었다. 그리고 서른한 살이 되는 오늘날까

14) 제국극장(帝國劇場) : 도쿄에 있는 일본 최초의 근대적 서양식 극장.

지 이년 여 동안 무위도식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 봄이면 독일에 유학 중인 동생 야스히코(保彦)가 돌아온다.

야스코는 야스마사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며, 예전에 손도 안 댔던 담배까지 피우는 것을 보니 조만간 고집을 꺾고 제풀에 부모와 타협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시험 삼아 영화라도 보러가자고 해볼까 하며 일어섰다.

정원에 나가보니 야스마사는 연못 주위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오빠, 오늘 볼일 있어?”

야스코는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야스마사는 질푸른 빛 물 속에서 천천히 꼬리를 치고 있는 붉은 잉어의 등을 눈으로 쫓고 있었는데, 얼마쯤 그러고 나서 얼굴을 들어 야스코를 올려다보았다.

“나야 매일 용무로 바쁘지.”

야스마사는 물고기 떼를 향해 작은 돌을 던졌다. 야스코는 웃으면서 오빠와 나란히 허리를 굽혔다.

“오빠한테 영화나 보러가자고 할 참인데, 기분전환 겸, 어때?”

“영화?”

“응.”

“어머니도 같이?”

“아니, 우리 둘만.”

“제국극장에서 해?”

“응. <땅 끝까지 가다>라고, 평판이 좋은 프랑스 영화야.”

“.....”

“어때?”

“음.”

“상영 때까지 아직 시간이 넉넉한데, 내가 긴자(銀座)에서 뭘 좀 사려고. 성가시게 해서 미안한데, 같이 가주지 않을래?”

“긴자라.”

별로 내키지 않는 듯이 말하며 야스마사는 일어섰다.

“가끔은 괜찮잖아 긴자도. 오빠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야스마사는 흘깃 야스코를 보며,

“또 그 소리야”했다.

야스코가 몸치장을 하고 있는 동안, 야스마사는 좀처럼 입지 않는 감색 양복을 걸치고 정원의 나무 사이를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좀 일찍 얘기했으면 나도 함께 가는 건데.”

모친은 다실(茶室)에서 용돈을 건네며 안타까워했다.

“오빠하고 같이 가는 거야.”

“야스마사가? 어머, 웬일이라니 그 애가.—”

“슬슬 몸이 근질근질해진 거겠지.”

“그런가보다 얘. 그래, 그렇게라도 좀 움직여야지.”

야스코가 밖으로 나오니, 야스마사는 현관 옆에 있는 우편함을 열어보고 있었다.

“너한테 편지가 와있다.”

“그래?”

받아보니 명철이 보낸 것이었다. 오늘쯤 자신도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야스코는 편지를 핸드백 속에 넣었다.

두 사람은 이치가야(市ヶ谷)역으로 가서 택시를 탔다. 오와리마치(尾張町)에 내려서 야스코는 바로 맞은편에 있는 미즈코시(三越)¹⁵⁾로 들어갔다. 살 것이 우비강¹⁶⁾ 향수와 립스틱뿐이어서, 야스마사가 두서넛 판매원들의 얼굴을 관찰하고 있는 사이에 쇼핑은 끝났다. 두 사람은 ‘에스키모’에서 점심을 먹었다.

제국극장의 이층은 비어 있었다. 동시 상영물이 상영되고 있었는데, 미국영화로 년센스물이었다.

“여전히 영화는 시시하군.”

야스마사는 선하품을 역지로 참으며 복도로 나와 소파에 앉아서 담배를 꺼냈다. 야스코는 거울을 보려고 핸드백을 열다가 아까 받자마자 넣어 둔 명철의 편지를 보았다. 부피가 얇은 게 간단한 내용인 듯해 꺼내보니 세 장이나 되었다. 야스코는 전과 다름없이 어깨에 잔뜩 힘을 주고 자신의 이상(理想)에 감격해주기를 강권하는 글이겠거니 생각하고 읽기 전부터 웃음이 나왔지만, 읽어내려 가는 동안 얼굴이 점점 새빨개졌다. 읽고나서 야스코는 뭐라 형용하기 어려운 안색이 되었다.

생각지도 못했던 명철로부터의 구혼장(求婚狀)이었다. 가벼운 흥분 속에 야스코는 당혹감을 느꼈다. 게다가 내용이 당돌해서 상대의 기분을 더욱 이해할 수 없었다. 야스코는 어쩔든 집에 돌아가서 다시 읽어보자고 생각하며 편지를 집어넣었다. 가슴이 심하게 쿵쾅거렸다.

〈땅 끝까지 가다〉가 시작되어 화면으로 시선을 주었지만, 이야기 전개는 지리멸렬했다. 요즈음 얼마간 명철의 진심을 버거워하고 있었는데, 결국 여기까지 오고야 만 것이다. 무엇보다도 야스코의 당혹해하는 의식의 한편에는, 일이 이렇게 될 것이라 믿고 은근히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두려운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다. 야스코는 그것을 명철의 성실하고 정직한 성격을 사랑하는 자신의 호의(好意)라고 변명해 왔지만, 어찌되었든 필요 이상으로 깊이 관계를 가진 것을 후회했다.

“저 사람이 장 가뱅¹⁷⁾이라는 배우니?”

“누구 말이야?”

야스코는 서둘러 화면을 쳐다보았지만 원거리 촬영(long shot)이어서 누가 누구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근거리 장면을 기다리고 있는데, 야스마사가,

“남(南)군이 뭔가 얘기를 건넸니?”하고 물었다. 야스코는 입을 열지 않았지만, 잠시 후 “응”하며 고

15) 1673년 에치고야(越後屋)라는 이름의 상호로 출발한 일본 최초의 백화점. 1904년 미즈코시로 개칭.

16) 우비강(Houbigant) : 프랑스의 화장품명.

17) 장 가뱅(Jean Gabin) : 1904~1976. 프랑스 영화배우. 개성이 짙은 호탕한 남성역으로 인기를 얻었다. 〈땅 끝까지 가다〉(1936), 〈망향〉(1937), 〈위대한 환상〉(1937) 등에 주연으로 출연했으며, 1951년 〈밤은 나의 것〉으로 베네치아 국제 영화제 최우수 남우상을 받았다.

개를 끄덕였다. 야스마사가 잠시 후 “나갈까?”하고 물었다.

“그러자.”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은 극장을 나왔다. 해자(濠) 위로 아직 태양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어디 가서 차라도 마시자.”

히비야(日比谷) 쪽으로 천천히 걸으면서 야스코는 오빠가 뭔가 물어보면 상의해보려고 생각했지만, 야스마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송(美松)’에 들어가 자리에 앉아 종업원에게 커피를 주문하고서야,

“심각한 일이야?”하고 물었다.

야스코는 편지를 보여줄까 말까 망설였지만, 평소 야스마사의 성격을 신뢰하고 있었기에 핸드백을 열었다.

야스마사는 받아 든 편지 세장의 순서를 올바르게 한 후, 별다른 감흥 없이 읽어 내려갔다. 첫 장을 읽으면서 눈살을 찌푸리더니, 차츰 신중하 얼굴이 되었다가 다 읽고나서는 느긋한 미소를 지어보였다.

“이 녀석 좀 난폭한데.” 하며 좀처럼 보여주지 않던 흰 이를 드러내 보였다. 야스코는 오빠를 따라 웃으려다 그만두고 테이블 위로 시선을 떨어뜨렸다.

명철이 보내 온 구혼장 내용의 의미는 매우 분명했다. 그래서 그만큼 더 야스코를 혼란시켰다.

편지에는 어떤 사정 때문에 지금까지 사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있었는데, 바로 얼마 전 그 사실이 들통이 나서 부친이 다 그만두고 경성으로 돌아오라고 명령하였으며,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의절하겠다고 선언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리고 자신은 의절당하는 일은 그리 두렵지 않지만, 올해 말 학교를 졸업하고 경성(京城)에 돌아갔을 때 물이해한 부친과 성가신 교섭을 해야 하는 것이 괴롭다고 덧붙였다.

이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자기는 지금 자신의 입장을 지지해줄 어떤 힘이 필요하다. 이러한 때에 만약 자신이 내지인(內地人) 여성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신의 난처한 입장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불효자식을 용서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정이 이렇게 절박한 때 당신에게 구혼하는 것이 상당히 떳떳하지 못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이 문제와는 상관없이 언젠가는 당신을 배우자로 삼고 싶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당신의 호의를 과분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 희망에 대해 거짓 없이 의향을 알려주십시오. 허락하신다면, 당신의 부모님께 정식으로 결혼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야스코는 저녁식사 때까지 편지를 다시 읽어보려고 하지 않았다. 가능한 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나서 냉정하게 생각해보려고 했다. 하지만 전혀 진정이 되지 않았다. 방에서 책을 읽어보아도 집중을 할 수 없었고, 피아노를 쳐보아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다. 쉬운 대목을 몇 번이나 잘못 쳤다.

모처럼 부친이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야스코는 찬찬히 아버지의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어머니께 꾸중을 들었다. 부친은 “이 애비 얼굴이 그리웠나 보구나.”하며 웃었지만, 야스코는 만약 명철이 편지에 쓴 대로 아버지께 정식으로 결혼을 신청하면, 평소 세상에 대한 체면을 지켜야 자신의 명예를 지킬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부친이 명철에게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야스코는 오빠의 방을 찾았다. 야스마사는 탁자 위에 팔을 괴고 『곤충기』를 읽고 있다가, 야스코가 의자에 앉기를 기다려 책을 덮으며,

“뭔가, 결정을 내렸니?”하고 물었다.

“생각 중이야.”

야스마사는 야스코의 곤혹스러운 얼굴을 흘끗 쳐다보고는,

“거절하는 것도 고려 중이겠지.”

야스코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손에 든 부채에 그려져 있는, 새 쫓는 여자의 수심에 잠긴 어개를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러는 게 옳은 것 같은 생각은 들지만.”

야스코는 동의를 구하듯이 오빠의 얼굴을 보았다. 하지만 내심 동의할까봐 두려웠다.

“너 남군에게 민족적 편견은 갖고 있지 않니.”

“그런 건 없어.”

야스코는 강하게 머리를 가로저었지만, 곧 풀이 죽어서,

“하지만 아버지는 그럴지도.”라고 말했다.

“결혼은 내가 하는 거야.”

“알아, 그건 알고 있지만.”

야스코는 고개를 숙이며 살짝 웃었다.

“그렇게 난폭한 구혼장도 드물긴 하다만, 그건 혹시 남군이 일본어로 글을 쓰는 게 익숙하지 않은 탓일 수도 있어.”

“그렇까.”

“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너무 자기중심적인 편지야.”

“낭만적이지 못해서?”

“뭘, 그럴 수도 있고.”

야스코는 웃으면서 잠시 오빠의 얼굴을 응시했다. 오빠가 자신의 문제에 흥미를 보이는 것이 조금 놀라웠다. 주변의 일에 항상 무심경했던 오빠가 완전히 잊은 듯이 보였던 예전의 냉소적인 어조조차 드러내는 것이 이제 정신이 건전한 방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증거라고, 야스코는 자신이 처한 입장을 떠나 기쁘게 생각했다.

“사랑한다든가 보고 싶다든가 하는 영터리 말이 없는 게 불만이겠지.”

“불만스러운 것까진 없지만, 난 거짓이든 과장이든 가벼운 정도라면 인생에 아름다운 빛을 더할 수 있다고 생각해.”

“초점이 흐려져도?”

“너무 일치해도 갑갑하지 않을까. 솔직히 나는 명철 씨가 그렇게까지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뭔가 이용당하는 듯한 기분도 들거든.”

야스코는 명철의 구혼을 구실로 자기가 어느새 자기 마음속에 빠져 있음을 알아차렸다. 야스마사에게 그것을 들키는 게 싫어서 약간 진지한 얼굴 표정을 지으며,

“만약 내가 명철 씨 고향에 간다고 해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겠지.”

“그런 게 염려스러우면 가지 말려무나.”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지 않는 이상, 갈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좋아해도?”

“응.”

야스마사는 침묵했다.

그러다가 잠시 후, 무슨 까닭인지 입가에 얽은 웃음을 띠며 다시 진지한 어조로,

“어떻든 네가 남군에게 호의를 갖고 있다면, 심사숙고해서 아버지와 남군이 부딪히는 일은 없도록 네 힘으로 미연에 방지해야 해.”

“그래야지.”

“또 너도 친절하게 거절하고, 남군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것인지 알면서도 부정하고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자부심이 상당한 건 분명해”

야스마사는 웃으며,

“하긴, 그게 남군의 죄는 아니니까.”

4

후지산 기슭에서 아침부터 제병연합(諸兵聯合) 방공훈련이 실시되고 있었다. 오후가 지나서 전방의 진지(陣地)로 삼십여 킬로미터를 추격하고 있던 명철이 소개대형(疏開隊形) 돌격 직전 일사병으로 쓰러졌다. 경기관총을 떨어뜨리고 모래 비탈로 폭 고꾸라진 명철을 야스시계가 달려가서 간호했다.

명철이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사사키(佐々木) 구대장(區隊長)과 야스시계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바로 옆에서는 미야모토(宮本) 군의관이 가슴을 누르고 있다. 위생병이 들고 온 들것에 실려 흔들리면서, 명철은 구름을 뚫고 중천에 솟아올라 있는 후지산 정상(山頂)의 장엄함을 새삼 깨달았다.

그날 밤, 자습실 탁자에 팔을 켜 명철은 꼼짝하지 않았다. 실내는 아주 조용해졌다. 그러나 그 조용함이 자신에 대한 동정의 표현이 아님을 명철은 느끼고 있다. 전부터 이곳에 자신을 험담하고 다니는 자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남명철 군은 체격이 좋아 용기가 있어 보이지만, 과연 실전에서 그럴까.”라고 지껄이는 무리였다. 명철은 기회가 되면, 그 편견을 바로잡아 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바로 제병연합(諸兵聯合) 훈련이 그 절호의 기회였는데, 오히려 실패를 해서 그들의 평가를 증명해준 꼴이 되고 말았다.

“언제까지 끄끙거리고 있을 텐가. 실전훈련이었을 뿐이지 않은가?”

야스시계가 등을 두드리며 위로했지만, 명철은 여전히 같은 자세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실내에

있던 한 사람이 “할복이라도 해서 용기를 보이든지.”라고 증언거렸다. 도사(土佐)¹⁸⁾ 사투리가 섞인 그 목소리의 주인이 사카키바라(榊原)라는 후보생이라는 걸 알고 명철은 묵묵히 일어섰다.

“좋아, 할복해주지.”

창백한 얼굴에 눈빛만 형형하게 빛나고 있다. 사카키바라는 명철의 기세에 약간 멈칫했지만, 얇은 미소를 띠며,

“군인에게 두 말은 없겠지?”라고 말했다.

“기다려.”

야스시게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하찮은 일가지고 왜이래?”

“아니.”

명철은 냉정해지려 애쓰면서,

“하찮은 일이 아니야. 난 사카키바라 군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명해야 할 일이 있어.”라고 말하고는,

“사카키바라, 내가 지금 여기서 누구라고 지명하지는 않겠지만, 뭔가 내 험담을 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희들은 남명철이 천성적으로 겁쟁이일 거라고 여긴다. 하지만 남 후보생은 군인정신에 있어서는 너희들과 똑같이 전혀 손색이 없다고 자부한다. 그런데 그 자부심도 오늘 결국 실전도 아닌 훈련 도중에 무너졌다.”

말을 이어가는 동안 명철의 목소리가 조금씩 침울해졌다.

“이 남명철이도 군인이고 사관(士官)인 이상 언젠가 부하를 지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겁쟁이는 부하를 통솔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지금 너희들 앞에 내가 겁에 질려 쓰러진 것인지 아닌지 그 증거를 보여주려고 한다.”

“보여줄 증거가 있기는 하고?”

사카키바라가 명철의 감상(感傷)을 조소하면서 침착하게 물었다. 명철이 입가에 건조한 웃음을 띠고,

“있다. 그래도 이번 일은 군인으로서 더할 수 없는 치욕이다. 내가 할복을 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 한 사람의 수치일 뿐이다.” 라고 대꾸하는데, 야스시게가 갑자기 “입 닥쳐!” 하며 명철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리고 문 쪽으로 밀어내려고 했다.

“나가.”

“싫다. 아직 할말이 남았어.”

“나가라면 나가.”

“명령하지 마.”

“명청한 놈. 자네 제정신 아니야.”

야스시게는 억지로 명철을 복도로 밀어내고 나서 방 안을 향하고는,

“사카키바라, 자네 앞으로 조심하게.”라고 말했다. 사카키바라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18) 나라현(奈良).

“왜 말을 못하게 해?”

명철은 밖으로 나오자 하얀 달빛을 받으며 격앙된 어조로 말했다.

“진정해, 진정하라고.”

야스시게는 명철의 한쪽 팔을 짊 움켜쥐고 걸으며,

“사카키바라 같은 녀석은 상대하지 마. 훈련 때 쓰러진 게 뭐 어떻다는 건가. 게다가 그 이유를 설명하려 하다니 당치도 않아.”

“이유를 말하는 건 그게 나 한 사람의 수치일 뿐이기 때문이야. 그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나와 같은 입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치욕을 당하고 말아. 구 대장님도 교장 각하도 우리들에게 특별한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걸 난 알고 있어. 우리들은 잘하든 못하든 쉽게 눈에 띄고 그게 평판이 된단 말이다. 개인의 잘못은 어디까지나 그 한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 좋아. 그건 좋은데, 굳이 사카키바라를 상대로 그럴 필요는 없잖아.”

“사카키바라는 우리들에게 가장 냉담한 녀석이야. 녀석은 무얼 꼬투리 잡아서든 우리를 조롱하려 들지. 녀석이 언젠가 내게 군복이 체면치레하는 데 도움이 좀 되더냐고 지껄이더군. 내가 그런 말이 나 듣자고 도쿄까지 온 건 아니다.”

“음. 그 기분 이해해. 그래도 일단은 진정하라고.”

기숙사를 한바퀴 도는 동안, 명철은 차츰 흥분을 가라 앉혔다. 야스시게는 소리를 낮추어,

“네 기분은 잘 알아. 하지만 사카키바라 때문에 변명을 한다지만, 녀석은 네가 여기까지 온 경위를 잘 모르잖아. 녀석은 너의 과거와 현재를 알뿐, 그 중간은 알지 못해. 유감스럽지만, 녀석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고.”

명철은 야스시게의 얼굴을 바라보며 묵묵히 있었다. 두 사람은 발길을 멈췄다.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였다. 한 세기(世紀)라도 지나간 것처럼 생각되었다. 같이 총을 들고 언젠가는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전우 사이에조차 여전히 집요하게 영겨 붙어있는 이 의심은 무엇일까. 육신처럼 가까운 존재라고 생각되다가도 일순간 이해 불가능한 심연의 바닥으로 떨어져 가는 두 사람 사이의 벽은—숙명적인 민족성의 차이 때문인가, 개인적 편견이 심한 까닭인가. 아니면 서로 애정이 부족한 탓일까.—명철은 고통스러운 감정의 찌꺼기를 곱씹으면서 잠시 자기혐오에 빠져들었다. 항상 두려워 경계하고 있던 이런 순간을 야스시게와의 사이에서조차 경험하게 된 것이 쓸쓸하기도 했다.

“그래도 난 자네를 알아. 적어도 현재의 모습을 믿고 있지.”

“그래,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자.”

야스시게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알았어.’하고는 한쪽 팔을 들어올렸다.

“달은 높이 솟아 하늘에 걸려 있고 흰 구름은 멀리 흩어지누나. 어때, 좀 진정이 돼?”

“응.”

“돌아가서 사카키바라하고 싸우지 않을 거지?”

“안 해.”

“그럼, 돌아가자.”

두 사람은 발길을 돌렸다.

“자네, 어젯밤 한 숨도 못 잤지?”하고 야스시게가 갑자기 물었다.

“야스코가 편지에 뭐라고 썼는데?”

“.....”

“방공훈련 때 쓰러진 이유로 그 얘길 꺼낼 작정이었어?”

“사실, 아까는 모든 걸 탁 털어놓고 할복할 생각이었어.”

“바보 같은 녀석, 그게 바로 개죽음이라는 거다.”

야스시게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지만,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다.

명철의 태도로 보아 그가 야스코에게 청혼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열흘쯤 전, 명철이 부친에게 온 편지의 내용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괴로운 입장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 명철이 야스코에게 청혼을 했다면, 야스코가 어떤 답장을 보냈을지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그래서 사카키바라를 상대로 흥분했던 그 심정에 대해서도 동정이 갔다.

그래도 야스시게는 편지의 내용을 알고 싶었다. 어젯밤에는 잠을 못 이루고 있는 명철을 보며 공상에라도 빠져 있나보다 생각하며 별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야스코이기 때문에, 설마하면서도 염려가 되었다.

침실로 들어오자 야스시게는 잘 준비를 마치고 나서 명철에게 조그만 소리로,

“자네, 왜 나한테는 한 마디 상의도 하지 않았지?”하고 물었다.

“무얼 말인가?”하고 명철은 단추를 풀던 손을 멈추고 야스시게를 올려다보았지만, 무엇을 말하는 건지 잘 알고 있었다. 야스시게는 명철이 속뜻을 파악할 시간을 주고 나서,

“실례인 줄 알지만, 내게 편지를 보여줄 수 없을까.”하고 물었다.

명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흰 봉투를 꺼내 건네주었다. 야스시게는 침대 위에 걸터앉아 편지를 읽었다. 큰 편지지 한 장이었다.

남명철 님

우선, 보내주신 글에 대한 답을 올립니다. 여러 가지로 복잡한 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우리 두 사람이 결혼하려면 서로 동지 이상의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지금처럼 친구로서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2년 내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렇게 무정한 대답이 당신을 매우 실망시킬 것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당신도 반드시 제 기분을 이해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당신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급한 마음에 용건만 담은 답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럼, 예전처럼—다소 무리한 부탁이겠지만— 편지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야스코

“우정이라는 게 뭘까.”

명철이 얼마간 당혹스러운 듯한 얼굴로 물었다.

“우정이라.” 야스시게는 편지를 돌려주면서,

“그걸 따져서 뭐하려고.”

“나는 지금까지 동성 이외의 우정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 우리나라에서는 서로 사랑하지 않는 남녀는 교제하지 않아.”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 그저 장소에 따라 그런 여자가 있을 뿐이지.”

야스시게는 말을 하며 침대 위에 누웠다.

이튿날 총기검사 실시 후 외출이 허락되었다. 명철은 정오쯤 동생들 집에 들렀다. 명수는 레슨이 있는 날이어서 시모오치아이(下落合)에 있는 선생 댁에 가고 없었다. 명희는 목요일에 갑작스럽게 오빠가 찾아와 당황했다.

“어제 방공훈련이 있어서 특별히 외출 나온 거야.”

명철은 상의와 군모를 벗어 벽에 걸었다. 명희가 의자를 권하자,

“됐어, 바닥이 좋다.”하며 다다미 위에 방석도 깔지 않고 가부좌하고 앉았다.

“명엽 오빠가 그 후로 뭔가 학교로 연락했어?”

“아니.”

“정말 돈은 이제 보내지 않을 모양이네.”

“학교에서 받는 걸로 충분하니까 괜찮아.”

“그래도.”

명희는 오빠의 표정에서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었음을 직감했다. 명철은 속마음이 안색에 드러나는 것을 굳이 감추려 하지 않았고, 또 표정에 나타내지 않으려 해도 허사였다. 팔짱을 끼고 가부좌를 튼 채로 계속 무뚝뚝하게 앉아 있었다. 명희는 오빠 뒤통까지 떠들어야 하는 의무감에 압박감을 느꼈다.

“먹을 만한 게 없으니까 요리라도 사먹자. 뭐가 좋아?”

“됐어. 별로 배고프지 않다.”

“그래도 군인이 점심을 거르면 안 되지. 도시락(런치)으로 해요. 그렇지 맛있지는 않지만 이해해줘요.”

역 앞에 있는 양식점으로 주문을 하러 가면서, 명희는 일전에 명수가 한 말이 현실화된 듯해 불안했다. 만약 오빠와 야스코 사이에 벌써 무슨 일이 있었다면, 명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결과를 알고 싶었다.

집에 돌아와 보니, 명철은 아까와 똑같은 자세 그대로 꼼짝 않고 있었다.

“난 오빠와 둘이만 있으면 상당히 곤혹스러워. 오빠를 즐겁게 해줄 얘기가 하나도 없어서 말이야.”

“이상한 녀석이네. 내가 언제 너한테 즐겁게 해달라고 부탁하던?”

“그래도 난 즐겁게 해주고 싶단 말이야.”

명철은 명희를 향해 살짝 웃었다.

“됐다, 이 녀석아. 피아노 소리 듣는 것도 고역이니까.”

“쉬운 건 어때? 군함 마치 같은 거 말이야.”

“난 육군이잖니.”

“그럼, 쌍두(雙頭) 독수리로 할게. 피아노한테는 미안하지만, 오빠를 위해서 아주 악센트를 강하게 해서 재밌게 변주해 들려줄게.”

명희는 피아노 앞에 앉았다.

“내가 아무리 음악을 몰라도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꼭 연주하겠다면 베토벤의 소나타를 쳐.”
“정말, 그럼 갑니다.”

명희는 분위기가 좀 부드러워진 것을 기뻐하면서 쇼팽의 소곡 두세 곡을 연주했다. 오빠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나 해서 돌아다보니, 명철은 피아노는 뒷전이고 벽에 걸려 있는 자신의 군복을 멀거니 바라보고 있다. 명희는 그 무례함을 좀 타박하려고 웃음 짓다가 퍼뜩 오빠의 미간에 약간 초조한 기색이 어른거리는 것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왜 연주 안 해?”

명철이 뒤돌아보았다.

“벌써 끝났어.”

“아 그래, 잘 들었어.”

“뭘, 오빠 안 듣고 있었잖아요.”

“듣고 있었어. 제대로.”

“그래?”

명희는 피아노 쪽을 향하고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지금 곡은 뭐니?”하며 명철은 약간 허물없이 웃어보려 했다.

“폴로네즈.”

“좋은 곡이구나.”

“그래.”

명희는 고집스럽게 악보대를 향한 채였다.

“기분 나빠하지 마라.”

“으—응.”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명희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명철은 따라 웃지 않았다.

시선을 돌리며 거북해하고 있는데, 점심이 배달되어 왔다. 식탁을 사이에 두고 식사를 하면서도 두 사람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쓱쓱쓱하는 나이프 소리가 신경을 거스른다. 식사를 마치고나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말도 없었다. 명철은 억지로 태연을 가장하고 있긴 해도 주눅 든 아이 같은 명희의 시선이 곤혹스러웠다.

“갈게.”하며 명철이 일어섰다.

“기다려요.”

“또 올게.”

“나, 오빠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명희는 아차 싶어 후회했지만, 명철은 의아해하며 자리에 다시 앉았다.

“새삼스럽게, 뭔데?”

“나—”하며 명희는 오빠의 안색을 살피면서,

“오빠 일에 대해 알고 싶어.”

“그러니까 뭘?”

명철은 약간 초조한 듯 미간을 찌푸렸다.

“일전에 온 아버지 편지 말이야. 답장은 아직 안했지?”

“그래. 아직 미루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오빠하고 야스코 씨하고의 일말이야. 그 후 어떻게 되었어?”

“.....”

“난 그게 마음에 걸려서.”

명희는 몸을 움츠리고는 대답을 기다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누가 그런 얘길 했니?”

잠시 후 깊이 억누른 듯한 목소리가 머리 위에서 떨어졌다. 명희는 숨이 막혀서 순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냐고!”

덤석 팔을 붙잡힌 명희는 조심스럽게 얼굴을 들어 잔뜩 굳어 있는 오빠의 얼굴을 보고는 엉겁결에 ‘와양’하고 울음을 터트렸다.

“바보, 울기는.” 명철은 동생의 팔을 놓았다.

다다미 위에 손을 깔고 엎드려 있는 명희를 내려다보면서, 명철은 자신의 행동이 지나친 것을 뉘우쳤다.

“울지 마라. 잘못했다.”

“누구한테 들은 게 아니라, 명수 오빠가 요전에 그런 얘기를 해줘서, 그리고 오늘 오빠 안색을 보니까 어찌면 그런 게 아닐까 걱정이 됐단 말이야.”

명철은 수건을 입에 물고 울음소리를 죽이고 있는 동생의 얼굴을 보고 미안하다는 얼굴로 웃었다.

“그랬니? 내가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어?”

명철은 쓴웃음을 짓더니,

“그 녀석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바로 알아차리는구나.”

누이가 이미 사건의 윤곽을 알고 있다면, 사정을 밝히고 상의해보고 싶었다. 하지만 자신이 말을 꺼낼 수는 없었다. 명철은 누이가 다시 물어봐주기를 기다렸지만, 명희 또한 오빠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 조심스러워 마찬가지로 오빠가 말을 꺼내기를 기다렸다. 그렇게 잠시 동안 침묵이 이어졌다.

“야스코 씨는 서로에 대해 좀 더 알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더라.”

명철은 명희에게서 시선을 거두고는 단념한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무슨 의미인지 대강 알겠더군요. 야스코 씨가 듣기 좋게 표현은 했지만, 난 친절함 속에서 동시에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돌연 말을 끊고, 명철은 또 벽에 걸려 있는 군복을 올려다보았다.

“오빠.”

“응.”

“왜 그런 말을 해? 정말 싫어.”

“음.”

명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럴 만도 해. 단지 난 그 빌어먹을 거지근성을 드러내려 했으니까. 다들 사람에게 기대려고 했어. 누군가 내 일을 해결해주지 않는다고 투덜대며 구질구질하게 푸념만 늘어놓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 놈이냐.”하고는 자신을 혐오하는 듯이 낮은 소리로 웃었다.

명철이 돌아가고 나서 저녁때까지 명희는 침착할 수 없었다. 그리고 평소보다 조금 늦게 돌아온 명수를 붙들고 흥분한 어조로 자초지종을 얘기했다.

“명철 오빠 자칫하면 잘못될지도 몰라. 우리가 뭔가 하지 않으면 안돼.”

“뭔가 한다고 해도 너나 내 힘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야겠어. 내가 야스코 씨를 만날래. 오빠도 같이 가줘요.”

“만나서 어떻게 하려고?”

“명철 오빠 문제를 부탁할거야.”

명수는 묵묵히 누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그렇게까지 몰아붙여가며 야스코 씨를 괴롭혀서는 안돼.”

“.....”

“나름대로 애를 쓰는 상대방의 호의도 존중해주는 게 예의야.”

“그럼, 명철 오빠는 도대체 어떻게 되고?”

“형 문제는 형 문제지. 정말 내지인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된다면, 어디 찾집 아가씨라도 데려가면 되잖아. 그런대로 도움은 될 테니.”

“바보 같은 소리 좀 하지 마. 어떻게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어? 명철 오빠는 야스코 씨를 사랑하고 있단 말이야.”

“누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렇게 괴로운 듯이 말하지 말라는 거야. 너의 그 제스처만으로도 애정의 가치를 착각할 우려가 있으니까.”

“그래도 오빠는 또—”

“알았어, 알았다고. 우선 밥이나 차려줘. 그리고 나서 의논해보자고.”

5

명철에게 불분명한 태도로 편지를 보낸 일로 야스코는 매일 침울하게 마음이 개운치 않은 날을 보냈다. 방공훈련 다음 날, 야스시게가 집에 와서 농담을 섞어가며 명철이 전사(戰死) 연습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나서부터 야스코는 점점 더 초조해졌다. 사정을 들었는지 야스시게는 대강의 경위를 알고 있는 듯한 말투였다. 그러나 깊이 캐물으려 하지는 않고, 에둘러 명철의 입장과 집안사정에 대해

여러 가지로 자세하게 설명해주었다.

야스코는 뭔가 답장이 오지 않을까하고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지금 다시 명철에게 확답을 요구받으면 움짱달짝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내몰릴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뭔가 반응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야스코는 명희의 전화를 받았다.

이날 아침 야스코는 다실(茶屋)에서 모친과 명희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가정부가 “미나미(南) 씨의 전화입니다.”고 전했다. 야스코는 명희일 거라고 생각했다. 명희는 전화할 때만큼은 자신의 성을 일본식으로 알렸다.

“야스코 씨 집만이 아니고 어느 집이나 다 그래요. 수화기로 이름을 세 번씩 말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아주 지친다니까요.”

처음에 전화를 걸었을 때, 성(姓)을 속인 것을 사죄하면서 명희는 그렇게 말한 적이 있다.

그래도 야스코는 일어서면서,

“여자?”하고 확인했다.

“네.”

모친이 옆에서,

“명희니?”

“그런 것 같아.”

“그럼, 조만간 놀러오라고 하렴.”

“알았어요.”

계단 맞은편에 있는 전화실로 들어가 받아보니 명희의 목소리였다.

“저, 야스코 씨인가요? 저 명희예요.”

“지난번에는—”

야스코는 수화기에 대고 웃으면서, “블썩 방문해서 실례가 많았습니다.”했다.

“아니예요. 저야말로.— 실은 오늘 좀 뵈었으면 하는 데 형편이 어떠신지요?”

“네, 괜찮습니다. 마침 어머니하고 얘기하고 있던 참인데, 이쪽으로 오시면 어떨까요? 어머니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번거로우시겠지만 긴자(銀座)로 나와 주셨으면 하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할까요?”

“제가 지금 긴자에 있으니 그래 주시면 고맙구요.— 세시 반까지 ‘자생당(資生堂)’ 이 층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야스코는 잠시 전화기를 향해 선 채, 할 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명철의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소 성가신 기분도 들었지만 어쨌든 일단 만나보기로 결정했다.

흰 원피스 차림의 가벼운 복장으로 약속시간보다 십분 정도 일찍 ‘자생당’에 나가보니, 명희는 벌써 기다리고 있었다. 이쪽으로 등을 보이며 명수도 앉아 있었다. 야스코는 다소 긴장감을 느끼면서, 명희와 나란히 앉으며 명수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일부러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명수도 격식을 차린 말투였다. 평소와 달리 어려워하는 듯한 명희의 안색으로 보아 야스코는 뭔가 난감한 얘기임을 감지했지만, 일단은 별다른 내색 없이 보이에게 레몬 스쿼시(lemon squash)¹⁹⁾를 주문했다.

“일전에 모처럼 찾아주셨는데, 대접이 변변치 않아서 죄송했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여러 가지로 실례가 많았습니다.”

주문한 음료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세 사람은 무료한 시간을 주체스러워하며 얘기를 이어나가려고 애를 썼다. 명수 혼자서 화젯거리를 꺼내 놓았지만, 문학 얘기도 음악 얘기도 번번이 곧 끝나버렸다.

“언젠가 제 음악 선생님이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는 ‘자생당’이 신바시(新橋)의 게이샤(藝者)²⁰⁾들 때문에 화려해진다는 얘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정말 그러네요.”

이야기가 중도에 끊어지자 아래층을 내려다보며 명수가 불쑥 말했다. 내려다보이는 홀에는 화사한 무늬의 기모노(着物) 차림의 게이샤들이 몰려들어 여기저기의 테이블을 빙 둘러싸고 있다. 푸른 잔디밭 속에 점점이 피어있는 꽃밭이라도 바라보는 듯한 경관이었다. 한낮의 광선을 무시한 채 질게 화장을 한 기생들의 답답해 보이는 목덜미를 내려다보고 있는 동안 야스코는 신경이 예민해지고 있음을 느꼈다. 기다리다 못해 자기가 용건을 재촉하려는 데, 아이스 커피와 레몬 스쿼시가 나왔다.

빨대에서 입을 떼기를 기다렸다가 명수는 야스코에게 비로소 용건을 꺼냈다.

“할 얘기라는 게 상당히 여쭙기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실은 형에 관한 것입니다.”

예상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야스코는 미미한 흥분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를 억누르면서 야스코는 다음 얘기를 기다렸다. 명수는 야스코에게서 시선을 돌려 걱정스러운 듯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명희의 침착하지 못한 눈빛을 보았다.

“대강의 얘기는 누이에게 들었습니다만, 저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아가씨의 입장을 형보다는 더 잘 이해하고 있을 테니까요.”

야스코는 얘기가 끝날 때까지 명수의 시선에서 눈을 떼지 않았지만, 곧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기대하고 있던 얘기가 아니었다. 아직 젊은 명수의 그러한 사고방식이 야스코는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오빠의 얘기가 셋길로 빠질 것 같은 분위기에 명희는 전전긍긍했다. 명수는 그런 누이를 무표정하게 돌아보고는 야스코에게,

“명희의 얘기에 따르면, 형은 아가씨를 아내로 맞아서 조선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말하자면, 아가씨 집안에 지장이 없다면 아가씨와 함께 가려는 것이지요. 하지만 만약 아가

19) 레몬즙에 소다수를 첨가한 청량음료.

20) 일본 기생.

씨 부모님께서 허락하신다 해도, 형 쪽의 사정이 남아 있습니다. 정당하게 두 사람이 결혼하기까지는 상상을 초월한 말썽이 있을 겁니다. 이쪽의 일방적인 사정 때문에 그렇게 심한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엄치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희는 오빠가 하는 말을 들으며 오빠가 결코 자기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러자 한 순간 슬픔이 북받쳐 올랐다.

“형이 그것을 알면서도 감행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힘을 지나치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어떤 감상(感傷)이 일시적으로 형의 성급한 정열을 부추긴 것이겠지요. 형은 곧잘 사관학교에서의 남명철의 존재 가치와 일반사회에서의 그것을 혼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명철 씨가 그것을 혼동한다고 해서 나쁠 건 조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스코는 약간 긴장한 얼굴로 명철을 두둔했다.

“나쁠 건 물론 없겠지요. 중요한 건 세상이 그것을 받아주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야스코는 명수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다만 서로의 형편을 알려주려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뭔가 반응을 살피 명철에 대한 자신의 애정 정도를 가늠해보고자 하는 의중이 담긴 것임을 알았다. 타인의 양심을 그렇게 불손한 방법으로 가늠하고자 하는 태도가 어처구니없었다. 야스코는 불쾌함을 느끼며 묵묵히 있는데,

“명철 오빠의 감정을 야스코 씨에게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요.”하고, 야스코의 옆얼굴에서 민감하게 이를 읽어낸 명희가 낭패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야스코는 두 사람에게 번갈아가며 시달린 탓에,

“명철 씨의 감정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단지 편지를 받고 나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뿐이에요.”하고 조금 냉담하게 말했다. 그래서 명희는 말을 꺼낼 수 없었다. 명수는 어조를 누그러뜨려,

“요컨대 명희는 야스코 씨의 호의 정도에 따라 이 일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하고 말했다.

“그건 호의나 애정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인간에게는 또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는 문제도 있는 거니까요.”

야스코가 명수나 명희의 생각과는 다른 말을 하자, 명수는 미소를 지으며,

“운명이라기보다 차라리 숙명이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할지도 모르지요.”라고 말했다.

야스코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었지만, 이렇게 숨 막힐 듯한 분위기에서 더 이상 얘기를 나누는 것은 무리였다.

“제가 실례가 되는 말을 했네요.—괘념치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상당히 무례한 말을.—”

그것으로 얘기는 끊어졌다. 세 사람은 ‘자생당’을 나왔다. 야스코는 신바시(新橋) 쪽에 용무가 있다면서 두 사람과 헤어졌다. 명희는 야스코의 뒤를 쫓아갔다.

“저기, 전 다시 한번 꼭 만나 뵙고 싶어요. 일간 또.—”

“그래요. 언제라도 편하실 때 전화를 주시면.—”

정중하게 승낙은 했지만 웃음을 거둬들인 얼굴이었다. 명희는 냉대를 받는 듯해서 오빠가 있는 곳

으로 돌아왔다. 오와리초(尾張町) 쪽으로 걸으면서, 명희는 오빠를 나무랐다.

“너무해. 무엇 때문에 오늘 야스코 씨와 만난 거야?”

“네게 결과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결과라니, 이런 결과는 오빠가 만든 거 아니야?”

“내가 무슨 그럴 만한 재주가 있다고. 당치도 않은 소리하지 마.”

“농담 좀 그만해.”

“농담 아냐.”

“그럼, 잘난 체 좀 그만해. 변명은 그만하라구.”

“변명 따윈 안 해.”

“앞으로 오빠한테 부탁 같은 건 하지 않을 거야.”

“나 역시 사양하겠어.”

두 사람은 집에 돌아올 때까지, 국철 안에서도 오다큐(小田急) 노선 전차 안에서도 서로 입을 열지 않았다.

이틀 후, 명희는 코비키바시(木挽橋) 근처에 있는 선생 댁으로 연습을 하러 갔지만, 두 번 세 번 실수를 거듭하며 아무래도 음악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 몹시 곤혹스러웠다. 돌아오는 길에 용기를 내어 한번 더 야스코를 만나보려고 결심하고, 저녁 무렵 연습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그대로 긴자(銀座)로 갔다.

배가 고파 저녁을 먹으려고 긴자 2정목에 있는 ‘올림픽’으로 들어갔지만, 그저께 헤어지면서 보여준 야스코의 냉담한 태도가 떠오르자 포크와 나이프를 든 손에 힘이 빠졌다. 명희는 야스코를 불러낼 지 아니면 자신이 직접 집으로 찾아갈지 잠시 생각했다. 밖으로 불러내려 하면 일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피할 우려가 있고, 집으로 찾아가려면 제법 용기가 필요했다.

명희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식사를 마치고 거리로 나왔다. 포장도로를 걸으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았지만 좋은 생각은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다. 명희는 어쨌든 야스코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로 하고 근처 공중전화 박스로 들어갔다.

교환수의 요구에 따라 동전을 넣자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고마쓰바라(小松原)입니다.”

명희는 목소리의 주인공이 야스마사(保雅)임을 직감했다. 말끝을 내리는 악센트가 귀에 익었다.

“저, 고마쓰바라(小松原) 씨신가요? 야스코 씨 계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야스코는 지금 집에 없는데요.”

“언제쯤 돌아오실까요?”

“전화거신 분은 누구십니까?”

“저는 남명희입니다.”

“아, 남 양이세요?”

“네, 제가 야스코 씨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러는데, 언제 돌아오실지 알려주시면 그쪽으로 찾아뵈었으면 합니다만.”

불쑥 말을 꺼냈다.

“아, 그러세요?”

야스마사는 잠시 침묵했다.

“야스코는 친구를 배웅하러 요츠야(四谷)까지 나갔습니다만, 앞으로 30분쯤 후면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한 시간쯤 뒤에 택으로 찾아볼 테니, 야스코 씨에게 그렇게 전해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야스코가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다. 집으로 찾아가면 어쨌든 만나는 줄 것이다. 명희는 ‘이토야(伊東屋)²¹⁾의 지하에 가서 차를 주문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을 진정시켰다.

명희가 고마쓰바라(小松原) 저택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날이 완전히 저물어 있었다. 웅장한 저택의 창문에 비치는 불빛이 어느새 자욱하게 낀 저녁 안개에 아름답게 젖어 있다. 평소에는 선뜻 들어섰던 때문도 오늘은 웬지 그렇게 하기 어려웠다.

깔아놓은 돌들을 밟으며 정원을 가로질러 현관 쪽으로 다가갔다. 정원수 사이에서 물기를 머금고 있는 신록의 향기가 촉촉하게 전해져 흥분해 있는 신경을 어느 정도 가라앉혀 주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가정부가 나왔다.

“저, 야스코 씨 돌아오셨나요?”

명희가 물어봤다.

“네?”

가정부는 얼굴을 들며,

“아가씨는 아직 안 돌아오셨지만, 야스마사(保雅) 도련님께서 응접실로 모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하며 명희는 신발을 벗고 들어갔다. 가정부가 응접실로 안내했다.

넓은 응접실 안은 고요했다. 눈에 익은 가재도구들이 상들리에의 눈부신 불빛 아래 조용히 잠들어 있다. 움직이면 몸에 닿는 공기의 기운이 느껴질 것 같았다. 명희는 차가운 감촉이 느껴지는 안락의자에 가만히 앉았다.

창으로 밖을 내다보니, 고급저택들의 불빛이 더욱 짙어진 안개로 인해 아련하게 보였다. 어디에선가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다. 계속 귀를 기울여보니, 쇼팽의 ‘환상즉흥곡’이었다.

안개가 깊은 밤에 어울리는 곡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명희는 계속 음악에 도취해 있을 수는 없었다. 야스코에게 격식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자신의 태도를 생각하자, 불안이 끊임없이 솟아오른다. 이미 자신의 힘 따위로 사태를 바꿀 수 없을 듯하다는 생각에 자신감을 잃어서인지, 야스코에게 어떤 순서로 말을 꺼내야 할지 머릿속으로 정리할 기운조차 없었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야스마사(保雅)가 들어왔다. 예전과 다른 없는 편한 옷차림의 무뚝뚝한 모습을 대하자 명희는 약간 당황스러웠지만, 곧 일어나서,

21) 1904년에 문을 연 일본의 대표적인 문구잡화점.

“안녕하세요.”하고 인사를 했다.

“잘 오셨습니다.”

야스마사는 대답을 하고 테이블 근처로 다가왔다. 명희는 다시 한번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오랫동안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야스마사는 명희에게서 시선을 돌려,

“야스코는 아직 안 돌아왔습니다.”라고 낮게 말했다. 그리고,

“이제 곧 돌아올 텐데, 잠시 기다리시면 어떨까요?”하고는 뭔가 생각하는 듯한 모습으로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명희는 자리에 앉았다. 야스마사는 주머니에서 케이스를 꺼내 담배를 집어 들었다.

“이렇게 명희 씨를 뵙는 것도 벌써 3개월 만이지요?”

“네. 여러 가지 사소한 일로 바쁘다보니 그만.—”

명희는 잠시 발길이 뜸했던 동안 야스마사의 행동에서 예전의 험악함이나 딱딱함이 사라져버린 것을 느꼈다.

“아까는 전화로 실례가 많았습니다.”하며 명희는 이제서야 생각난 듯이 야스마사에게 상체를 굽혀 인사했다.

“전 목소리를 듣고 금방 알았어요.”

“그렇습니까. 이 집에 아버지 말고 남자라고는 저 한 사람이니 당연히 아실 수밖에 없을 테지요.”

명희는 그 농담에 약간 놀라서 야스마사의 얼굴을 뻘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문득 자기가 상대를 응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저, 어머님께 잠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만.”

“지금 안 계세요.”

“어디라도?”

“글쎄요. 행선지를 알리고 다니시는 성격이 아니라서.”

야스마사는 일어나서 창가 쪽으로 다가갔다.

“후텁지근하지요?”

창문을 열자, 하얀 안개가 소용돌이치면서 흘러들어왔다. 야스마사는 소용돌이에 얼굴을 파묻은 채 잠시 서있었다.

“보기 드문 안개로군요.”

야스마사는 창을 닫고, 이번에는 명희와 약간 떨어져 있는 소파에 가서 앉았다.

“명희 씨 소식은 야스코에게서 종종 듣고 있습니다. 세타가야(世田谷) 쪽으로 이사를 하셨다면서요.”

“네. 아파트가 음악 공부하는 데 좋은 환경이 아니라서, 거칠 것 없는 교외로 이사를 했어요.”

“실력이 빨리 늘겠군요.”

“소용없어요. 소질이 없으니 말이죠.”

가정부가 문을 노크하고 차를 들여왔다. 야스마사는 담배를 재떨이에 눌러 끄고 찻잔을 들었지만, 그 후로는 도무지 입을 열려 하지 않았다. 가정부가 나가자 명희는 약간 껌연쩍어서 고개를 숙이며, “저도 일전에 야스코 씨가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야스마사 씨의 소식을 여러 가지 전해 들었습니다.”하고 말했다.

“야스코가 뭐라던가요?”

“야스마사 씨의 기질이 요즘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하던데요.”

야스마사는 고개를 돌리고 살짝 웃으며 중지와 엄지를 뺀어 아래턱 주변을 만지작거렸다. 무슨 말을 꺼내겠거니 했는데, 별다른 얘기는 없었다. 그래서 명희는 다시 아래를 내려다보며,

“저도 오늘 만나 뵈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하고 조그만 소리로 말했다.

“그렇습니까.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대답을 기다리는 시선을 눈이 부신 듯 마주쳐다보며 명희는 대답했다.

“어떻다고 말로는 표현을 잘 못하겠지만, 뭔가 이렇게 얘기를 나누어 보니 전보다 훨씬 다가가기 쉬워진 느낌이 들어요.”

“그건 명희 씨가 오랜만에 오셨기 때문이겠지요.”

“어머, 그런가요.”

명희는 낭패스러운 듯 야스마사의 얼굴을 흘끗 쳐다보고는 손에 든 부채를 들어올려 얼굴을 가렸다. 야스마사는 탁자 위에 눈 둘 곳을 찾아 허둥대고 있는 명희의 단정한 이마 주위를 묵묵히 바라보다가 차츰 얼굴에서 웃음을 거둬들였다.

아까부터 들려오던 피아노 소리는 쇼팽의 프렐류드(prelude)²²로 바뀌어 있었다. 야스마사는 무심결에 듣고 있다가,

“명희 씨가 더 잘 치시는 것 같아요.”하고 불쑥 말했다.

명희도 마찬가지로 피아노의 음색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아니에요. 도저히 저로서는—”하고 겸손하게 말했다.

“아니요. 명희 씨 실력이 월등해요.”

거듭 그런 얘길 듣자 명희는 기쁜 얼굴로,

“그런가요.”하며 다시 듣는 시늉을 했다.

“오늘 같은 밤에는 피아노 소리가 잘 어울리겠죠.”

명희는 그 직설적 표현을 이해하고 느긋한 미소를 지으면서,

“요즘 연습하고 있는 거라도 두 세곡 들려 드릴까요?”

“듣고 싶군요.”

“낮부터 선생님 집에서 맹연습을 해서 손가락이 많이 아프기는 하지만, 손에 익은 곡은 그럭저럭 연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명희는 양손의 손가락들을 가슴언저리에서 흔들어 보이면서 그렇게 말했지만, 내심으로는 이를 구

22) 전주곡(前奏曲).

실삼아 야스코의 방에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응접실보다는 방에서 용건을 꺼내는 편이 허물없이 이야기하기에 훨씬 나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야스마사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가정부를 부르려 하지 않고 앞장서서 응접실을 나갔다.

야스코의 방에 올라오자, 야스마사는 전등의 스위치를 켰다. 바로 앞에 세 짝의 장롱과 나란히 새까만 피아노가 모습을 드러냈다. 화장대 옆에 있는 옷걸이에는 야스코의 평상복이 걸려 있었다. 명희는 잠시 방안을 둘러보다가 피아노 앞으로 다가갔다.

뚜껑을 열자 하얀 치아들처럼 상아빛 건반이 가지런히 늘어서있다. 명희는 손가락을 뻗어 두세 가지 협화음을 눌러보고 다시 아르페지오²³⁾ 했다.

“소리가 좋네요.”하며 야스마사를 보고,

“야스코 씨의 피아노를 치고 집에 돌아가면 항상 제 피아노가 시시해져요. 제건 기타보다도 못하거든요.”

“어째서 좋은걸 사지 않지요?”

야스마사는 피아노에 기대면서 물었다.

“아버지가 도무지 허락을 안 해주세요.”

“그래도 음악을 하는 것에는 용케 찬성하셨네요.”

“네. 경성(京城)에 있는 첫째 오빠가 얼마간 이해심 있는 분이라서.”

그런 얘기를 주고받으며, 명희는 자기가 오늘 이 저택을 방문한 이유를 생각했다. 그러자 태평하게 피아노나 치고 앉아있을 수만은 없다는 기분도 들었다. 그러면서도 야스마사에게 연주를 들려주고 있는 동안에는 야스코가 돌아오지 않았으면 하고 생각했다.

명희는 의자에 앉아 악보를 외우고 있는 멘델스존의 ‘봄의 노래’를 연주했다. 두 번 되풀이하고 피날레에 이르자, 야스마사는 느긋하게 미소를 지었다.

“정말 봄이 느껴지는 곡이군요.”

“그렇지요?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 차있어요.”

“특히 명희 씨가 화사하게 변주를 해주셔서.”

“알아차리셨어요?”

“그럼요. 다소 고약한 변주였지만.”

“이런, 죄송합니다.”

명희는 다소 교태를 띤 눈으로 올려다보며 생글생글 웃었다.

“저를 위해서 그러셨습니까? 저는 또 멘델스존을 위해서였다구요.”

“놀리시면 싫어요.”

명희는 웃으면서 장난으로 건반을 쿵쿵하고 두드렸다. 순간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명희는 숨을 죽이며 침묵했다.

아까부터 반복되고 있는 쇼팽의 프렐류드는 고조된 분위기를 억누르면서 점차 템포가 빨라졌다.

23) 맨 아래 음부터 차례대로 한 음씩 한번에 드르륵 하고 치는 것.

진홍빛 꽃잎이 분무(噴霧)처럼 소용돌이 치고 있는 그 멜로디의 풍부한 색채 변화에 잠시 매혹당한 채로 있다가,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이 넓은 저택에 자기가 야스마사와 단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영겁결에 상대의 시선을 피하고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야스코 씨가 늦는군요.”

야스마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야스마사의 안색이 조금씩 변해갔다.

“오늘은 이만 실례하겠습니다.”하고 명희는 침착하지 못한 태도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야스코 씨가 돌아오시면.—”하고 말을 꺼냈을 때 야스마사가 묵묵히 손을 잡았다.

명희는 갑자기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심하게 고동치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그래도 야스마사에게 반항하려고 시도해보았다.

잠시 후 야스마사의 배웅을 받으며 명희는 고마쓰바라(小松原) 저택을 나왔다. 자욱한 안개 속을 멍한 상태로 걸으면서, 조금 전 야스마사가 현관으로 나오기 전 복도에서 거둬서 책임을 느낀다고 조심스레 말했던 일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것은 명희를 혼란에서 구해주지 못했다. 오히려 혼란을 더 가중시켰다. 야스마사의 말을 일시적인 변명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남아있었다.

길로 나와 한번 더 안개 저편의 고마쓰바라 저택 쪽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가로수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 축축해진 책 위에 손을 올렸다. 경적을 울리며 몇 개의 헤드라이트가 그 뒷모습을 비추면서 지나갔다.

명희는 잠시 그 자세 그대로 울고 있다가 지나가는 택시를 불러 세웠다. 행선지를 말하고 곧 택시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갑자기 또 슬픔이 북받쳐 올라서 고개를 숙이며 손수건을 물었다. 그리고 자기가 오늘 고마쓰바라 저택을 방문한 전후 사정을 정리해보려고 했다. 자기가 종종 놀러가서 피아노를 칠 때면 꼭 얼굴을 내밀고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연주를 들어주던 야스마사를 좋아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지만, 훌륭한 이성(異性)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싫어하지는 않았다. 언젠가 야스코가 야스마사를 가리키고 웃으면서, “야스마사 오빠는 우수(憂愁)에 잠긴 척 하는 거예요. 누군가 새로운 애인이라도 찾으면 다시 원래대로 건강해질 거예요.”하고 말했을 때도, 자기라도 괜찮다면 상대가 되어 드릴 수 있다고 농담조로 말했지만, 내심 진지하게 그것을 생각해 본적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의 뜻밖의 처사에 대해서도 굴욕감보다는 애정을 느꼈다. 하지만 명희가 오늘 고마쓰바라 저택을 방문한 것은 그러한 목적에서가 아니었다. 이를 떠올리자, 한심할 정도로 자신의 경솔한 열정이 후회되었다. 게다가 이러한 결과가 앞으로 야스코와 오빠의 문제에 어떤 식으로든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것이다. 야스마사가 진지한 태도로 자기와의 문제에 개입할수록 그만큼 오빠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것이 뻔하다. 그것은 오빠를 위해서는 슬픈 일이었다.

집에 돌아오자 명수가 현관에 마중 나와서,

“늦었구나.”라고 했다.

오빠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고 명희는 고개를 숙인 채로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연습하고 돌아오는 길에 야스코 씨 집에 들렀다 왔어.”하고 얼버무리고는 모자를 벗는 것도 잊고 멍하니 방 안에 선 채로 있었다. 명수가 그 모습을 힐끗 보고는,
“안색이 안 좋은데”라고 했다. 그리고 어조를 누그러뜨리며,
“형 문제는 형 일이야. 더 이상 네가 신경 쓸 것 없어.”하고 위로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명희는 야스마사가 보낸 편지를 받았다.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았는데, 자신은 명희 씨와 결혼하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명희 씨 부모님의 허락을 받을 수 있을지 사정을 알고 싶다. 자기 쪽에서는 다소 반대를 하겠지만 헤쳐 나갈 작정이다, 만약 명희 씨 부모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혼자서 반대를 무릅쓰고 감행할 정도의 용기를 가져주길 바란다는 내용이였다.

마침 명희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편지가 도착해서 명수가 받았다.

“네게 편지 왔다. 허, 야스마사 씨가 보냈네.”하고 거실에서 명수가 전하는 소리를 듣고, 명희는 깜짝 놀라 하마터면 식칼로 손을 자를 뻔 했다.

“나한테?”

이상하다는 얼굴을 하며 거실로 나왔지만, 목소리가 상기되어 있는 것을 자신도 알 수 있었다. 젖은 손을 앞치마로 닦고 두 겹으로 된 하얀 봉투를 건네받으면서, 뭔가 적당한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머리가 멍해져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명희는 당황한 표정을 숨기면서 부엌으로 돌아왔다.

명수가 노래 연습을 하러 나간 후, 서둘러 설거지를 마치고 봉투를 열었다. 명희는 야스마사의 열정에 압도되었다.

조용한 방 안에서 한동안 현재를 망각한 듯한 시간을 보내면서, 그 편지 내용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야스마사의 말대로 자기는 그와 결혼을 할 수밖에 없다고도 생각했었다. 그러나 야스마사의 편지를 기다리는 동안 명희는 이와 정반대의 결심을 했다. 명희는 책상 위에 한참동안 엎드려 있다가 간단히 답장을 썼다.

보내주신 편지 잘 받았습니다. 저는 결코 당신의 처사를 원망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결혼할 의사는 없습니다. 여하간 당신의 뜻에 따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앞으로 부디 저게 편지를 보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즉각 그 편지에 대한 야스마사의 답장이 왔다. 그날은 마침 피아노 강습 받으러 외출하려던 참이어서 오빠에게 들키지 않고 편지를 받았다. 하지만 신주쿠(新宿)까지 전차 안에서 편지를 읽은 탓에 연습을 망쳐서 선생님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

너무 빨리 결혼 얘기를 꺼내서 놀라시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결혼에 대한 의지와는 별개로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명희는 두 사람이 결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을 언급했다. 서로 다른 환경의 차이에 관한 것(평소에 명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지만)과, 또 어쩌면 그럴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까지 덧붙였다. 그러면서 상대의 간절한 질문에는, 저는 당신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답했다.

곧 그 대답이 초래한 끔찍한 결과에 아연실색했다. 야스마사가 또 편지를 보냈을 때 명희는 열어 볼 용기도 없어서 그대로 봉투에 넣어 반송했다. 무엇보다도 명수가 알아차릴까 두려워 편지가 올 것 같은 날 배달부가 오는 시각에는 일을 미루고 편지를 기다렸다. 그리고 받은 편지는 그대로 반송했다. 그런데 드디어 배달부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왔다. 네 번째의 편지를 돌려 보낸 후, 야스마사로부터 더 이상 연락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 삼일 은근히 기다렸지만, 끝내 편지는 오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명희는 명수가 없는 시간에 자기 방에서 혼자 소리 높여 흐느껴 울었다.

6

명철은 야스코와의 결혼을 거의 단념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떤 기회를 만들어 다시 한번 만나고 싶은 마음은 차츰차츰 더해갔다. 머지않아 졸업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지만, 이대로라면 경성에 돌아갈 때까지 자칫 만나보지도 못하고 말 것 같았다.

외출하지 않는 날이 늘어나고 일요일마다 자습실에 틀어박혀 책이나 읽었다. 교정의 기름매미 울음소리도 그치고 방공훈련도 그러저럭 견뎌낼 만한 초가을이 찾아왔다. 청징(淸澄)한 교외의 공기가 더욱 맑아져 활짝 계인 날에는 단택련(丹澤連)산의 절벽이 가까이 보였다.

그날도 아침부터 외출하기 딱 좋은 화창한 일요일이었지만, 명철은 평소대로 나갈 채비를 하고 있는 같은 방 사람들을 묵묵히 쳐다볼 뿐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하지 않았다.

“오랜만에 도쿄(東京)에 나가보지 않으려나?”

야스시게가 여느 때와 달리 진지한 얼굴로 외출을 권했다. 명철은 내키지 않는 얼굴로 야스시게를 올려다보았지만, 문득 긴자(銀座)에라도 나가볼까 하는 기분이 들었다. 이를 눈치 챈 야스시게가 긴자에 가서 밥이라도 먹자고 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도쿄에 갔다.

신주쿠(新宿)에서 오다큐(小田急) 노선 전차를 내리자, 야스시게는 지하도로 플랫폼을 빠져나가면서 명철을 꺾었다.

“오래간만에 우리 집에 가는 건 어떤가?”

“아니, 됐어. 나중에 적당한 때를 봐서 갈게.”

“그래?”

긴자에 도착한 두 사람은 오와리초(尾張町) 부근을 걸었다. 2정목에 있는 ‘후지 아이스’ 앞에 다다랐을 때, 야스시게는 잠깐 용무가 생각났다고 바로 옆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로 들어갔다.

명철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야스시게는 이치가야(市ヶ谷)에 있는 자기 집에 전화를 걸어 야스코를 불러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쪽으로 못 가니까 한 시까지 긴자에 있는 ‘자생당(資生堂)’ 이 층으로 와달라고 말했다.

되는 대로 용건을 지어내 말하느라 얼굴이 벌게진 채 나오는 야스시게를 보고, 명철은 놀리듯이 “애인인가?”하고 물었다.

“응. 한동안 만나지 못해서 말이야.”

야스시게는 히죽 웃고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날씨 좋다.”하며 기지개를 폈다.

“기분 좋은가?” 명철은 별 흥미가 없는 듯한 얼굴이었다.

“좋지.”

“그래, 그럼 점심은 자네가 사게.”

“그건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긴.”

“말이 되나? 아니, 엉터리야. 에이 뭐가 뭔지 모르겠군.”

야스시게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둘은 잠시 돌아다니다가 ‘매림(梅林)’에 들어가서 커틀릿(cutlet)을 먹었다.

“부친과의 일은 잘 되어가고 있나?”하고 야스시게가 잡담을 하던 말미에 물었다.

“아버지?” 명철은 우울한 얼굴로 눈살을 찌푸렸다.

“아직 의절하겠다는 말씀은 없는데, 돈은 안 보내주셔. 군량미를 차단해서 전투력을 약화시키겠다는 심산이신 게지.”

“졸업하고 경성으로 돌아가면 타협하는 것도 힘들겠군.”

“응, 각오는 하고 있어.”

야스시게는 마시다 만 찻잔을 손에 든 채로 뭔가 생각하는 듯하다니, “자네, 지금 잠깐 우리 집에 가세.”하고 말했다.

명철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않았다.

“야스코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떨까.”

“아니, 그럴 필요 없어.”

“그래?”

두 사람은 ‘매림(梅林)’을 나왔다.

“자, 어디 가서 차라도 마시고 헤어지지.”

야스시게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야스코는, 아니, 야스코가 아니라 커피. 커피는 대체 어디가 맛있지? 그래, 자생당 이 층이 좋겠다.”

혼자서 그렇게 결정하고는 신바시(新橋) 쪽을 향해 부리나케 걷기 시작했다. 자생당에 들어서자 앞장서서 이 층으로 올라갔다. 명철은 그 뒤를 따랐다. 계단을 올라와서 야스시게는 주위를 둘러보고는 놀란 얼굴로 말했다.

“어라, 저기에 야스코가 와있네?”

명철은 움찔하며 얼굴을 들어 그 쪽을 보았다. 그리고 차분한 쥐색 애프터눈(afternoon)²⁴⁾을 입은

24) 애프터눈 드레스(afternoon dress)의 줄임말. 여성이 오후의 연회나 사교장 등에 참석할 때 입는 옷으로 보통 원피스이지만 우아한 투피스로도 쓰임.

야스코의 옆얼굴을 발견하자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실례하겠네.”

“이봐, 기다려.”

야스시게가 명철의 팔을 붙잡았을 때, 야스코가 이쪽을 쳐다보았다. 야스코도 약간 놀란 기색이었으나, 곧 웃는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에게 가볍게 인사했다. 명철도 인사를 하고 야스시게의 뒤를 따랐다.

야스시게는 야스코가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며, “세상 좁네, 사람은 이렇게도 만난다니까”하며 웃었다.

야스시게는 테이블에 이르러 야스코에게,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 오와리초(尾張町)에서 우연히 남군을 만나서 같이 밥을 먹느라 시간이 지나버렸다.”고 말하고, 줄지에 당황한 채 서있는 명철에게 의자를 권했다.

“앉게.”

명철은 굳은 표정으로,

“난 역시 돌아가는 게 좋겠어.”

“갈 때 가더라도 일단 앉으라고.”

명철은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며 묵묵히 있었다.

주문한 커피가 올 동안 야스시게는 야스코와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눈 후, “난 볼 일도 좀 있고 해서 이치가야(市ヶ谷)에 들렀다가 돌아갈게”하며 자리를 떠났다. 명철이 불러 세우자, “응”하고 대답만 하고는 그대로 계단 쪽으로 걸어갔다.

야스시게가 가버리자,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명철은 마시다 만 커피 잔을 만지작거리다가 이내 야스코의 얼굴을 보았다. 쳐다보니, 야스코가 가만히 자신의 눈을 응시하고 있어 다시 다급하게 시선을 돌렸다.

“오랜만이네요.”하고 야스코가 말했다.

“전 그 후로 명철 씨 편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시라도 빨리 명철에게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고 야스코는 밝게 웃었다. 그러나 명철은 여전히 우울한 모습으로 그 웃음에 화답하지 않았다.

“저는 아가씨 편지를 읽고 나서 답장이 필요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뭔가 결레되는 내용이라도 있었던가요.”

“아닙니다. 결레는커녕 대단히 친절하셨습니다.”

“.....”

“그러나 제가 아가씨에게 그런 걸 기대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어요.”

명철의 태도가 의외로 강경해서, 야스코는 이 말을 끝으로 침묵을 지켰다. 이미 형식적인 잡담을 나누기에는 분위기가 너무 냉랭해져 있었다. 야스코는 입을 다문 채 제 생각에 골몰했다.

명철이 커피를 다 마시자 두 사람은 ‘자생당’을 나왔다. 포장도로를 걸으면서도 4정목의 네거리에 이르러서도 명철의 태도는 분명하지 않았다.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럼 이만하고 싱겁게 헤어져버

릴 것 같아서 야스코는 안절부절 했다.

네거리의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면서 엄숙한 얼굴로 명철을 돌아보았다. 상황에 따라서는 정말로 헤어질 작정이었다.

“전 저쪽에서 버스를 타고 가겠어요.”하고 네거리의 맞은편을 가리키면서, 야스코는 명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명철은 가리킨 방향은 보지 않고 야스코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그러시겠습니까.”하고는 군화코 앞으로 시선을 떨구었다.

야스코는 울컥 치밀어 오르는 분로로 숨이 가빠왔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짧게 말하고는 발길을 돌렸다. 아무 생각 없이 네거리의 횡단보도를 건너고 나서 정신을 차려 보니, 명철이가 두세 걸음 뒤에서 따라오고 있다.

“바래다 드리지요.”

“괜찮아요.”

말투는 딱딱했지만, 기분은 좀 누그러졌다. 가능한 한 천천히 버스정류장 쪽으로 가면서 명철의 말을 기다렸다.

“야스코 씨.”

명철이 뒤에서 불러 세웠다.

“괜찮으시다면, 저와 조금 더 이 근처를 걸어 주시겠습니까?”

명철은 진지한 안색으로 말했다.

“네, 별다른 일은 없지만”

야스코는 체제하는 듯이 꾸뻐지만, 자기의 몸짓이 약간 과장스럽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터져 나오는 웃음을 감추려고 고개를 숙였다.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두 사람은 조금 전 ‘자생당’ 이 층에서 만나던 순간의 감정을 되찾고, 히비야(日比谷) 쪽을 향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었다.

“죄송했습니다. 기분이 나쁘셨지요. 생각 좀 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생각하셨는데요?”

“사소하고 하찮은 일이에요.”

명철의 입 꼬리에 경미하게 자조적인 웃음이 이는 것을 보고, 야스코는 문득 상대의 기분을 이해했다.

“그런 건 생각하지 않는 편이 좋아요.”

“그렇겠지요. 예전에는 이르지 않았는데.”

두 사람은 그대로 곧바로 걸어서 히비야 공원으로 들어갔다. 식물원을 한 바퀴 돌고 연못근처로 나오니 오후의 햇빛이 따뜻하게 반사되고 있는 물 위에 원앙의 무리가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다. 제철 꽃이 식물원에 피어 있지 않았다면, 봄으로 착각할 정도의 날씨였다.

야스코는 이따금 눈을 들어 명철의 얼굴을 훑듯 보았다. 명철은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야스 시계의 호의로 자기와 만나게 된 것을 분명히 기뻐하는 모습이었다. 야스코도 명철과 만나서 좋았다.

만나면 이렇게 끌리는 사람인데, 안 보면 어쩌서 그렇게 냉정해지는지, 야스코는 자신의 성격을 새삼 돌아보았다. 그리고 거기에는 끊임없이 자신의 이성을 지탱하고 있는 어떤 것이 개입해 있음을 발견했다. 야스코는 그것이 조금 전 스스로 명철에게 말한, 생각하지 않아도 좋은, ‘하찮은 것’임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멈추어 서서 연못을 둘러보았다. 하얀 거위가 집오리 두 마리와 섞여 있는 것을 보고, “조선에서는 저 거위를 파수견 대신 기릅니다. 저래보여도 거위가 상당히 영리한 새이지요.”라고 명철이 말했다.

“거위가 파수견을 대신한다고요?”

“네에. 수상한 놈이 오면 단숨에 쫓아가지요.”

“어머, 거위가 인간을 쫓을 수 있나요?”

“조선의 거위는, 용감합니다.”

두 사람은 음악당 앞으로 나섰다. 광장을 둘러보니 공회당 앞에 반은 유니폼에 반은 신사복 차림인 아마추어 팀이 야구시합을 하고 있다. 이따금 훌륭한 밴드 음이 들려왔다.

한참이 지나도 명철은 별다른 얘기를 꺼내려고 하지 않았다. 야스코는 명철이 자기를 여기까지 데려와 왔지만, 특별히 결정적인 얘기는 하지 않을까봐 불안해졌다.

“명철 씨가 할 얘기라는 게 거위 얘기였어요?”

야스코는 쌍꺼풀 진 깊은 눈을 들어 명철을 응시했다. 명철은,

“거위요?”하고 웃었다.

그리고 다시 왔던 길로 발걸음을 돌려 식물원 안으로 들어갔다.

“간단한 얘기입니다. 헤어질 때 말씀드리려고요.”

“지금 하시면 안 되는 얘기인가요?”

“야스코 씨가 기분 나빠지거나 하지 않을까 해서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럼, 말하지요. 일전에 제가 보낸 편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야스코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잠시 걸었다. 그리고 이윽고 긴장한 얼굴을 하고,

“오늘 돌아가서 잘 생각해 볼게요. 이삼 일쯤 기다려주세요. 꼭 확실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시선을 돌렸는데, 푸른 잔디 속에 무리지어 있는 다알리아(dahlia) 꽃잎이 눈부셨다.

야스코는 아버지께 털어놓고 이야기해보자고 생각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얘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기분이었다. 아버지는 반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명철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 야스코는 여태껏 자신이 그 점을 너무 등한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명철과 헤어져 집에 돌아와 저녁식사 때 아버지를 기다렸다. 평소처럼 아버지의 귀가는 늦어졌다. 야스코는 자기 방으로 돌아와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동안, 명철과 결혼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점차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미 마음속에서 그것을 분석하고 비판해 볼 여유가 없었다. 그것 모두가 핑계처럼 생각되었다. 적어도 야스코는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인격을 신뢰하고 사랑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손목시계가 여덟 시를 지났을 때, 야스코는 상황을 살펴보려고 복도로 나섰다. 아버지의 방은 아래 층에 있었다. 계단을 내려오자 마침 가정부와 마주친 김에 야스코는 물었다.

“아버지 아직 안 오셨어?”

“아니오. 들어오셨습니다.”

“어머 그래.”

“네.”

“조금 전에?”

“네.”

야스코는 일단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마음을 진정시키려 할 때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은 습관이였다. 처음에 꺼낼 두세 마디의 말을 준비하고 나서 아버지의 방으로 갔다.

야스코는 방 앞에서 조금 망설이다가 결심을 하고는,

“안에 계세요?”하며 조용히 장지문을 열었다. 그리고,

“어머.”하고 조그맣게 소리를 냈다.

아버지가 아연실색한 얼굴로 이쪽을 보았지만, 야스코는 아버지 앞에 오만하게 얼굴을 들고 있는 야스마사에게 순간 정신을 빼앗겼다. 야스마사는 야스코 쪽을 돌아보려고도 않고, 번뜩이는 눈으로 도쿄노마(床の間)²⁵ 위에 놓인 화로에 그려진 국화를 주시한 채 묵묵히 있었다.

“무슨 일이냐?”

아버지가 기분이 좋지 않은 듯한 모습으로 물었다.

“아니요, 별로—”하고 야스코는 말을 더듬으며 허둥거렸다.

“할 말 있으면 나중에 오너라.”

“네.”

야스코는 복도로 나오며 장지문을 닫았지만, 오빠가 무슨 때문에 저런 태도로 아버지와 마주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오빠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면 아버지의 방을 찾아가지 않는다. 야스코는 그 자리에서 사정을 알고 싶었지만, 아버지와 오빠의 말을 엿듣는다는 것이 양심에 찔려 물러나려 했다.

그때 안에서 야스마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는 어쨌든 명희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야스코는 놀라서 우뚝 멈춰 섰다.

화를 참는 듯한 아버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네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난 그것을 허락할 수 없다.”

“알고 있습니다.”

“상대가 뭔가 요구해 온 것도 아닌데 네가 스스로 책임을 느껴서 소란피울 건 없다고 생각한다.”

25) 도쿄노마(とこのま) : 일본식 방의 상좌(上座)에 바닥을 한층 높게 만든 곳.

그에 대해 야스마사는 대답이 없고, 방 안은 조용해졌다. 야스코는 허를 찔린 듯하여 그대로 멍하니 서 있었다.

“너는 내년 봄 야스히코(保彦)가 돌아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으로 방안은 침묵에 잠겼다.

야스코는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잠시 후 야스코는 책장 앞에 서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리고 다시 얼마가 흐른 뒤 자신이 책장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 자리를 떠나 모친이 있는 다실(茶屋)로 내려갔다.

모친은 다다미 위에 약간 흐트러진 자세로 부인잡지의 표지를 우두망찰 바라보고 있다가, 야스코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다소 당황스러운 듯이 자세를 고쳐 앉았다. 야스코는 다다미위에 무릎을 꿇고 얼빠진 눈길로 잠시 어머니 쪽을 쳐다보았다.

모친은 딸이 무슨 말을 하려나보다 싶어서 기다렸지만, 한참이 지나도 야스코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무슨 일이니?”하고 먼저 물어 보았다.

“아버지 방에 오빠가 있어요.”

야스코는 정면으로 모친의 눈을 응시했다. 모친은 약간 곤혹스러운 안색을 보이며 “안다.”하고 야스코를 올려다보고는, 힘이 빠진 듯 다시 편한 자세로 앉았다.

“명희 씨 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빠에게— 무슨 일 있어요?”

짐작하고 있는 일을 다시 물으면서, 어머니에게 그것을 자세하게 들을 일이 두려워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게 말이지.”

어머니는 딸의 얼굴을 흘끗 쳐다보았지만, 아무래도 숨길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듯 한숨을 쉬며 말을 꺼냈다.

“벌써 2개월쯤 전에, 우리가 집에 없을 때 명희가 놀러온 모양이더구나. 그래서 너 대신 야스마사가 말상대를 해주면서.”

그 뒤의 일은 눈짓으로 전하려고 야스코 쪽을 보았더니, 야스코는 이미 얼굴을 돌리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그 애가 그랬나 생각하면, 나는 웬지 걱정보다도 묘한 기분이 든단다.”

모친은 아들이 그런 극단적인 변화를 보여준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나 급격히 침울해지고 있는 딸을 보고는 다시 표정을 감추고 생각에 잠겼다.

잠시 후, 모친은 위로조로 야스코에게 공감을 표했다.

“물론 나도 명희가 안됐다고 생각은하지만, 그래도 어찌니 아버지 천성이 그러신 걸.”

어쩔 도리가 없다는 얼굴로 모친은 장지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때 아래층에서 부친의 발소리가 났다. 야스코는 창백한 얼굴을 들고 앉음새를 고쳤다.

부친은 어두운 표정으로 들어와 방석을 끌어당겨 가부좌를 틀더니, 야스코를 돌아보며 “너는 네 방으로 가거라.”했다. 야스코는 아무 말 없이 일어섰다. 부친은 모친의 안색에서 뭔가 짐작을 하고는 다시 야스코에게 앉으라고 말했다.

부친은 얘기를 들은 대로 다시 묵묵히 앉아 있는 야스코를 얼굴에서 발까지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모친 쪽을 보며 허탈한 표정으로,

“야스마사의 얘기로는 그 명헌가 뭐가 하는 여자를 네가 잘 알고 있다던데.”

“네. 전에 자주 집에 놀러오곤 했어요.”

“어떤 여자냐?”

“착실한 아가씨예요. 게다가 상당히 영리하고 아름다운 사람이고.”

“음.”

부친은 거절하는 상대의 조건이 나쁘지 않아 심기가 더 불편했다. 어머니는 조금 기운이 나서, “게다가 그 아가씨 피아노를 아주 잘 쳐요.”

부친은 피아노가 체면을 세울 만한 구실도 못되는 데, 당신은 무슨 얼빠진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는 표정으로 대단히 불쾌한 듯이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얼마간 부친은 입을 꼭 다물고 있다가 야스코를 돌아보며,

“그 여자가 너와 친한 모양이던데.”했다.

야스코는 고개를 숙인 채 고개만 끄덕였다.

“그 여자 오빠가 야스시계와 같은 부대에 있다면서.”

“네.”

“작년인가, 내가 응접실에서 잠깐 본 그 키가 큰 청년이냐?”

“네. 맞아요.”

부친의 말을 듣고 야스코는 그때의 일을 떠올렸다. 부친은 잠깐 봤다고 하지만, 그때 응접실에서 야스시계가 명철을 소개했었다. 당시 부친이 명철의 이름을 듣고, 의식하지는 못했겠지만 태도를 달리했던 것을 야스코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당신은 다른 좋은 생각 없소?”

야스코가 얼굴을 드니 부친은 모친을 바라보고 있었다.

“글쎄요. 뭐라고 해도 저 녀석이 남의 집 딸에게 그렇게 못 된 것을 저질렀으니.”

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애정과 세상에 대한 체면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한번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면 어떨까요.”

“생각해보고 어찌자고?”

“어찌다니요.—”

어머니가 우물쭈물하다가 말을 꺼내려 하자,

“그건 안돼.”하고 아버지는 부정했다. 그리고 팔짱을 끼고 “뭐니뭐니해도 야스마사는 장남이니까.” 하며 고개를 가웃했다.

“그건 그렇지만.”

“당신도 친척들에게 난처할거야.”

“그렇지요. 하지만 때가 되면 모두들 이해해주시겠지요.”

“언젠가 이해는 해주겠지.— 그래도 그것과 당신 체면은 또 다른 문제이니까.”

“하지만 저 녀석이 저렇게 푹 빠져 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 일만 아니면, 이런 희귀한 재난이 내 가정을 덮칠 턱이 없지.”

부친은 야스코를 돌아보며, 너는 어떠냐고 물었다. 야스코는 눈을 치뜨고 부친을 한번 쳐다보고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부친은 점점 자신의 입장이 고립되는 것에 불안을 느끼면서 떨떠름한 얼굴로, “내 쪽은.—”하고 골똘히 생각해가며 아는 사람의 얼굴을 한 사람씩 떠올려보았다. 그 가운데서도 사회적으로 지위 있는 명사(名士)의 얼굴을 떠올리고는 자신의 결의를 반복하지 않으려 했다.

“조선총독부의 시바타(紫田) 씨가 언제가 내게 내선결혼을 권유한 적이 있지만, 만약 자기가 지금의 내 입장이라면 다를 게 없을걸.”

“그건 상대의 조건 여하에 달려 있겠죠.”

부친은 불안한 듯 모친의 얼굴을 바라보며,

“당신 설마, 야스마사의 생각에 동조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 아가씨는 일본어만 해도 곧잘 하고.—”

“그래봤자, 곧잘 하는 것일 뿐이지.”

“당신은 세상 사람들에 대해 너무 지나치게 신경을 쓰세요. 외국의 경우만 해도,—”

“외국은 외국이고, 일본은 일본이지.”

부친은 우울한 얼굴로,

“당신은 무슨 얘기든 외국을 입에 올리는데, 서양문화는 수준이 엇비슷하고 여러 풍속습관이 아주 비슷해. 그래서 독일남자와 이탈리아 여자가 결혼해도, 또 프랑스 여자와 헝가리 남자가 결혼을 해도 부자연스럽지 않지. 하지만 일본은 아직 그렇지 않아.”

“그래도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죠.”

“그래 언젠간 그렇게 되겠지만, 내가 그 도화선에 불을 댕기는 건 사절이야. 질색이라구.”

야스코는 더 이상 부친을 대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 다실을 나왔다. 현기증이 일어나 숨을 쉬는 것이 괴로웠다. 고개를 숙인 채 계단을 올라오니, 야스마사가 복도에 묵묵히 서 있었다.

야스코는 깜짝 놀라며 오빠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야스마사는 창백한 얼굴에 눈만 번뜩이며 계단 아래쪽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아버지는 다실에 계시니?”하고 물었다.

“응.”

야스코가 고개를 끄덕이자, 야스마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려가려 했다. 그 팔을 야스코가 붙잡고,

“기다려.”하며 멈춰 세웠다.

야스마사는 침착하게 야스코 쪽을 보았지만, 차츰 표정이 험악해졌다.

야스코는 잠시 후 작은 소리로,
“명철 씨 책임져야 해.”하고 말했다.
야스마사는 눈을 돌리고 묵묵히 있다가,
“너한테는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발길을 돌렸다.
오빠가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야스코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자춧빛 책상 앞에 아무렇게나 앉아 한참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애정이라는 것도 자기와 명철의 경우는 실없는 감상으로 끝날 운명 밖에 안 되는가보다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귀결된 듯한 느낌도 들었다. 멍하니 책상 위에 얼굴을 비쳐보면서, 야스코는 잠깐 명철의 고독한 입장을 생각했다.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명철과 둘이서 도쿄를 빠져나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았다. 명철이 만일 군인이라는 특수한 입장만 아니었다면, 자기는 그것을 실행에 옮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다. 그러나 곧 자기가 상대의 그 위치를 구실로 삼고 있다는 것도 깨닫는 것이었다.

이내 야스코는 펜을 들어 명철에게 편지를 썼다. 교제를 그만두고 싶다는 내용을 적으려고 했는데, 써내려가는 동안 펜은 어느새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야스코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펜을 놓았다. 그리고 그것을 찢어버리고 손 위에 이마를 얹고 책상에 엎드린 채로 가만히 있었다.

명철은 그 후 이삼 일이 지나서 야스코의 편지를 받았다. 소등 전에 침실에서 편지를 읽었지만, 이번에는 그다지 표정의 변화가 없었다. 두 번 다시 읽어보고 상의 주머니에 집어넣고는 천천히 침대 위에 누웠다.

옆에서 마찬가지로 잘 준비를 하고 있던 야스시게가,
“무슨, 일 있나?”하고 말을 걸었다.
“아니.”하고 명철은 천정을 응시한 채로 평정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몸을 뒤척여 야스시게에게 등을 보이며 누웠다.

야스시게는 침대 위에 앉아 뭔가 혼자서 생각에 잠겨 있다가, 마침내 명철의 머리맡으로 다가갔다. 명철은 입을 다문 채 야스시게 쪽을 돌아보려 하지 않았다. 야스시게는 잠시 그렇게 있다가 결국 자신의 침대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밤이 깊어감에 따라, 명철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번민하면서 오늘도 또 잠을 못 이루는 것이 아닌가 싶어 초조해졌다. 야스코는 두 장의 편지지에 간략히 내용을 적어 보냈다. 거기에는 자기는 언제까지나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첫머리로, 그렇지만 두 사람의 결혼은 이미 주위의 사정이 허락하지 않는다, 지금 여기서 그 사정을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결국 당신도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앞으로 당신을 안 만났으면 한다, 그저 경건한 마음으로 당신의 입장에 동정을 표한다는 의미가 담긴 내용이 적혀 있었다.

“당신에게 동정 따위는 받고 싶지 않다.”고 명철은 반발했다.